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때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곳 : 한글학회 얼말글교육관

주최: **한글 학회**

후원: 한글재단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차 례•

[제1부]

송 재복 : 남북 언어 규범 통합을 위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	7
이 운영 :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관련 사업의 현황과 전망	21

[제2부]

전 정미 :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비교	41
양 수정 : 북한의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69

[제3부]

엄 태경 · 신 중진 :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그 필연	95
김 영환 : 한자 폐지—남북 말글 하나 됨의 선행 조건	115

[제4부]

연 규동 : 남북 통합 맞춤법 준비를 위한 전제 조건	137
한 용운 :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과 과제	151
고 대영 : 남북의 표기 차이에 관하여—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169

제1부

남북 언어 규범 통합을 위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 / 송 재목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관련 사업의 현황과 전망 / 이 운영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1부

남북 언어 규범 통합을 위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

송 재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jaemog@hufs.ac.kr

● 목차

1. 머리말
 2. ‘통합안’ 마련의 필요성
 3. 통합 대상
 4. 과제와 전망
- 참고문헌

1. 머리말

- <겨레말큰사전 어문규범분과 합의안>(이하, ‘겨레말합의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 규범 통합을 위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2. '통합안' 마련의 필요성

- 남북 언어의 차이:

거위/게사니, 낙지/오징어, 가깝다/가깝다, 부서지다/마사지다, 도넛/가락지빵, ...

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너무나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우리 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것이 중요하다.

- 남북 언어의 차이를 해소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대상

- 1) 자모
- 2) 띄어쓰기
- 3) 문장부호
- 4) 문법용어(품사명) 합의
- 5) 형태/어휘표기 I
- 6) 형태/어휘 표기 II
 - ㄱ. 사이시옷
 - ㄴ. 두음법칙
 - ㄷ. 한자어 모음 'ㄱ'의 표기
 - ㄹ. 'ㄱ'/'ㄱ'
 - ㅁ. 기타
- 7) 규범발음
- 8) 로마자표기법

〈겨레말합의안〉에서 합의에 이른 사항들

〈겨레말합의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들

3.2. 띄어쓰기(겨레말 2009)

	(남)	(북)	(겨)	예
단위명사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두마리, 세명
수사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	사조 이십육억 삼천사백오십육만 팔백구십팔
명사 연결체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는 띄어 쓴다	붙여 쓰되, 뜻이 통하게 띄어 쓴다	두 단어까지 붙여 쓸 수 있다	국가 건설 방향 설정/국가건설 방향설정
고유명사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붙여 쓴다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호칭어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홍길동씨, 순희양
전문용어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	붙여 쓴다	붙여 쓰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명사를 다시 받는 어휘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	학생 전원, 답사자 일행
지명+어/산/강/해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라틴어, 에베레스트산, 티그리스강, 아드리아해

3.3. 문장부호

(가) 남에만 있는 부호: 가운뎃점(·), 빗금(/), 중괄호({ }), 빠짐표(□)

(나) 북에만 있는 부호: 같음표(≍), 반두점(;))

(다) 명칭에 차이가 있는 부호: 온점/점(.), 쌍점/두 점(:), 소괄호/쌍괄호(()), ...

(라) 문장부호의 통합(겨레말 2009)

부호	(남)	(북)	(거)	기능	부호	(남)	(북)	(거)
.	온점, 고리점	점	온점/응근점		()	소괄호	쌍괄호	반달괄호
?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 }	중괄호		X
!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	대괄화	꺾쇠괄호	꺾쇠괄호
,	반점, 모점	반점	반점		—	줄표	풀이표	풀이표
·	가운뎃점		X		-	불임표	이음표	불임표
:	쌍점	두점	두점		~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	(쌍반점)	반두점	X		˙, ˘, ˘˙, ...	드러냄표	밀점	드러냄표
/	빗금		빗금		oo, xx	숨김표	숨김표	숨김표
《 》	(큰따옴표, 겹낫표)	인용표	인용표	출전	□□□	빠짐표	숨김표	빠짐표
“ ”	큰따옴표, 겹낫표	(인용표)	큰따옴표	인용	...	줄임표	줄임표	줄임표
< >	(작은 따옴표, 낫표)	거듭인용표	거듭인용표	단어/어구 강조	„		같음표	같음표
‘ ’	작은 따옴표, 낫표	(거듭인용표)	작은따옴표	작은 단위 표시				

3.4. 문법용어(품사명)(겨레말 2009)

(가) 남과 북이 동일한 것: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동사, 타동사, 자립동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부사, 감탄사

(나) 남과 북이 다른 것:

(남)	(북)	(거)	(남)	(북)	(거)
조사, 어미	토	토	서수사	순서수사	순서수사
자립명사	완전명사	자립명사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
의존명사	불완전명사, 단위명사 말뿌리적 명사	의존명사	성상형용사	성질형용사	성질 및 상태 형용사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사람대명사	인칭대명사	성상관형사	성질관형사	성질 및 상태 관형사
지시대명사	가리킴대명사	지시대명사	수량관형사	분량관형사	수량관형사
의문대명사	물음대명사	의문대명사	접두사	앞붙이	접두사
양수사	수량수사	수량수사	접미사	뒤붙이	접미사

3.5. 형태/어휘표기 I: 합의에 이른 사항들

- 형태표기 합의: 519항목
- 외래어 표기 합의: 771항목

3.5.1. 'ㅣ'모음역행동화의 표기:

(남) '하-' 뒤에서 '-여, -였'으로: '기어, 개어, 베어, 되어, 쥐어, 희어, 하여'

(북)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인 경우와 줄기가 '하-'인 경우에 '-여, -'으로:

'기여, 개여, 베여, 되여, 쥐여, 희여, 하여'

(거): 1. '되여/되여'를 복수로 인정하되, 뜻풀이에서는 '되여'를 사용하고, '되다'의 활용 정보는 '되여, 되여'를 모두 제시한다.

2. 나머지의 경우도 용언의 활용에서 '-어', '-여'로 차이가 날 경우에 복수로 인정하되, 뜻풀이에서는 '-어'를 사용한다.

3.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올림말이 '-어'와 '-여'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만 인정한다.

3.5.2. 종결형 어미 '-오/요'의 표기:

(남) '요'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오'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오.', '이리로 오시오.'

(북) 체언인 경우에는 '-요', 용언인 경우에는 '-오'를 쓴다: '아주 유리한 부업이요.', '올라 앉게 되오.'

(거) '-오'로 적는다.

3.5.3.. 'ㅂ'불규칙활용:

(남) 두 음절 이상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의 경우 현실적 발음 형태를 취하여 모음조화법칙에 따르지 않고 '-워, -웠'으로 표기: '괴로워, 괴로웠다, 아름다워, 아름다웠다'

(북) 예외 없이 모음조화법칙에 따라 표기: '괴로와, 괴로왔다, 아름다와, 아름다왔다'

(거) '-워, -웠'으로 적는다

3.6. 형태/어휘표기 II: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항

3.6.1. 사이시옷:

(남): 한글 맞춤법 제30항

1. 순 우리말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밥', '나룻배'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아랫니', '뒷마당'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일', '깻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겻날', '뒷마루'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예삿일'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등 6단어

(북): 덧나는 소리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시옷을 붙여 구분한다:

'셋별'/새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
'셋서방(사이서방)/새서방(갓 결혼한 젊은 남자)'

3.6.2. 두음법칙

(남): 두음법칙을 인정한다.

1. 한글 맞춤법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기'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녀자)', '여성(<녀성)'

(예외) '냥(兩)', '냥퐁(兩重)', '년(年)'과 같은 의존명사는 '냐, 녀' 음을 인정

2. 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역사(<력사)', '요리(<료리)'

(예외) '리(里)', '리(理)' 등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북):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녀자, 뇨소, 락원, 로동, 례외

3.6.3. 한자어 모음 ‘ㄱ’의 표기:

(남) ‘게, 레, 메, 페, 헤’의 ‘ㄱ’는 /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도 ‘ㄱ’로 적는다.

예외)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북) ‘게, 레, 헤, 예’만 인정한다: ‘연메(連袂), 폐품(廢品)’

예외) 그 본래소리가 ‘게’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게시판(揭示板), 게재(掲載), 게양대(揭揚臺)

3.6.4. ‘-꾼/-군’

(남) 심부름꾼, 일꾼, 익살꾼, ...

(북) 심부름꾼, 일군, 익살군, ...

3.6.5. 기타

3.7. 규범발음

(남) ‘표준어규정’의 ‘표준 발음법’(1988년)

제1장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 ‘조선말규범집’(1966, 1988, 2010)의 ‘표준발음법’/‘문화어발음법’

총칙: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

ㄱ. 모음 ‘ㅛ, ㅜ’:

(남) 단모음으로 발음하나,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북) 어떤 자리에서나 홀모음으로 발음한다: ‘외국, 외삼촌, 위대하다, 위병대’

ㄴ. 모음 ‘ㅕ’:

(남)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찌어’ → ‘찌[찌]’, ‘다치어’ → ‘다쳐[다처]’

ㄷ. 모음 ‘ㄴ’:

(남)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예외) 자음이 첫소리인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널리리, 무늬, 띄어쓰기’

이음절 이하의 ‘ㄴ’은 [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협의/협이]’

조사 ‘ㄴ’은 [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우리의[우리의/우리애], 강의의[강의의/강이애]’

(북)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된소리 자음과 결합될 때,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있는 ‘ㄴ’은 [ㄴ]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

‘띄우다[띠우다], 회의실[회이실], 의의[의이]’

속격토는 [ㄴ]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한다: ‘혁명의 북소리[혁명에 북소리]’

ㄹ. 모음 ‘ㄷ’:

(남) ‘예, 레’ 이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계집], 시계[시계/시계], 메벌[메벌/메벌], 개폐[개폐/개폐]’

(북) ‘ㄱ, ㄹ, ㅎ’ 뒤의 ‘ㄷ’은 각각 [ㄷ]로 발음한다: ‘계속[계속], 레철[레철], 혜택[혜택]’

ㄱ. ‘ㅈ’ 받침:

(남)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넙다[넙따]’

단, ‘ㅈㅈ’은 자음 앞에서, ‘넙-’은 복합어에서 각각 [ㅈ], [넙]으로 발음:

‘ㅈㅈ다[ㅈㅈ따], 넙죽하다[넙주카다]’

(북) 무성자음 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ㅈ]로 발음한다: ‘넙지[넙찌]’

단,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불이가 올 때는 [ㄹ]로 발음한다.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넙고넙은[넙꼬넙븐], 넙꾸나[넙꾸나]’

ㅂ. ‘맛있다/멋있다’:

(남) [마덜따, 머덜따]가 원칙이나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북) [마신타, 머신타]를 원칙으로 한다. →

조선말규범집(2010) [마신타/마덜따], [머신타/머덜따]

ㅅ. 두음법칙

3.8. 로마자 표기법

ㄱ. 로마자 표기의 기본원칙:

(남):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2000, 20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북): ‘외국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1956)

“외국자모로써 조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조선 음운을 충실히 반영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조선어 받침을 중심으로 하는 어음교체 현상과, 조선어음의 결합적 변화만은 변화되는 대로 표기한다.”

ㄴ. 남북의 차이:

자음: 평음, 경음, 격음의 표기

ㄱ(g,k/k,g), ㅋ(k/kh); ㄷ(d,t/t,d), ㅌ(t/th); ㅂ(b,p/p,b), ㅍ(p/ph);

ㅈ(j/ts,dz), ㅉ(jj/tss), ㅊ(ch/tsh)

모음: ㅏ(eo/ö), ㅓ(eu/ü), ㅗ(ae/ai), ㅛ(yeo/yö), ㅜ(wo/wö), ㅡ(oe/oi), ㅟ(ui/üi)

ㄷ. 남북의 자음 표기 대조표:

자음	(남)	(북)	자음	(남)	(북)
ㄱ	g , k	k, g	ㅋ	k	kh
ㄴ	n	n	ㅌ	t	th
ㄷ	d, t	t, d	ㅍ	p	ph
ㄹ	r, l	l, r	ㅎ	h	h
ㅁ	m	m	ㄲ	kk	kk
ㅂ	b, p	p, b	ㄸ	tt	tt
ㅅ	s	s	ㅃ	pp	pp
ㅇ	ng	ng	ㅆ	ss	ss
ㅈ	j	ts, dz	ㅉ	jj	tss
ㅊ	ch	tsh			

ㄹ. 남북의 모음 표기 대조표: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ㅛ
(남)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북)	a	ö	o	u	ü	i	ai	e	oi	wi	ya	yö	yo	yu	yai	ye	wa	wai	wö	we	Üi

ㄹ. 199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요청으로 로마자 표기법 남북단일안 합의: TR11941

모음 표기는 합의 되었으나, 자음은 남북의 안이 함께 실림.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ㅛ	ㅜ	ㅠ	ㅝ	ㅞ	ㅟ	ㅛ
(남)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북)	a	ö	o	u	ü	i	ai	e	oi	wi	ya	yö	yo	yu	yai	ye	wa	wai	wö	we	Üi
ISO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yu	yae	ye	wa	wae	weo	we	yi

--> 세계표준(International Standard)로 전환되지 않아 2002년 자동 폐기.

4. 과제와 전망

- ‘겨레말합의안’의 성과와 한계
성과: ‘남북 언어 규범 통합안’의 토대 마련
한계: 활용범위
- ‘겨레말합의안’에서 개선할 점
- 합의하지 못한 사항(‘사이시옷, 두음법칙’ 등)의 해결방안
- ‘통합안’의 합의와 실현가능성

〈참고 문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9) 겨레말큰사전 보고회 자료집.
- 고 영근(2001)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29-45.
- 고 영근 외(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박이정.
- 곽 충구(2001, 새국어생활 11.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5-27.
- 국립국어원(2011)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권 인한(1992) 남북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 『국어문화학교』 1, 국립국어연구원, 35-47.
- 권 인한(2002) 발음법의 통일 방안 모색,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51-67.
- 권 재일(2004)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1-27.
- 권 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 권 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 재일(2008)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 권 재일(2010)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한국』 322, 평화문제연구소, 8-9.
- 권 재일(2015) 분단 70년의 남북한 언어, 『지식의 지평』 19, 대우재단, 1-17.
- 김 광수(2003) 남북한 정보기술용어의 차이점과 통일의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306-313.
- 김 기혁(2000) 남북한 문장론(통사론) 연구의 쟁점과 방향, 『민족문화연구』 33, 1-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 민수(1998) 민족어의 통일 문제, 『인문과학논집』 6.1,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 민수(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 방안,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5-21.
- 김 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김 병선(2001) 서로 다른 정보기술 용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73-86.
- 김 일성(1966.5.14.)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8년 3호(1968.11), 1-9.
- 김 양진(2003)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 형태규범(표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83-119.
- 김 정은 외(1998) 『(수정·증보판) 남북한 언어 연구』, 박이정.
- 김 정은(1999) 남북한의 단어형성법 비교 연구, 『한말연구』 5, 63-94, 한말연구학회.
- 김 태식(2001) 언론의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88-98.

- 김 택구(2001)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와 통일방안의 모색, 『인문과학연구』 9,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79.
- 김 희진(1996)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 김 희진(1998) 남북한 외래어의 표기와 사용 실태—외래어 표기법·국어사전·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 정은 외, 『(수정·증보판) 남북한 언어 연구』, 박이정.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6) 남북통일말사전, 두산동아.
- 문 금현(2004)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 민 현식(2002,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3) 남북 띄어쓰기 규범 문제의 현안—새로 나온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과 비교하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9-49.
- 박 창원 편(2003) 『남북한의 언어와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서 태길(2003) 남북한 국어사전과 통일방안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체제와 형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23-56.
- 유 영옥(200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 『민족사상연구』 12,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337-365.
- 이 경희(1997) 현행 남북한의 표기법 연구, 『우암어문논총』 7,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3-163.
- 이 관규(2016) 남북한 어문 정책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63-90.
- 이 봉원(2003) 남북 표준 발음의 통일방안,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57-82.
- 이 은정(1989) 남북한 맞춤법 비교 연구, 『한글』 205, 한글학회, 165-192.
- 이 현주·신 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61-293.
- 임 흥빈(1992) 남북한 국어 연구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 연구: 북한의 문법론, 『어학연구』 28.3, 445-597,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전 수태(2000)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국어문화학교』 5, 국립국어연구원, 69-96.
- 전 수태(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11.1, 47-60.
- 전 수태(2004)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전 수태·최 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녹진.
- 정 중남(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 정 경일(2002)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69-93.
- 정 경일(2003) 로마자 표기법의 남북통일방안,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121-149.
- 정 훈탁(2004) 남·북한 맞춤법 비교와 통일방안, 『인문학연구』 3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57-27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00) 조선말 띄어쓰기규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03) 띄어쓰기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 조 채수 편(2000, 2008) 남북한말 비교사전, 한겨레출판 (3만 단어)
- 차 재은(2002) '통일사전'의 올림말 배열 순서,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회, 261-284.
- 차 재은(2009)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의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최 유숙 외(2015) 남북 언어 통합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95-426.
- 최 용기(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199-228.
- 최 호철(1999)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어 정책 부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35-85.
- 최 호철(2001)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61-72.
- 최 호철(2002) 남북한 통일 표준 발음법 시안, 김민수(편),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101-118, 서울: 국학자료원.
- 최 호철(2012)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51-286.
- 하 치근(1996)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하 치근(2002) 남북맞춤법의 통일화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한 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301-322.
- 홍 윤표(1999) 남북한 국어정보화 실현방법의 통합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09-140.
- 홍 종선(1999) 남·북한 국어 문법의 통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3-33.
- 홍 종선(2009) 남과 북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홍 종선(2012) 『겨레말 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 295, 한글학회, 135-161.
- 홍 종선(2013) 민족어의 통합 통일과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1-313.
- 홍 종선·최 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1부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관련 사업의 현황과 전망

이 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anne97@korea.kr

1. 서론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담당자가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오늘 의 발표는 그 연장선이 될 수 있으나, 그때와는 달라진 점이 있다. 물리적으로 4년 이 지났으므로 추가 현황을 덧붙일 수 있겠고, 더 중요하게는 남북 관계가 당시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 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통일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 닌 일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이 해 온 남북 언어 관련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라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지금까지 ‘남북 언어’라는 주제로 진행해 온 여 러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연구소 시절인 1989년부터 남북 언어와 관련한 연 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에 ‘남북 언어통

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서 통일 전 단계에서 추진할 사업을 단계별, 분야별로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추진한 사업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을 근간으로 바뀐 정세에 맞게 보완할 점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바라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4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앞으로 나아갈 바를 간략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관련 사업 현황

국립국어원이 그간 추진해 온 남북 언어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 언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과 북이 함께 진행한 사업이 있고, 북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남측이 단독으로 연구, 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 있다. 그동안의 정책 환경에서 전자는 남북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거의 유일하다. 반면 후자는 1989년 이후로 꽤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는 다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정책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와, 언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조사한 것으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이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러한 분류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 대비 통합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 사항을 살펴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통일 시기에 남과 북의 국민이 혼란 없이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집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는 전자를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어 현실에 대한 조사는 후자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와 언어 현실에 대한 연구 및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1. 남북 공동 추진 사업

남북 공동 추진 사업은 실제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가 유일하다. 그러나 남과 북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 동포까지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차 학술회의는 1996년에 중국 장춘에서 열렸다. 남측의 국립국어연구원(국립국어원 전신)과 북측의 국어사정위원회, 중국 조선어사정위원회가 주최하였고, 한글 자모순과 띄어쓰기 등 규범과 관련한 여러 주제로 16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후 2007년 제7차 회의까지 남과 북이 모두 참여하여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 고유어와 방언, 우리말 발전에 대한 전망 등을 주제로 학술 발표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다. 제2차 학술회의부터 북측에서는 사회과학연구원, 남측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주체가 되어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측이 불참함에 따라 남측 단독, 또는 국외 우리말 연구 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북측이 불참하면서 ‘남북 언어’에서 ‘한민족 언어’로 범위는 다소 확대된 측면도 있다. 2010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고, 2014년에는 ‘남북·조선족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면서 오히려 지평을 넓혀 갔다. 그 사이 2011년에는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라는 주제로, 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을 한 베트남, 중국, 마카오, 타이완 등의 전문가 발표를 통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최근의 학술회의는 2018년에 열린 제15차 회의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2015년 이후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의 연장선에서 행정, 경제, 법률, 의학 등의 전문 분야의 용어 통일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표 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목록

순번	일시	장소	주제
1차	1996. 8. 5.~7.	창춘	남북 언어에 관한 발표 16건
2차	2001. 12. 14.~16.	베이징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
3차	2003. 11. 5.~10.	베이징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4차	2004. 6. 22.~25.	베이징	민족어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체계의 발전
5차	2004. 12. 22.~25.	선양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
6차	2005. 12. 13.~15.	선양	민족어 어휘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7차	2007. 11. 17.~18.	옌지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8차	2009. 10. 20.~21.	타슈켄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과 한국학
9차	2010. 12. 28.~30.	오사카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10차	2011. 11. 23.	서울	체제통합과 언어문제
11차	2013. 11. 20.~22.	옌지	언어접촉과 언어변이
12차	2014. 9. 17.~20.	옌지	남북·조선족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
13차	2015. 8. 14.	서울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
14차	2017. 10. 26.	옌지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15차	2018. 10. 26.	서울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2. 남북 언어 관련 연구, 조사 사업

2.2.1. 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로는 규범과 관련한 것, 규범의 연장으로 사전과 관련한 것, 전문용어(학술용어)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말다듬기 관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은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사전은 이보다는 규범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므로 여기서 다루려고 한다. 전문용어 관련 연구 역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주로 교과서 용어를 중심으로 ‘규범’ 내지 ‘전문용어 표준화’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정책 관련으로 분류하였다.

(1) 어문 규범 관련

남북 어문 규범과 관련한 첫 연구로는 1990년 국어연구소에서 펴낸 『남북한 어문 규범』이 있고,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를 다시 펴냈다.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에서는 어문 규범을 크게 분단 전과 분단 후로 나누는 후, 분단 후 남과 북의 주요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어문 규범은 다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발음법’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남북이 차이가 있는 항목을 비교하고 있다. 분단 전 연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기본으로 이후 나온 개정판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단 이후 남측의 주요 연구 대상 자료는 1988년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부 <표준 발음법>이고, 북측의 연구 대상 자료는 1966년과 1987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모 순서와 이름, 사잇소리, 두음법칙 등 남북이 차이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보여 주고, 이 차이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남북의 어문 규범을 직접 비교한 연구를 다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남측의 맞춤법은 그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북측도 주요 내용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학계에서 남북 어문 규범을 비교 연구한 사례가 많아서 국어원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에 발간된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제목 그대로 2005년까지 남북 어문 규범을 언급한 논문들을 모아 그 주장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당시까지의 어문 규범 연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후 14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문 규범과 관련한 논의를 모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 사전

남과 북의 사전 비교 연구는 1989년~1990년 2년에 걸쳐 3권으로 발간한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남측의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이 희승 편, 1982)과 북측의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정순기 외, 1981)의 표제어를 발음, 맞춤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1989)은 두 사전에서 표기와 의미는 같으나 발음 정보가 다른 표제어 부류(가공적[남-가공적/북-가공적]), 두 사전에서 발음 정보와 의미는 같으나 표기가 다른 표제어 부류(남-가래질꾼/북-가래질군), 두 사전에서 의미는 같으나 발음 정보와 표기가 다른 표제어 부류(남-낙관적[낙관적]/북-락관적[락관적]) 등으로 나누어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1989)는 남한 사전에는 없고 북한 사전에는 있는 고유어(가담가담)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I』(1990)은 북한 사전에만 있는 한자어(문단주의)와 외래어(뜨락또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북한 국어사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국립국어원이 생기고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편찬하면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종합국어대사전』(가칭)으로 시작한 이 사전에는 처음부터 북한어를 수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북한 사전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당시 대상으로 삼은 북한 사전은 『조선말사전』(1962)과 『조선말대사전』(1992)이다. 이 작업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총 5권의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이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1992)에서는 규범의 차이로 인해 달라진 어휘를 다루었고,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I』(1993)에서는 발음 표시의 장단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II』(1994)에서는 다듬은 말,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IV』(1995)에서는 속담과 성구를 살펴서 그 실태를 수록하였다. 끝으로 발간된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V』(1996)는 앞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북의 사전을 바라보았다. 북에서는 생활 속에 뿌리 내린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듬은 말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이중 체계 어휘’라고 한다.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 V』에서는 이러한 이중 체계 어휘를 조사하여 수록함으로써 다듬은 말과 관련한 북한 국어 정책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북한 사전을 분석한 보고서로는 『북한의 “조선말 사전(학생용)” 분석』(2002)과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2003)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북한의 “조선말 사전(학생용)” 분석』은 『조선말사전(학생용)』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조하여 남북 언어 차이의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로 통계를 내어 남북 언어 차이의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는 당시 북한에서 발행된 신문, 방송, 문학 작품 등에서 『조선말대사전』(1992)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실려 있지 않는 어휘를 670개 정도 모아 풀이한 보고서이다. 2000년대 초반의 북한 신어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사전과 관련한 연구로는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2003)도 있다. 여기서는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어,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남한어를 제시하기 위한 북남 대역사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역사전 편찬 지침, 시험 집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2006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북남 대역사전이 편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전문용어

남북한의 전문용어를 비교·연구한 작업은 남북 사전 연구에 이어서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주요한 남북 언어 관련 연구이다. 이전까지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실제 자료에서 어휘를 추출하여 비교·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현실 언어를 반영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사업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연구는 2007년~2008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연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두 차례 연구 모두 남북 교과서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라 할 수 있고 일상어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남북 통일 시기에 우선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과서일 것이라는 것도 연구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2007)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학, 체육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술 용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용어를 추출한 후 공통 용어와 다른 용어를 목록화하고, 다른 이유를 규범의 차이와 쉬운말화 등으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항목에 따른 차이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구분(%)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평균
두음법칙	10.0	1.7	1.7	5.4	8.4	2.2	9.1	2.8	5.2
외래어표기	11.0	84.6	6.8	33.9	26.9	10.0	12.7	10.3	24.5
소계	21.0	86.3	8.5	39.3	35.3	12.2	21.8	13.1	29.7
쉬운 말화	27.5	11.1	77.4	33.0	37.0	59.5	60.0	79.4	48.1
총계	48.5	97.4	85.9	72.3	72.3	71.7	81.8	92.5	77.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2008)에서는 국어 문법, 문학, 한문, 음악, 미술, 지리, 기술,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학술 용어를 비교하였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항목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 교과서 학술 용어의 항목별 차이 비율: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구분(%)	국어문법	문학	한문	음악	미술	지리	세계지리	지구과학	기술	평균
표기법	0	20	0	27.9	21	14.2	82.9	7.8	44.1	23.8
어형	0	0	0	2.9	0	0	0	3.9	0	0.8
외래어 수입원	0	0	0	0	0	0	1.3	0	0	0.3
어휘의 정체성	77.9	30	30.7	29.4	31.5	38	6.5	60.7	23.5	36.6
기타	22.1	50	69.3	39.8	47.5	47.8	9.2	27.4	32.3	38.5

이후 2014년에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연구가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면, 2015년 이후에는 동일 대상에 대한 용어 전체를 목록화하고 이 중에서 형태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나누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질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통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년 첫 해에는 이전의 연구와 논의를 기반으로 투명성, 경제성, 고유성, 일의성, 일관성, 국제성, 문법성, 친숙성, 윤리·미학성의 9가지 통합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용어에 대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수학과 과학 기초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모두 1,487개의 용어를 분석하고 남북 표기법 차이가 있는 것(179개)을 제외하고 형태가 다른 것 395개에 대해 9가지 기준에 따라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표 4〉 수학 및 과학 기초 전문용어 유형별 분류

분 야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수 학	352	163	43	146
물 리	428	286	72	70
생 물	409	251	37	121
화 학	241	176	24	41
지구과학	57	37	3	17
합 계	1,487	913	179	395

AA형은 형태가 동일한 것, Aa형은 규범의 차이로 표기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 AB형은 완전히 형태가 다른 것이다. 결국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AB형인데 전체의 26.6%에 이른다.

동일한 방식으로 2016년에는 체육 전문용어와, 수학과 과학 심화 전문용어에 대해 남북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체육은 남북 용어 차이가 가장 극심한 분야로 전체 1,173개 용어 중 935개가 형태가 달랐다.

〈표 5〉 체육 전문용어 유형별 분류

분야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체육	1,173	209	29	935

전체 전문용어 중 79.7%가 다른 것인데, 이는 남측의 용어가 대부분 외래어인 것에 비해서 북측은 외래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단일 팀을 구성하여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육 용어의 통일은 현재 시점에서 시급한 사안 중 하나이다.

수학은 484개 중 형태가 다른 것 265개에 대해 통합안을 제시하였고, 물리는 324개 중 138개, 생물은 224개 중 77개에 대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표 6〉 수학 및 과학 심화 전문용어 유형별 분류

분야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수학	484	135	84	265
물리	324	136	50	138
생물	224	126	21	77
합계	1,032	397	155	480

2017년에는 국어 분야를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문법, 문학, 기능교육으로 세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2,200개 중 801개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중에서 문법 전문용어는 1,162개 중 절반이 넘는 601개가 달라서 다른 분야에 비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어서 726개 중 165개가 형태가 달랐다. 기능교육은 312개 중 35개만 달라서 국어 분야 중 차이가 가장 적었다.

〈표 7〉 국어 전문용어 유형별 분류

분야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문법	1,162	530	31	601
문학	726	496	65	165
기능교육	312	253	24	35
합계	2,200	1,279	120	801

2018년에는 역사 분야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모두 2,049개 중 형태가 다른 것은 363개로 나타났다. 연구 전에는 체제의 차이 등으로 역사 분야 용어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많은 부분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고 18%만 달라서 생각보다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2019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술 분야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 8〉 역사 전문용어 유형별 분류

분야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역사	2,049	1,502	184	363

(4) 말다듬기

2001년 중국에서 열린 남북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모두 참여하면서 이후 남북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말다듬기(순화)’가 좋은 의제로 떠올랐다. 2002년에 발간된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남에서 1992년~2001년에 발간한 『국어 순화 자료집』과, 북에서 1986년에 발간한 『다듬은 말』, 1992년에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다듬은 말을 비교한 것으로, 총 1,482건을 비교했고 이 중 705 항목은 다듬은 말이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2002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남북 공동 순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과 북의 그동안의 순화 정책에 대해 분석한 후 순화 대상어 선정 방식과 순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 순화 원칙은 ‘1. 인지도 우선의 원칙, 2. 용이성과 간편성, 3. 개념의 동일성과 가치의 동질성, 4. 개념의 차별성과 예견성, 5. 조어 방식의 적절성, 6. 통사 기능의 동질성, 7. 단어족의 호응성, 8. 발화의 경제성’이다. 또한 실제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 남북 협의회 및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후 공동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말다듬기’가 현재 시

점에서도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2.2. 언어 현실 연구 및 조사

남과 북의 언어 현실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한 것은 다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남북이 서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 각각의 언어 현실을 조사한 자료가 있고, 남과 북의 차이를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 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통일 시기에 남북 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할 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밖에 언어 사용과 의식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정보화 관련 연구와 자료 구축도 진행하였다.

(1) 어휘 조사

어휘 조사는 크게 북한의 영화나 신문, 방송 등에 나타난 어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과, 거꾸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주민이 잘 모르는 남한의 어휘를 조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어휘 실태를 연구한 결과물은 1992년에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 1종과 잡지 4종의 한달치 분량을 대상으로 한자어와 외래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3)가 처음이다. 이후에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나 표현을 분야별로 정리한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1998),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2001),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2002),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2002) 등이 연이어 발간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북한 사전만을 분석하던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제 언어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북한어의 실상을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남한 어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는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2000) 등이 있다.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1999)는 제목과 달리 북한 주민에게 생소한 남한 신문에 나타난 한자어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북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한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통일 시기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와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남과 북의 사전을 기본으로 목록을 만든 후 실제 북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 자료들은 통일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언어생활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 유사한 연구를 하여 이러한 대조집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2) 남북 언어 차이

남북의 언어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2013)가 있다.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는 ‘외래어’를 주제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 대상은 남북의 사전과 교과서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I』(1990)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국어대사전』(1992, 금성출판사)과 『조선말대사전』(1992)이고, 교과서는 남에서 1990년~1993년에 발간된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북에서 1982년~1991년에 발간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과서이다. 여기에 나타난 외래어를 어형, 의미, 뜻풀이 방법, 사용 실태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목록을 제시하였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는 이전의 연구가 어휘 단위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어 태도’의 문제를 비교하여 다루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언어예절’ 문제를 호칭·지칭어, 높임법, 인사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측 자료로는 『표준언어예절』(2011)을, 북측 자료로는 『우리말례절법』, 『조선말례절법』, 『언어생활론』, 『우리 생활과 언어』 등을 참고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문화적 차이가 고착화하면서 언어예절과 화법에서도 남북 간에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어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남북 언어 차이를 쉽게 설명한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2018)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3) 언어 실태 및 의식 조사

남북 언어와 관련한 실태 조사는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 연구』(2001),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2005)와 『새터민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2006)가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이다.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 연구』는 이러한 조사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것이다. 실제 북한 출신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도, 언어적응도, 어휘적응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언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와 『새터민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국어원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원에서는 북한 출신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실용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어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언어의식에 대한 조사는 『남북 언어의식 조사』(2016)가 유일하다. 남한 주민과 북한 출신 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의식을 실제 대면 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이다. 남한 주민 2,000여 명과 북한 출신 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 통계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조사 내용은 남북 언어에 대한 태도, 남북한 소통 문제, 통일 대비 언어 정책 등에 대한 것으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남북 언어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

- 남한 주민들은 북한말에 대해서 ‘직설적이다,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이다’ 등의 인상을 주로 가지고 있으며, 북한 출신 주민들은 남한말에 대해서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등의 인상을 주로 가지고 있음.
- 남한 주민의 62%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하고 낯설다’고 느끼고 14%만이 ‘편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는데, 북한 출신 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38%가 ‘불편하고 낯설다’, 45%는 ‘편하고 친근하다’라고 응답함.
- 북한 출신 주민 10명 중 8명은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데 4년~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0%였으며, 6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50%가 넘음.
- 북한 출신 주민은 존댓말이나 호칭, 지칭 등의 표현상 차이(42%)나 사과, 칭찬, 거절, 요청 등의 표현상 차이(39%)를 남한 주민(각각 21%, 18%)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주민의 78%, 북한 출신 주민의 66%는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 출신 주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50%는 남한말을 기준으로, 46%는 새로운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함.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먼저 남북 주민이 상대의

언어에 대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북한 출신 주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남한 주민은 북한어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접촉과 소통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북한 출신 주민의 경우 어휘의 차이보다는 표현상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있어서, 통일 시기의 언어 문제는 언어문화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정보화 및 자료 구축

정보화 및 자료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1998, 1999),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2007), 『80-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2008) 등이 이루어졌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사업은 21세기 세종계획의 연구 성과물로서, 고빈도 어휘 5,000단어를 기준으로 남북 비교 사전을 만든 것이다.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한 공청회 발표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조사 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북한 언어 현실을 반영한 자료 구축은 2015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남한에서도 국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먼저 말뭉치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살아 있는 북한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북한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어원에서는 2015년부터 북한의 문학 작품, 잡지, 신문,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문어 말뭉치 498만 어절(원시 331만, 분석 167만)을 구축하고, 또한 북한 뉴스, 영화 등을 대상으로 구어 말뭉치 111만 어절(원시 80만, 분석 31만)을 구축하였다.

3.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개요 및 전망

국립국어원은 2014년에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남북 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이후 ‘종합계획’)이라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 목록들을 제시하고 전문가 60명에게 각 정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1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통합 연구-통합 교육-실태 조사’를 3대 축으로 하고 ‘제도 정비’와 ‘교류 활성화’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언어 문제로 인한 사회 문화적 갈등 해소를 통해 ‘진짜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통합, 남북 언어정보 시스템 구축, 북한어 및 북한어교육 전문가 양성,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 남북 언어통합위원회(가칭) 설립, 남북 공동학술회의 정례화 등의 사업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0〉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개요

문제점	- 통일 후 남북의 언어 문제로 인해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사회문화적 갈등 상황은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
↓	
개 선 방 안	- 분단 이후 남북의 사회 체제 차이로 인한 언어적 이질감에 대해 상호 이해에 이르도록 유도 -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의 언어적 공동 기반에 대한 인식 공유의 토대 구축
↓	
추 진 계 획	- 남북 언어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언어 자료 구축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차원의 남북한 일반어와 전문어 조사, 대조, 분석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남북 언어 통합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인력 양성 - 실태 조사, 통합 연구, 통합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국어원에서 앞으로 진행할 남북 언어 관련 사업도 이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남측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와 실태 조사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1〉 남북 언어 실태 조사 및 언어 통합 기반 구축 주요 사업

• 남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발음, 어휘, 문장, 언어문화) • 남북한 언어 자료 말뭉치 구축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용 사전 편찬

- 남북한 생활용어집 발간
- 신어 자료집 발간
- 외래어 자료집 발간
- 과목별 교과서 용어 통합 방안 연구
- 분야별 학술 용어 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행정 용어 통합 방안 연구
- 남북 언어 통합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2015년 이후에 수행한 북한어 말뭉치 구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은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수행한 것이다. 연구나 실태 조사와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및 조사와 함께 남북 교류 활성화가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한다. 요컨대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와 관련한 이후 사업 방향은 연구, 조사와 함께 남북 직접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이미 앞서 2장에서 그간의 현황을 2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과 맥을 같이한다.

먼저 남북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태 조사 및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말뭉치 구축이나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 외에 발음, 어휘, 언어문화 등 실제 남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조집, 자료집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과의 직접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정세가 급변하였고, 따라서 남북 직접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이후 북이 불참하고 있는, 남북 언어 통합 국제학술회의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진행하는 노력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더 이상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한층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어원이 이러한 두 방향으로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참고] 남북 언어 관련 사업 결과 보고서 목록

	연도	사업/결과물 이름	추진 주체
1	1989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Ⅰ(발음, 맞춤법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2	1989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Ⅱ(고유어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3	1990	남북한 언어차이 조사Ⅲ(한자어, 외래어 차이 조사)	국어연구소
4	1990	남북한 어문규범	국어연구소

5	199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Ⅰ	국립국어연구원
6	1992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7	1993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Ⅱ	국립국어연구원
8	1993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9	1994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Ⅲ	국립국어연구원
10	1995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1	1995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Ⅳ	국립국어연구원
12	1995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13	1996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Ⅴ	국립국어연구원
14	1998	북한 문학작품의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5	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16	1999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17	1999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문화관광부
18	20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19	2001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0	200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1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22	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23	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4	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5	2002	북한 방송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6	2002	북한 신문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27	2002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8	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9	2003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0	2003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1	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2	2004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3	2005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연구원
34	2005	북한 국어연구 논저 목록(1946~2004)	국립국어연구원
35	2005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6	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7	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8	2007	남북 고문헌 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39	2007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40	2008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연구원

41	2008	80-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	국립국어원
42	2011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국립국어원
43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국립국어원
44	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4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원
46	2015	북한어 균형말뭉치 설계, 구축	국립국어원
47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체육, 수학, 물리, 생물 분야-	국립국어원
48	2016	2016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49	2016	남북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50	2017	남북 전문용어 구축-국어 분야-	국립국어원
51	2017	2017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52	2018	남북 전문용어 구축-역사 분야-	국립국어원
53	2018	2018년 북한어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제2부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비교 / 전 정미

북한의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 양 수경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2부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비교*

전 정미

상명대학교 교수
meejeon@smu.ac.kr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예의이며, 기술에 해당하는 사과 화행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음이나 어휘, 문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화행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화행 사용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 이 연구는 2016년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한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극복 방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사과, 거절 화행에 관해 진행한 연구 결과의 일부분이다.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과 화행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상대방에게 준 영향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해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전 정미, 2006: 168). 따라서 맥락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과는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부적절한 대응이나 형식적 사과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사과 화행은 의사소통 참여자 사이의 체면(face)¹⁾과 관련된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화행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며, 의사소통 능력²⁾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한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사과 화행의 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가 947명에 불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고정적인 화행 사용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서 화행 사용의 오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는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남북한의 어휘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류보다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화행의 오류는 사회생활의 미숙함으로 비취지게 되고,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진행하여 사과 화행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정도, 표현 방식에 관하여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 절차

설문조사에 필요한 문항을 설계하기 위해 남북한 언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

-
- 1) 고프만(Goffman, 1967: 7)에서는 체면(face)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
 - 2) 하임즈(Hymes, 1966)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공동체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서로 의미를 협상하게 하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이다(Canale & Swain, 1980: 16 참조).
 - 3)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매년 천여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3월 16일 갱신 자료에 의하면 입국자 수는 3만 명 정도가 된다.

고, 방송 자료를 통해 남북한 화행의 비교 척도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1차로 총 1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은 상황과 장면, 빈도와 표현 형태뿐 아니라 사과 화행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차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하나원)의 교사에게 상황의 적절성, 문항의 이해도, 문항의 타당성, 문항 수의 적절성, 방언적 차이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사과 화행으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 사례에 대한 직접 사례와 간접 사례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설문 형식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과 화행에 관한 17개(객관식 12개, 주관식 5개)의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확보하고, 같은 수의 남한 설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한 설문 대상자는 남한 74명, 북한이탈주민 73명의 총 147명이다. 설문은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사과’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4-5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였고, 특정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빈도에 대해 측정하는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낮음, 5=높음)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외에 자주 쓰는 표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응답의 순서를 정하게 하거나 주관식 설문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표현 양상을 측정하였다. 회수된 총 147개(남한 74명, 북한 73명)의 유효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한 빈도분석과 χ^2 검증을 이용한 교차분석, 다중응답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⁴⁾.

2. 선행 연구

사과 화행에 관한 선행 연구는 남한의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와 북한의 사과 화행에 관한 문헌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의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는 크게 사과 화행의 사회적 의미와 양상에 관한 연구,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화행 사용 양상의 특징을 설명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⁵⁾. 사과 화행의 의미와 양상에 관한 연구로는 김 하수(1991), 전 정미(2006) 등이 있다. 김 하수(1991)에서는 사과하기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일정한 가치 규범의 표현이며 적극적인 담화 전략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등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간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사회적 행위로 보았다. 전 정미(2006)에서도 사과 행위에 대해

4) 설문 문항 개발 절차 및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 현정(2016: 28-38) 참조.

5) 남한의 사과 화행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 정미(2017)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지켜지는 규범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사과 행위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표현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화자의 자기 비난에 대하여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 인정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공손을 실현하는 책략으로 설명하였다.

사과 화행을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김 경석(1996, 1999), 김 혜련(1997), 임 영철·김 순미(1997), 권 영환(2000), 서 경희(2000), 김 남국(2008), 김 진무(2011), 손 세모들(2012), 정 현숙(2016) 등이 있다. 이 연구의 공통점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규범에 맞는 사과 화행의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과하는 행위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고, 사회관계나 가치관 등이 반영되며 관습화된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과 방식의 차이는 대상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의 언어 인식과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토대로 그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 및 언어 적응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 금현(2006, 2007)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사과 행위’에 대한 인식과 빈도, 표현 방법 등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언어 적응 방법으로 ‘외래어 교육, 한자어 교육, 담화 교육’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담화 교육의 내용으로 인사 예절 및 관용적 표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주제 장면을 설정하여 관련된 표현을 함께 익히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 현정(2008)과 권 순희 외(2013)에서는 화행 교육과 구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행 교육 교재의 한 부분으로 사과 화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전 정미(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사과 화행에 대한 인식과 상황, 표현 방식, 전략 등을 조사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사과에 대한 인식은 유사했지만 표현하는 상황이나 빈도, 전략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 수 연(2012)에서도 면담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와는 달리 예의상 사과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 윤석·김 영주(2013)에서는 사과 화행의 전략별 수용성을 조사하였는데, 탈북 청소년들은 간접적인 책임 약화, 당혹감 표현, 책임 인정 전략보다 직접적 사과 전략으로 구성된 대화문의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북한 사회의 사과에 대한 인식, 빈도, 표현 방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의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살펴본 문헌은 언어 예절을 다루는 ‘언어생활론(2005)’, ‘우리 생활과 언어(2010)’, ‘우리말 레절법(2011)’과 ‘문화어학습(2006년~2016년)’의 사과에 관련 부분이다.

언어생활론(2005: 225-226)에서는 어떤 실례로 되는 일이 있었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레의를 나타내는 인사말을 ‘량해인사말’로 정의하고 “부닥치는 정황에 따라 그에 맞게 하여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가지고 언어례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집단생활의 도덕을 지키는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 레절법(2011: 160-164)에서는 ‘실수하였을 때의 인사말’과 ‘남에게 부탁할 때의 인사말’, ‘남에게 양보나 허락을 바랄 때의 인사말’을 묶어서 ‘량해를 구할 때의 언어례절’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실수하였을 때의 인사말에서 “생활에서 실수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작게는 사람을 잘못 보고 찾거나 말이나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크게는 부주의로 남의 발등을 밟거나 부딪쳐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실수의 상황을 나열하고, “문제는 이런 때 사과와 인사말을 바로하고 레절있게 처신할 줄 아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수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시비를 따지려 든다면 불피코 언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제때에 사과를 하고 레의를 차리게 되면 상대방도 아량있게 이해를 하게 되고, 순간의 불쾌감도 얼음 녹듯이 풀리게 된다.”고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과의 인식에 있어서는 남북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사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언어생활론(2005: 225)에서는 ‘덤벼치다니 실수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규율과 질서를 어기었을 때는 ‘용서하십시오. 내 다시야 그러겠습니까? 꼭 고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사를 함께 담아 표현해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생활과 언어(2010: 196)에서는 ‘미안합니다’와 함께 ‘실례했습니다’ 등으로 미안한 인사를 해야 하며,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는 ‘몸가짐’도 취해야 한다고 하여,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말 레절법(2011: 161)에서는 ‘미안합니다’와 함께 ‘안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어학습(2006년~2016년)에서는 ‘죄송합니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미안합니다, 안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등이 나타났다. 또한 사과를 받는 말로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등이 나타났다.

우리말 레절법(2011: 160-164)에서는 구체적인 사과 상황에 따른 표현 방식을 세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잘못 보고 찾았거나 잘못 행동한 경우,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해를 부탁하는 사과의 말을 해야 한다. 사과를 받은 사람은 그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표시하는 것이 예의이다.

둘째,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남의 발등을 밟거나 남의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등 부주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큰 실수를 하고도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때우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구실을 구구하게 설명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가벼운 충고로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규율과 질서를 어기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추궁과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자기 반성의 뜻을 담아서 깎듯이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

넷째, 약속을 어기었거나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성실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화어 학습(2006년~2016년)의 사과 관련 글의 예문에서도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사과 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고치겠어요, 안됐습니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모두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며, 여기에는 사회관계나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북한에서의 사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칙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항에 대한 남한 응답자의 인식이나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과 화행에 대한 동일한 문항에 대한 남북한 응답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막연하게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설문 조사 결과

이 장에서는 사과 화행에 관한 객관식 설문 문항 12개에 대한 남북한 응답자의 답변을 확인하고자 한다⁶⁾. 문항은 크게 사과 행위 자체에 관한 인식, 사과하는 대

6) 구 현정(2016)에서 개발한 사과 화행에 관한 설문 문항은 주관식 문항 5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인데, 여기에서는 객관식 문항에 관한 것만 살펴보기로 한다.

상, 특정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빈도, 사과 화행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1. 사과 행위에 대한 인식

사과 행위 자체에 대하여 남북한 응답자들의 본질적인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네 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문항 1]은 일반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문항 2]에서는 자신에게 사과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문항 1]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①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부주의한 사람
- ②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예절 바른 사람
- ③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
- ④ 실수를 말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사람

응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남한 응답자는 4.1%, 북한 응답자는 11.1%로 나타났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예절 바른 사람’이라는 응답이 남한 응답자는 95.9%로 나타났고, 북한 응답자도 77.8%의 최빈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응답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9.7%), ‘실수를 말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사람’(1.4%)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22.2% 정도 되어 사과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남한 응답자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내용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2.019$, $p<.05$).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사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부주의한 사람	3	4.1	8	11.1
예절 바른 사람	71	95.9	56	77.8
아첨하는 사람	0	0	7	9.7
무책임한 사람	0	0	1	1.4
합 계	74	100	72 ⁷⁾	100

다음은 자신에게 사과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항 2]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① 상대방에게 언짢았던 마음이 풀린다.
- ②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언짢다.
- ③ 실수나 잘못을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는 것 같아 불쾌하다.
- ④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 같다.

[문항 2]에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나에게 사과를 하면 ‘언짢았던 마음이 풀린다’는 응답이 남북한 모두 최빈치(남한 95.9%, 북한 87.5%)로 나타나 사과를 받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언짢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5.5%가 응답하였고⁸⁾, ‘실수나 잘못을 말로 때우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2.7%, 북한에서는 2.8%로 나타났다. 또한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남한 응답자에게서는 1.4%, 북한 응답자에게서는 4.2%로 나타나, 북한에서는 사과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에 대한 남북한 응답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나에게 사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언짢은 마음이 풀린다	71	95.9	63	87.5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0	0	4	5.5
말로 때우는 것 같다	2	2.7	2	2.8
아첨하는 것 같다	1	1.4	3	4.2
합 계	74	100	72	100

7) 최종적으로 응답한 설문 대상자는 남한 74명, 북한이탈주민 73명의 총 147명인데, 북한이탈주민 1명의 설문 결과는 부분적인 오류로 인하여 통계 결과에서는 72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8) 문 금현(2006: 135)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9) 문 금현(2007: 147)에서는 미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뜻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면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사과를 하는 것을 자신의 체면이 상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두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어느 정도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문항 3]에서는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문항 4]에서는 규칙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항 3]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①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
- ②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 말로 하지는 않는다.
- ③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 ④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 잡는다.
- ⑤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남한 응답자는 67.6%, 북한 응답자는 52.8%가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고 하였으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서 말로 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6.8%, 북한은 15.3%로 나타났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응답은 남한은 0%, 북한은 11.1%로 나타났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 잡는다’는 응답은 남한은 5.4%, 북한은 12.5%로 나타났으며,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는 응답은 남한 20.3%, 북한 8.3%로 나타났다.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지 남북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7.642$, $p<.05$).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	50	67.6	38	52.8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 말로 하지는 않는다.	5	6.8	11	15.3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0	0	8	11.1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 잡는다.	4	5.4	9	12.5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	15	20.3	6	8.3
합 계	74	100	72	100

남북한 응답자 모두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는 응답

이 최빈치로 나타났지만, 북한 응답자는 말로 사과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쑥스럽다고 느끼고, 말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빈도가 더 높았다. 특히 가벼운 잘못이라도 남한 응답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 응답자의 10% 이상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한 응답자는 잘못을 하게 된 이유와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잘못을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하거나 반성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문항 4] 규칙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①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
- ②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 말로 하지는 않는다.
- ③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 ④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 잡는다.
- ⑤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

규칙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는 응답이 남한 응답자는 63.5%, 북한 응답자는 54.2%로 나타났으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서 말로 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0%, 북한은 6.9%로 나타났다. 또한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응답은 남한은 0%, 북한은 8.3%로 나타났으며,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 잡는다’는 응답은 남한은 4.1%, 북한은 1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는 응답은 남한 32.4%, 북한 19.4%로 나타났다. 규칙이나 약속과 같은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남북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16.624$, $p<.05$).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규칙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	47	63.5	39	54.2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쑥스러워 말로 하지는 않는다.	0	0	5	6.9

10) 전 정미(2010: 249)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미안하다는 언어적 표현보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0	0	6	8.3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는 것보 다는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 로 잡는다.	3	4.1	8	11.1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 고 자기반성의 말을 한다.	24	32.4	14	19.4
합 계	74	100	72	100

남북한 응답자 모두 규칙이나 약속을 어기는 등의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뜻의 말을 한다’는 응답이 최빈치로 나타났다. 그런데 큰 잘못을 한 경우, 남한 응답자 중에는 사과의 말없이 그냥 넘긴다는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한 응답자는 15.2%가 언어적인 표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는 북한 사람들이 예의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른다는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잘못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잘못이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북한 응답자의 반응은 남북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북한 응답자 모두 사과가 인간관계의 예절과 관련 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과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 응답자가 남한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교차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응답자가 남한 응답자보다 사과 화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과 행위가 화자의 적극적인 체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사과 화행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소극적인 체면을 세워줄 수 있지만, 유대관계의 측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일을 저지른 결과이기 때문에 화자 자신의 적극적 체면은 손상이 될 수 있다¹¹⁾.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체면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북한 응답자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과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사과의 대상

어떤 사람을 사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1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응답은 자신이 잘못된 상대방으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함께 묶어서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하게 하였다.

11)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 62)에서는 체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받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과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로 결속되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으로 나누었다.

[문항 5]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③ 직장동료 ④ 직장상사 ⑤ 이웃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사과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응답이 남한 44.6%, 북한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라는 응답은 남한 12.2%, 북한 16.7%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는 남한 13.5%, 북한 4.2%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상사’에게는 남한 24.3%, 북한 34.7%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웃’은 남한 5.4%, 북한 5.6%로 나타났다.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사과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남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사과의 우선순위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가족	33	44.6	28	38.9
친구	9	12.2	12	16.7
직장동료	10	13.5	3	4.2
직장상사	18	24.3	25	34.7
이웃	4	5.4	4	5.6
합 계	74	100	72	100

남북한 모두 ‘가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인 관계에서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직장상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친구와 직장동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북한에서는 직장동료보다는 친구에게 사과를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친밀한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에게는 사과의 말을 하지만 공적인 관계의 동료에게는 사과를 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응답자는 모든 관계 중에서도 ‘직장동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북한 제도에서 동료의 역할이 경쟁과 고발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밀함의 정도에서 거리가 있는 ‘이웃’에게는 남북한 모두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은 낮았다.

3.3. 상황에 따른 사과 화행의 사용 빈도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빈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개의 세부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잘 모르는 사람과 마찰이 일어난 경우,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3.3.1.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마찰 상황

잘 모르는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에 언어적인 사과 화행의 수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개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로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된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항 6]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을 합니까?

①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4.2%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16.6%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한다’는 응답이 남한은 4.1%였는데, 북한은 43.1%로 최빈치였다. 사과를 ‘자주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36.4%로 나타났는데, 북한에서는 15.3%로 나타났으며, ‘항상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최빈치로 56.7%가 나타났으나, 북한에서는 20.8%가 응답하였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 응답자는 자신이 사과를 ‘자주’나 ‘항상’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지만, 북한 응답자는 남한 응답자의 1/3 정도 밖에 안 되는 빈도로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응답에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52.827$, $p<.001$).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안 한다	1	1.4	3	4.2

별로 안 한다	1	1.4	12	16.6
가끔 한다	3	4.1	31	43.1
자주 한다	27	36.4	11	15.3
항상 한다	42	56.7	15	20.8
합 계	74	100	72	100

[문항 6]에 대한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M)을 측정한 결과, 남한 응답자의 평균값(M)은 4.46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응답자의 경우는 평균값(M)이 3.29로 나타나서 남한 응답자에 비해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7]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을 합니까?

①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

[문항 7]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설정하여 언어적으로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5.6%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11.1%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한다’는 응답이 남한은 2.7%였는데, 북한은 33.3%로 최빈치였다. 사과를 ‘자주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8%, 북한 23.6%로 나타났으며, ‘항상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최빈치로 81.1%가 나타났으나 북한에서는 26.4%만이 응답하였다. 남북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사과를 ‘항상 한다’는 북한 응답자는 남한 응답자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50.962$, $p<.001$).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안 한다	1	1.4	4	5.6
별로 안 한다	0	0	8	11.1
가끔 한다	2	2.7	24	33.3
자주 한다	11	14.8	17	23.6
항상 한다	60	81.1	19	26.4
합 계	74	100	72	100

이 문항의 결과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M)을 측정한 결과, 남한 응답자의 평균값(M)은 4.74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평균값(M)이 3.54로 나타나 남한 응답자에 비하여 언어적인 사과 화행의 수행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는 사람과 마찰이 생긴 상황에서, 남북한 응답자 모두 [문항 6]의 평균값(남: M=4.46/북: M=3.29)보다 [문항 7]의 평균값(남: M=4.74/북: M=3.54)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곧 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보다는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더 높은 빈도로 사과를 한다고 응답하여, 남북한 응답자 모두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언어적으로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언어적 사과 화행의 수행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두 상황에서 북한 응답자는 남한 응답자보다 낮은 빈도로 사과 화행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

다음으로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화행을 수행 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황을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항 8]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늦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을 합니까?

①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늦었을 때, 친구에게 사과를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2.8%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6.9%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한다’는 응답이 남한은 6.8%였는데, 북한은 47.2%로 최빈치였다. 사과를 ‘자주 한다’는 응답은 남한 32.4%, 북한 18.1%로 나타났으며, ‘항상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최빈치로 59.4%가 나타났으나 북한에서는 25.0%가 응답하였다. 친구와 약속에 늦었을 때 사과하는 정도의 남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41.051$, $p<.001$).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안 한다	1	1.4	2	2.8
별로 안 한다	0	0	5	6.9
가끔 한다	5	6.8	34	47.2
자주 한다	24	32.4	13	18.1
항상 한다	44	59.4	18	25.0
합 계	74	100	72	100

[문항 8]에 관한 결과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M)을 측정한 결과 남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M)이 4.49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M)이 3.56으로 나타나서 남한 응답자보다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문항 9]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교대시간에 늦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을 합니까?

①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

공적인 상황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 화행의 수행하는지 확인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사과를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1.4%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4.2%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26.4%, ‘자주 한다’는 응답은 남한 22.9%, 북한 2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항상 한다’는 응답은 남북한 모두 최빈치로 나타났는데, 남한은 72.9%인데 비해 북한은 절반 정도인 38.8%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25.842$, $p<.00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교대시간에 늦었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안 한다	1	1.4	1	1.4
별로 안 한다	1	1.4	3	4.2
가끔 한다	1	1.4	19	26.4
자주 한다	17	22.9	21	29.2
항상 한다	54	72.9	28	38.8
합 계	74	100	72	100

[문항 9]의 응답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남한 응답자의 평균값(M)은 4.65로 나타났으며, 북한 응답자의 평균값(M)은 3.97로 나타나 사과 화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남한 응답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시간 약속에 늦었을 때, [문항 8]의 사적인 관계에서 남북한 응답자가 사과 화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평균값(남: M=4.46/ 북: M=3.56)보다 [문항 9]에 해당하는 공적인 관계에서 사과 화해를 수행하는 정도(남: M=4.65/ 북: M=3.97)가 더 높게 나타나 관계에 따라 사과 화해를 수행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남북한 응답자 모두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사과 화해를 더 높은 빈도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과 화해를 수행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공적인 관계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과하는 말을 ‘항상 한다’는 응답은 북한 응답자의 경우 남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3.3. 물질적 손해를 끼친 상황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과 화해를 수행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을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 10]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을 합니까?

①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1.4%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은 남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는 5.5%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한다’는 응답은 남한 1.4%, 북한 16.4%, ‘자주 한다’는 응답은 남한 6.8%, 북한 30.1%로 나타났다.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에게 ‘항상’ 사과를 한다는 응답은 남북한 모두 최빈치로 나타났는데, 남한은 90.5%로 나타났고, 북한은 46.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서도 남한 응답자에 비해 북한 응답자는 언어적으로 사과 화해를 수행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12) 북한이탈주민들은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행동’(예. 돈 갚기)이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남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34.788$, $p<.00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안 한다	1	1.4	1	1.4
별로 안 한다	0	0	4	5.5
가끔 한다	1	1.4	12	16.4
자주 한다	5	6.8	22	30.1
항상 한다	67	90.5	34	46.6
합 계	74	100.1	73	100

이 문항에 관한 값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남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값(M)이 4.85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응답자의 평균값(M)도 4.15로 나타나서 다른 상황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항 6]~[문항 10]에서 제시한 여러 상황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과를 한다는 응답이 남북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를 가장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정도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결과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값(M)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사과 화행 수행 정도의 남북 비교

상 황	남	북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4.46	3.29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았을 때	4.74	3.54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늦었을 때	4.49	3.56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교대시간에 늦었을 때	4.65	3.97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4.85	4.15
평 균	4.64	3.70

고 인식하면서 ‘사과’가 갖는 대인관계 상의 가치에 대해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전 정미, 2010: 249). 또한 담화 완성 설문에서도 상대방에게 빌린 교재를 잃어버렸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생략하고 바로 변상해주겠다고 약속한다는 연구 결과(문 금현 2006: 135)도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문항 7]의 응답 결과에서 ‘항상’ 사과를 한다는 응답이 최빈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응답자의 수행 정도가 낮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평균값(M)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M=4.85) >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M=4.74) >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교대시간에 늦었을 때(M=4.65) > 친구와 약속에 늦었을 때(M=4.49), 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M=4.46)’의 순으로 부담의 크기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응답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M=4.15) >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교대시간에 늦었을 때(M=3.97) > 친구와 약속에 늦었을 때(M=3.56) >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M=3.54) > 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M=3.29)’로 나타나 부담의 크기나 자신이 잘못된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남한 응답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응답자의 평균값(M)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았을 때가 가장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1.2), 편차가 가장 적은 상황은 직장에 지각했을 때(0.68)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마찰 상황에서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남한 응답자에 비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¹³⁾, 사과를 잘 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사과를 한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위의 [문항 6]~[문항 10]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북한 응답자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남한 응답자보다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 또한 평균값(M)의 합을 비교해 보아도 남한 응답자의 평균값(M=4.64)은 대부분의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응답자의 평균값(M=3.70)은 낮게 나타났다.

3.4. 남북한의 사과 화해 표현 방식

사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사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3.4.1. 사과를 할 때의 표현

[문항 11] 사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을 네 가지만 골라서 자주 쓰는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13) 한 정미(2010: 13)에서는 생활총화의 영향으로 자칫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가 사상 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① 미안합니다. ② 실례했습니다. ③ 안됐습니다.
 ④ 죄송합니다. ⑤ 용서하십시오. ⑥ 잘못했습니다.
 ⑦ 조심하겠습니다. ⑧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⑨ 이걸 어찌지요?(남) / 고치겠습니다(북)¹⁴⁾

사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로 남한 응답자는 ‘미안합니다’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났는데, 북한 응답자는 42.5%의 최빈치로 나타나 가장 주된 언어적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 응답자는 ‘죄송합니다’를 주된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59.4%의 최빈치로 나타났다. 남한 응답자의 경우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소수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안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북한 응답자들은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잘못했습니다(19.2%) > 죄송합니다(12.3%)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 밖의 다른 표현들은 사용한다는 빈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안 됐습니다(9.6%)¹⁵⁾ > 고치겠습니다(5.5%) > 실례했습니다(4.1%) > 용서하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2.7%) >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1.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의 남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50.347$, $p<.00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사과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미안합니다	26	35.1	31	42.5
실례했습니다	1	1.4	3	4.1
안됐습니다	0	0	7	9.6
죄송합니다	44	59.4	9	12.3
용서하십시오	0	0	2	2.7
잘못했습니다	0	0	14	19.2
조심하겠습니다	2	2.7	2	2.7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0		1	1.4
이걸 어찌지요?(남) 고치겠습니다(북)	1	1.4	4	5.5
	74	100	73	100

14) 남한용 설문지에서는 사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의 보기로 ‘이걸 어찌지요?’를 포함시켰는데, 예 비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북한용 설문 문항에서는 ‘고치겠습니다’로 교체하였다(구현정, 2016: 28-38 참조).

15) 그러나 남한에서 [안됐습니다]는 동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의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말이라는 점에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남북한이 서로 달랐다. 남한 응답자는 ‘죄송합니다’와 ‘미안합니다’를 많이 사용하고 두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북한 응답자들은 사과 할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히 ‘죄송합니다’보다는 ‘잘못했습니다’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¹⁶⁾. 사과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북한 응답자들이 ‘잘못했습니다’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사회적 예절에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3.4.2. 사과를 받을 때의 표현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대답하는지에 관해 응답한 내용을 비교하였다¹⁸⁾.

[문항 12]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 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 ① 괜찮습니다. ② 아닙니다. ③ 일 없습니다.
④ 됐습니다. 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⑥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나는 말로 남한 응답자는 ‘괜찮습니다’를 최빈치(75.3%)로 선택하였고, 북한 응답자는 32.9%가 대답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아닙니다’는 남북한 모두 8.2%로 나타났고, ‘일 없습니다’는 남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34.2%가 상대방의 사과에 대해 받는 말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최빈치로 나타났다. ‘됐습니다’는 남한 2.7%, 북한 15.1%,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는 남한 1.4%, 북한 6.8%로 나타났다¹⁹⁾. 마지막으로 ‘별 말씀

16) 북한이탈주민의 자문에 ‘일반적으로 사과를 잘 안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죄송하다’는 말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쓸 수 없는 말이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거나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구 현정, 2016: 61-62, 참조).

17) 이러한 현상은 우리말 레절법(2011: 162)에서 “규률과 질서를 어기었거나 레절없는 행동을 하였거나 하여 추궁과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반성의 뜻을 담아서 깎듯이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용서하십시오. 꼭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등의 예시를 제시한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18) 상대방의 사과 표현에 대한 받는 말은 선호적인 범주와 비선호적인 범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기로 제시하였다.

19)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충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청자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표현된다. 그러나 북한 응답자의 답변에 이와 같은 응답이 높은 빈도로 나온 것은 학습의 결과로 보인다. 우리말 레절법(2011: 161)에서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대방도 너그러운 아량과 리해력을 가지고 대하면서 가벼운 충고로 일을 마무리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에게 받는 말로 가벼운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이 예절적인 태도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을 다하십니다’는 남한에서는 12.3%가 사과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북한에서는 2.7%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때 대답하는 말에 대해 남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50.517$, $p<.001$).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사과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지역 내용	남		북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괜찮습니다	55	75.3	24	32.9
아닙니다	6	8.2	6	8.2
일 없습니다	0	0	25	34.2
됐습니다.	2	2.8	11	15.1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1	1.4	5	6.8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9	12.3	2	2.8
합 계	73	100	73	100

이상의 [문항 11]과 [문항 12]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남한 응답자들은 사과하는 표현과 그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죄송합니다’와 ‘괜찮습니다’를 대응쌍의 관계에 있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북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미안합니다’와 ‘일 없습니다’가 대응쌍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응답자가 사과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 없습니다’는 남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일 없습니다, 됐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 남한 사람들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은 사과를 받아 주었는데도 여전히 남한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직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활용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과 화행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인데, 활용 방식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도치 않게 서로를 오해하여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관계의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언어 예절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

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한의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의 실천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최근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문 금현 외, 2006).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서 그 당시와는 다른 언어 현상들이 감지되고, 각종 보도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의 언어 사용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제3국을 체류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이지만, 통일이 되어 직접 교류를 하게 되는 북한 사람들은 문화적 수용성이 매우 낮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간 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언어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소통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 이후 언어 정책의 출발이 될 것이다²⁰⁾.

둘째, 의사소통에서 남한과 북한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화행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어휘와 문법, 발음의 차이를 확인해서 문법적 능력의 차이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맞는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갖추 수 있어야 한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화행이다. 이 연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남북한의 사회 제도와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는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활용 방법, 특히 화행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은 예비적 연구(pilot study) 결과를 토대로 설문 조사 분석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화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동질성 회복을 위한 언어 교육과 응용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화행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거기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통로가 되며,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것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 계층과 연령에 맞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통일 이전에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와 남북한 화행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북한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교육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

20) 실태 조사에는 북한의 지역별, 연령별 언어 사용 실태를 문자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문어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구어의 관점에서 발음, 어휘, 문법 등 전반적인 영역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소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인품이나 속성이 다른 것처럼 편견을 가지거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은 잘못해도 사과를 안 한다.”와 같이 단정적인 말보다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과는 다른 사회 제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과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며, 특히 직장동료나 이웃에게는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경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정적인 말은 편견을 조장할 수 있지만, 경향성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북한 화행의 경향성을 교육하는 것은 거부감 없이 남한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 과제의 결과를 비롯하여 앞으로 연구될 화행의 자료들을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발음, 억양, 말의 속도, 목소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남북한의 뜻이 다른 어휘 가운데 고빈도 항목들, 서로 다른 인사말과 표현법, 호칭어와 지칭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화행, 남북한 외래어와 통신언어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요소 등과 함께 남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할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소통 매뉴얼을 통일에 대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 연구자 교류를 통하여 언어 예절을 표준화하여서 통일 이후 언어생활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남한에서도 지역마다 호칭과 인사말, 화법이 달라서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이 두 차례에 걸쳐 화법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마도 통일 이후에는 더 큰 화법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의 언어 예절을 만들어서 통일 이후의 교육과 생활 현장에 보급할 준비가 필요하다²¹⁾. 남북한의 연구자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호칭어와 지칭어, 인사법,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예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통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통일 이전부터 시작되어 통일 이후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언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이미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된 결혼이주민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사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조화를 위해 서로 양보하거나 주고받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점에서 통

21) 임 칠성(2009: 52)에서는 호칭어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 표준 화법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합의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 이전에 협의가 가능한 언어 예절은 미리 협의하고, 남겨진 문제들은 통일 이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과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한 응답자 74명, 북한 응답자 73명을 대상으로 사과 화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는 사과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 사과 대상,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정도, 사과 화행의 주는 말과 받는 말로 사용하는 주된 표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한 응답자는 사과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차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대상과 정도를 다르게 하는 요인이며,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보다 화행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 조사 대상이 적은 것이 한계로 남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가 남북 언어 통일 방안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 경석(1996). 요청, 거부, 사과 발화 행위의 전략, 『사회언어학』 4-2, 한국사회언어학회, 143-169쪽.
- 김 경석(1999). 모국어 화자와 학습자의 발화행위 전략 비교- 요청, 거절, 사과 발화 행위를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15, 한국응용언어학회, 79-105쪽.
- 고 윤석·김 영주(2013). 북한이탈 청년의 화용능력 연구: 거절, 요청, 사과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357-384쪽.
- 구 현정(2008).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 및 교안 제작, 『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국립국어원.
- 구 현정(2016),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극복 방안』, 통일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
- 권 순희 외(2013).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권 영환(2000).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과에 대한 문화적 차이, 『영어영문학』 19,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9-224쪽.
- 김 남국(2008). 한국 대학생 영어 중간언어의 사과 화행 분석 및 적합도 평가, 『영어영문학 연구』 50-2,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45-73쪽.

- 김 진무(2011), 사과 화행의 화용론적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7, 프랑스문화예술학회, 59-94쪽.
- 김 하수(1991). 화행의 개별 언어적 현상-한국어에서의 나무라기와 사과하기, 『인문과학』 6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9-62쪽.
- 김 혜련(1997). 사회 문화적 능력과 언어전어-한국어와 영어의 사과, 『사회언어학』 5권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1-219쪽.
- 문 금현(2006).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문 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141-172쪽.
- 서 경희(2000). 화행 이론과 외국어 교육,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5-49쪽.
- 손 세모돌(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과표현 대조 연구, 『국제어문』 제55집, 국제어문학회, 183-249쪽.
- 이 수연(2012). 『새터민과 남한인의 요청 화행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 영철·김 순미(1997). 사회행위의 사회화용론적 일고찰—한·일·중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5-1, 한국사회언어학회, 89-110쪽.
- 임 칠성(2009), 남북 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호칭과 지칭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37-64쪽.
- 전 정미(2006). 사과 행위의 표현 양상,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167-188쪽.
- 전 정미(2010).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양상 조사,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35-260쪽.
- 전 정미(2017),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209-237쪽.
- 정 현숙(2016), 한국어와 일본어의 공적 사과 표현 대조—식품 관련 기업의 사과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39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61-182쪽.
- 한 정미(2010).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특징과 화법, 『새터민 교사 연수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7-22쪽.
- Brown, Penelope & Levinson, Stephen D. (1987), *Politeness :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rving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Canale, Mickael & Swain, Merrill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Retrieved September 29, 2013)
- Hymes, Dell Hathway (1966). On communicative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Planning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among Disadvantaged Children, Yeshiva University.

* 북한 자료

리 정용(2005), 『언어생활론』, 조선어학사전 33, 사회과학출판사.

문화어학습(2006-2016).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2010), 『우리 생활과 언어』,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16,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1). 『우리말 레절법』, 사회과학출판사.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2부

북한의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양 수경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bomachim@snu.ac.kr

차 례

1. 서론: '언어문화'의 정의, 연구 문제
2. 북한의 언어문화를 다룬 연구 분석
3. 북한 문헌 '언어생활론' 분석
4. 결론
5. 참고문헌

언어문화의 정의(오지혜 2007)

- 협의의 언어문화
 - 산물(언어적 표현 양상)이나 행위(언어 예절, 규범)를 생성하고 유발하는, 기저에 놓인 사고(언어, 언어생활에 대한 가치, 태도)
 - 예. 완곡어법이나 공손한 태도 속에 들어 있는 한국적 집단주의
- 광의의 언어문화
 - 언어에 내재된 사고뿐만 아니라 산물과 행위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
 - 예.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언어에 대한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

연구 문제

1. 북한의 언어문화를 다룬 연구에서 지적하는 북한 언어문화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2. 북한 문헌 ‘언어생활론’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문화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북한 언어문화를 다룬 연구의 분석

북한의 언어문화를 다룬 연구

- 이주행(2006)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
- 신은희(2006)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의 특징
- 강보선(201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 강보선(2014)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살펴본 남북 높임법의 차이 비교
- 이정복(2014)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이주행(2006)

북한의 언어문화 특성

(1) 전투성 문화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는 대상에게는 공적인 상황에서도 비속어,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경향

(2) 국수주의 문화: 극소수의 차용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전용, 고유어와 공존하는 외래어와 외국어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3) 규범문화: 공적인 상황에서 어문규범을 중시하는 문화

(4) 우상화 문화: 최고 통치자를 우상화하는 문화

(5) 충성 문화: 공적인 상황에서 최고 통치자에게 충성하고 그를 존경하며 흠모하는 언어 문화

신은희(2006)

- 북한의 주체문화와 우리민족제일주의 등의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문화 규범화
→ 고유어, 한글 중심의 언어문화를 형성

(1) 주체의 언어이론의 특징(김일성 교시에 기반)

통일을 위한 언어의 통합성, 사회주의 혁명성, 언어의 식민주의 잔재 청산, 언어의 사대주의 경향 거부, 고유어 우선, 지역어의 다양성, 언어의 대중성과 민중성, 미학성, 문화어 기준, 지속적 민족어 건설

(2) 김정일 시대, 언어의 유훈통치 시기의 특징들

- ① 김일성의 교시 계승: 순수조선어의 사용, 언어의 민족주의적 정서 함양, 언어의 혁명성, 인민대중 중심의 언어 등
- ② 김일성에 대한 종교화로 수령에 대한 언어예절과 대두법의 강조
cf. 대두법: 편집방법에 의해 대상을 높이는 일종의 높임법. 최고 통치자의 경우 이름과 직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집하는 대두법 편집을 반드시 지켜야 함

③ 선군정치에 따른 언어의 전투성, 선동성

- 선군정치: 군대 중심의 민족주의,
모든 사회와 인민의 군대화 강조
- 일상에 전투 용어의 사용: 예.교육장과 공장을 '전투장'
-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적 요소, 반동적인 사상에
대해 '전투', '투쟁'의 인식 틀
→ 공식석상에서도 속어, 비어, 은어 등에 가까운
직설적 표현, 정치적 풍자나 조소와 야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cf. 북한의 전투적 언어는 자주성과 민족성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인식됨

이정복(2014)

- '문맹 퇴치 및 한글 전용 운동'과 '문화어 운동'이라는 두 차례의 북한 언어문화 운동 분석
-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특징
 -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음
 - 언어 자체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상 교육, 국가 및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등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됨

□ 두 차례의 언어문화 운동의 성과

- 전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한글 전용을 완전히 정착시킴
- 입말과 글말에서의 언어 평등 확립
-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등을 고유어로 고치는 말다듬기 운동을 진행하여 성과 나타냄

강보선(2013)

-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를 분석

(1)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언어문화

- 김일성 일가에만 사용되는 특정 표현
(원수님, 장군님, 경애하는, 위대한 등)
- ‘께서’와 ‘-시-’의 필수적 사용
- 미화 표현, 신격화 표현, 충성 강조 표현

(2) 적대 세력과 관련된 언어문화

적대 세력에 대한 비속어 사용, 적대 세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 사용

예. ‘눈알’, ‘대가리’ ‘까부시다’, ‘지껄이다’, ‘쳐죽이다’

(3) 가정과 학교에서의 언어문화

부부 간의 대화에서 남편은 줄곧 하오체를, 아내는 해요체 또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음

→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위계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 가부장적 유교 전통

강보선(2014)

□ 북한의 특수한 사회 체제로 인한 높임법의 차이 보고

(1)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한 언어예절을 특정 어휘, 문법 형태 사용 등 구체적으로 규정

(2) 적대세력에 대한 ‘낮추는 언어 예절’의 존재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래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아래 사람이라 하여 너무 저속하거나 비문화적인 것을 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에 대해서는 낮추는 언어 예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경멸, 증오, 야유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골라 쓰도록 하고 있음.

소결: 북한의 언어문화적 특성

□ 언어 순수주의

한글 전용, 고유어 강조, 외래어와 외국어의 제한적 사용

□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언어예절을 구체적 규정

□ 적대세력, 반동적 사상에 대한 전투성

공적 장면에서도 비속어 사용; 경멸, 증오, 야유의 표현 사용

‘언어생활론’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 분석

분석 대상 북한 문헌

□ <언어생활론>(2005)

- ‘조선어학전서’ 총서의 'VII 문체론' 분야의 저서로서 제33권에 해당하며 저자는 ‘리정용’임
- ‘조선어학전서’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일반언어학 연구와 규범적 언어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저서로서, 2012년까지 11개 분야의 총 47권이 편찬되었음 (권재일, 2012).

- ‘언어생활론’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문화의 특성,
북한이 지향하는 언어문화의 특성 조사함

→ <언어생활론>에서는 ‘언어문화’의 용어가 직접 나타나지 않음

→ ‘언어생활에서의 주체 확립’,
‘언어생활의 문화성’,
‘언어의 표현적 효과’,
‘입말과 글말의 접근’
등 관련 부분을 언어문화 관점에서 분석함

1. 언어생활에서의 주체 확립

- “언어생활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서 기본문제는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1)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2) 언어생활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 발전시킬 수 있음: 언어생활에서 문화성과 통속성을 보장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할 수 있음

‘언어생활에서 주체 확립’의 본질적 특성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인민대중을 위한 립장에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언어생활에서 주체가 섰다고 말할 수 있다.”

- (1)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이 창조하고 가꾸어온 말과 글을 적극 살려 쓴다
- (2)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 (1) 언어생활이 사회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요구됨
- (2) 언어생활에서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적극 살려쓰면 민족의 말과 글이 아름답고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양시켜나갈 수 있음

(3) 언어생활에서 사대주의적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중요

- 일부 사람들은 남이 잘 모르는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것을 마치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음
- 봉건사대주의자들과 일제의 책동으로 우리 말과 글에 들어온 한자말과 일본말을 비롯한 외래적인 언어요소들은 우리 말과 글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언어생활에서의 ‘문화성’

- “언어생활을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
- (1) 저속하고 야비한 말, 쌍말, 은어 등의 비문화적인 말과 글 타파
- (2) 언어예절 준수
- (3) 방언의 극복
- (4) 빈말, 군말, 허황된 말과 글의 거부
- (5) 평양문화어 사용

(1)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려면 비문화적인
말과 글을 쓰는 현상 극복해야 함

비문화적인 말의 예: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저속하고 야비한 말,
시대의 미감에 맞지 않는 품위가 낮은 속된 말,
야비하고 몰상식한 말, 쌍말과 각종 은어들

(2)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려면 언어예절을
잘 지켜야 함

언어예절을 잘 지키려면 우리말에 있는 예의를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들과 수법들을 정확히 알
고 옳게 이용해야 함

“윗사람이라고 하여,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분별없이 반말을 하거나 호령을 하는 것은

례절이 없고 도덕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낡은 사회에서 지배계급들의 언어잔재를 가시지 못한 사람인 것이다.”

-윗사람이라도 아래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 줄 것을 강조함

-건방지고 틀을 차려 허세와 위엄을 돋구며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언급함

(계급의식, 차별, 인격에 대한 무시 경계)

(3)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려면 방언을 쓰는 현상을 극복하고 규범적인 말을 하고 글을 쓰도록 해야 함

-“사투리 사용”은 언어가 교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됨

-“사투리 사용”은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인품이 깎일 수도 있음

- “일부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것이 마치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주고 군중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 “문학작품에서 극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투리를 인위적으로 쓰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4) 군말과 빈말, 과장되고 허황된 말은 언어생활의 문화성에 손상을 주는 요소임

- ‘군말’은 군더더기고 ‘빈말’은 내용이 없고 실속이 없는 말로, 언어생활의 문화성에 저촉됨
- ‘과장’하거나 잔재간으로 내용을 ‘허황’하게 꾸미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현상도 비문화적인 것임
- 언어생활의 문화성은 ‘진실하고 실속 있게’ 말을 하고 글을 쓸 것을 요구함

(5)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언어인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 써야 함

-문화어는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세련된 규범적인 언어임

-문화어 사용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도덕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기여

3. 언어의 ‘표현적 효과’

- ‘표현적 효과’는 언어표현의 질적 수준,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
-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사상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 있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섬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수단을 잘 활용할 때 나타남
- 언어생활을 개선하고 언어의 기능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① 모든 기능문체에 다 관계되는 표현적 효과
 - 문풍 상의 요구와 관련
(모든 종류의 글들에서 다같이 지켜야 할
일반적 요구)
 -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통속성
- ② 일부 기능문체들과만 관련된 표현적 효과
 - 기능문체론적 요구와 관련
 - 공식성, 보도성, 정서성, 형상성, 논리성,
전투성과 호소성 등

표현적 효과: (1) 간결성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 내용을
간단하고 함축된 언어형식에
불필요한 설명과 군더더기 없이 집약하여
나타내는 표현적 효과

□ 간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언어 형식들

- 문장을 짧게 짜는 것
- 알속있고 집약적인 말과 표현
- 군더더기나 빈말을 없앴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는 방법
- 준말이나 준형태의 표현 이용
- 거듭되는 문장성분 또는 앞뒤문맥으로 보아
없어도 될 단어와 표현, 문장들을 적절하게 줄임

표현적 효과: (2) 정확성

- 사상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표현적 효과
- 정확성을 돕는 언어 형식들
 - 대상의 본질을 명증하는 적중한 어휘와 표현 사용
 - 단어의 본래의 기본 뜻, 문장 속에서 바꾸어 쓰이는
형상적인 뜻, 문체적인 뜻을 정확히 잘 쓰는 것
 - 지나친 미사여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 피함
 - 문화어 규범을 지키는 것
 - 대비 등의 문체론적 수법 사용

표현적 효과: (3) 명료성

- 사상 내용을 뚜렷이 알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표현적 효과
- 표현된 글의 내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뚜렷이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는 문제, ‘전달’의 기능을 위한 요구임
- 명료성을 돕는 언어 형식들
규정적 표현, 제시어, 되풀이법, 물음문

표현적 효과: (4) 통속성

- 사상 내용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소박하고 구수하게 나타내는 표현적 효과
- ① ‘같은 사상도 쉽게 표현한다’
쉬운 말과 어려운 말이 동의적 관계에 있을 때 쉬운 말을 골라쓰는 것
- ② ‘내용을 통속화한다’
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대중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자체를 쉽게 풀이한다는 것

○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의 행군의 목적은 국내를 한번 들었다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군중과의 호흡이란 인민이 삼을 들 때 자기도 삼을 들고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 자기도 조밥을 먹으며 모든 것을 인민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속성을 보장하는 언어 형식들

-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여 대중이 알기 쉬운 말을 적극 살려쓰는 것
- 논리와 문장구조도 이해하기 쉽게 되여야 함
: 단순문, 단일문을 기본으로 하여 간편하게 구성
- 비유하는 대상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알기 쉬운 것으로 잡는 비유법 등의 사용

□ 통속성의 중요성

-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
-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필요
- “글이나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쓰는 주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이야 어떻게 이해하든 관계하지 않는 낡은 관점에 있다”
-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말과 글”이라는 주체의 언어 이론에 부합함

4. 입말과 글말의 접근

- 입말과 글말의 차이가 생기게 된 주요한 원인을 지난날 글자와 글이 지배계급의 소유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라 보고 있음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글말이 인민대중의 소유물로 복귀하면서 입말과 글말의 근접이 가능해짐
-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중시함
 - 인민대중을 입말뿐 아니라 글말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어 언어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
 - 사회의 언어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당의 언어정책’과 ‘교육사업’, ‘출판 보도물의 발전’을 통해 입말과 글말의 접근이 이루어짐

① 당의 언어정책

- 언어생활에서 외래적 요소와 반인민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
- 글말을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만들었던 어려운 어휘 표현들과 낡은 ‘틀’이 없어지게 됨

② 교육사업 및 출판보도물의 발전

- 전체 인민이 교육 받음, 출판보도물 이용
- 글말은 입말에서 인민적이며 통속적이며 표현성이 높은 어휘와 표현, 문법적인 수단을 받아들이게 됨
- 글말에서 쓰이던 학술용어를 비롯한 일부 어휘나 표현들이 입말에도 쓰이게 됨

-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입말과 글말의 차이는 일정하게 남아있게 됨을 인정하고 있음

- 과거 글말에 스며들었던 반인민적인 요소, 사대주의적인 외래적 요소, 낡은 말투는 없어짐

소결: ‘언어생활론’의 북한 언어문화

- 언어 순수주의: 고유어 적극 살려 쓰도록 함, 한자말과 일본말 등의 외래어를 부정적으로 인식
- 통속성 추구: 고유어 및 이해하기 쉽고 통속적인 어휘와 표현의 권장, 글말에 입말체 요소 도입
- 표준어 이데올로기: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화어 중심의 언어 사용 강조
-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의 추구: 빈말, 군말, 과장, 허황된 말과 글을 부정적으로 인식
- 비문화적인 말(저속, 야비한 말, 쌍말, 은어 등) 지양

결론

- 북한의 언어문화 특성
 - 언어 순수주의
 - 통속성의 추구
 - 표준어 이데올로기
 -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의 추구
 - 비문화적인 말(저속, 야비한 말, 쌍말, 은어 등) 지양
-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 적대세력, 반동적 사상에 대한 전투성

- 북한 언어문화의 규범성과 정치성
 - 규범주의적 언어문화
(언어생활의 개선 발전 방향이 국가에 의해 규정됨)
 - 정치 이념에 종속된 언어문화

- 상호모순되어 보이는 언어문화적 요소들
 - 비문화적인 말(비속어 등)을 지양하면서도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사용이 권장된다는 점
 - 통속성을 추구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점

참고문헌

- 강보선. (201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 259-284.
- 강보선. (2014).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살펴본 남북 높임법의 차이 비교. *화법연구*, 26, 177-204.
- 권재일. (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리정용. (2005). *언어생활론. 조선어학전서 제33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신은희. (2006).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의 특징. *한국언어문화학*, 3(1), 83-104.
- 오지혜. (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2), 83-120.
- 이정복. (2014). 국어학: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배달말*, 55, 159-191.
- 이주행. (2006).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1, 215-244.

제3부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그 필연 / 엄 태경 · 신 중진

한자 폐지—남북 말글 하나 됨의 선행 조건 / 김 영환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3부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그 필연

엄 태경 · 신 중진

한양대학교 강사 · 한양대학교 교수

taekyoung00@daum.net

1. 머리말

언어 사용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전문 언어(special language)를 구성하는 전문용어(terminology) 역시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에 속하므로 그 사용의 목적 또한 의사소통의 원활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전문용어는 몇 개의 특징들로 인해 일반 언어의 어휘들과 구별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문용어 사용이 특수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수한 의사소통 환경은 특정 전문 분야나 영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전문적인 개념이나 지식을 전문용어로 지칭(designation)하여 소통을 한다. 따라서 전문용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휘보다 제한적이고 특수한

1) 이 글에서는 ‘전문 언어’를 ‘일반 언어(general language)’에 상대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일반 언어를 구성하고 요소를 ‘어휘(vocabulary)’라고 하듯이 ‘전문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전문용어’로 이해한다. 전문용어는 용어(term)들의 집합인데,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지시함으로써 해당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 단위이다. 전문 언어와 전문용어, 그리고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엄태경(2019: 26-38)을 참조할 수 있다.

의미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라는 어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되는데 ‘아인슈타인이 만든 (고안한) 법칙’의 뜻보다는 ‘고체의 상온이나 저온에서의 비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법칙’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²⁾ 이와 같이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개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의 개념과 개념 체계, 정의, 표현(형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전문용어 작업과 그 작업의 방법론으로 실시된 ‘전문용어 표준화(terminology standardization)’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후에 전문용어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방법으로는 ‘통일’과 ‘순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용어가 인위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법까지도 단순하고 지엽적으로 바꾸어 놓은 측면이 있다. 요컨대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용어 표준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전문용어 조화를 통한 전문용어 통합의 실제적인 방법론 탐색에 있다. 더 나아가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법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되고자 하는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다.

2.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전문용어 조화의 개념

그간 국내의 전문용어 연구는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부인 ‘전문용어의 정비’ 사업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한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³⁾ 이 두 사업은 전문용어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의 9년 동안 15개 분야의 18만여 개의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8개의 분야에서 대략 77만 개 이상의 용어 목록을 구축하였다.

이 사업들은 전문용어의 표현적(형식적) 측면에 초점에 맞추어 중복 용어의 표준화와 통일, 대역어 정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의 내용은 두 사업의 결과물 중 일부를 표로 보인 것이다.

2) 이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왔다. 그런데 ‘전기, 전자’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광전(光電) 장치는 광자(光子)를 흡수함으로써 광전자를 방출하는데,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h\nu$)에서 일의 함수 p 를 뺀 값과 같다는 것을 기술한 법칙.”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사용 환경(전문 영역)에 따라 의미와 개념이 달라진다.

3) 이 두 사업의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김 한샘(2008: 99-109)를 참조할 수 있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일본어 용어
abdomen	배	(1) 腹 (2) 腹部
abdomen	복부	(1) 腹 (2) 腹部
abdominal appendage	복부부속지	腹肢
abdominal cavity	복강	腹腔

〈표 1〉 ‘전문용어의 정비’의 결과물 중 일부(영-한-일 생물 용어 대응 목록)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중분야	표준안	비고
“Adler, Alfred”	아들러	교육학		
“Adler, Alfred”	“아들러, 알프레드”	무용학	“아들러, 알프레드”	
Adolescent	청소년	교육학, 무용학		
Adolescent	청소년	교육학, 무용학	청년기	
Borderline	경계선	영화		
Borderline	경계선적	교육학	경계선	

〈표 2〉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의 결과물 중 일부(인문과학 분과 중복용어 목록)

위의 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사업에서는 각 분야 전문용어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국어를 정리하였다. 특히 〈표 2〉에서는 중복되는 용어의 표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용어 표준화를 통한 용어의 확정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용어들의 개념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 사실이다. 즉 ‘abdomen’과 ‘배, 복부’가 개념적으로 동가이며, ‘Adolescent, 청소년’이 ‘교육학’과 ‘무용학’에서 모두 ‘청년기’와 동일한 개념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위의 예들이 모두 개념적으로 동가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형식적으로 동일한 모든 용어가 동일한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형식(form)에 초점을 둔 표준화는 개념과 의미의 측면을 고려하고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관련한 연구 사업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가장 이른 시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남북과학기술용어집』을 편찬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 학문 분야부터 ‘건축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 분야를 망라하여 총 13개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물인 용어집은 남측 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각 용어의 영어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남북 전문용어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와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를 펴내어 남북 교과서 용어를 비교하였으며, 어휘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남북 체육 용어 통일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였는데, ‘축구, 농구, 배구’ 등 30개 종목의 체육 용어를 용어집의 형태로 제시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전문용어 구축’이라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북한의 전문용어 대응쌍을 찾아 정리하는 용어집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남과 북의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투명성, 친숙성, 경제성, 고유성, 일의성, 일관성,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우위를 적용하여 더 나은 전문용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와 사업들은 용어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의미나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결과 전문용어의 ‘개념 조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방법론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고 형식의 단일화를 통한 통합의 방법론만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서 활용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동일 개념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수학의 개념 중 ‘90도 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남한에서는 ‘둔각’, 북한에서는 ‘무딘각’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표현)이 다르지만 동일 개념을 나타내는 동의어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문용어가 각각 대응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형식이 동일하면서도 개념이 다른 전문용어도 있고,⁴⁾ 형식과 개념 체계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⁵⁾ 그러므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개념적 측면의 통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는 개념 통합의 한 방법인 ‘조화’에 대해 알아보자. ‘조화(調和)’는 ‘서로 잘 어울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둘 이상의 것이 만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전문용어학에서의 ‘조화(harmonization)’ 역시 이것과 상통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 적용의 범위가 ‘개념, 개념 체계, 정의, 표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산하의 TC(Technical Committees) 37은 전문용어와 언어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규범 문건들을 발행하고 있다. 그중 전문용어 조화와 관련된 규범이 『ISO 860: 2007』이다. 이 규범의 제목은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4) ‘문학’ 분야의 전문용어 ‘갈등’은 남과 북의 개념이 사뭇 다르다. 남측에서는 ‘소설이나 희곡에서,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의미하지만, 북측에서는 ‘현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 새것과 낡은것과의 대립과 투쟁을 예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5) ‘문법’ 분야의 남측 용어 ‘어미’는 북측 용어 ‘용언토’에 일반적으로 대응되지만 그 개념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용언토의 하위 범주인 ‘상토’는 남한에서 ‘사피동 접미사’와 개념적으로 대응한다.

terms”로 전문용어에 관한 규범 중 개념과 용어의 조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⁶⁾ 전문 용어 조화와 관련한 이론과 방법론이 전무한 현재의 실정에서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용어의 조화와 그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로 볼 수 있다. 『ISO 860』에서는 전문용어의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

(1) 개념 조화(concept harmonization)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 문화적 또는 다른 차이를 가지는 둘 이상의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

비고: 개념 조화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향상에 있다.

(2) 용어 조화(term harmonization)

다른 언어 또는 같은 언어 내에서 조화된 개념의 명칭을 선택하는 활동.

비고: 다른 언어 사이에서 조화된 용어는 대역어이고, 같은 언어에서 조화된 용어는 동의어 또는 변이형이다.

전문용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지칭으로 그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사용자가 용어 생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 전문가 집단, 기구,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전문용어의 개념이 동일하거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용어의 형태 또한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차이를 보이는 환경에서 간극을 줄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전문용어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세부적인 활동을 (1)과 (2)와 같이 정의한 것이다.⁸⁾

지금부터는 ‘개념 차이’, ‘개념 체계의 차이’, ‘정의 차이’, ‘형식 차이’를 보이는 예를 각각 들어, 그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아래는 ‘개념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인 것이다.

- (3)⁹⁾ 『표준국어대사전』규방가사(閨房歌辭): “조선 시대에, 부녀자가 짓거나 읊은 가사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영남 지방에서 널리 유행하였으며, 주로 시집에서 지켜야

6) 이 외에도 『ISO 704:2009』, 『ISO 1087-1』, 『ISO/IEC GUIDE 2』, 『ISO 10241』, 『ISO/TR 22134』 등에서 전문용어의 표준화, 조화, 정비(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다만 뒤의 두 규범은 모두 폐기되었다. 이 규범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현주(2017: 71)를 참조할 수 있다.

7) 『ISO 860: 2007』에서는 개념 조화, 용어 조화 외에도 개념 체계 조화(concept system harmonization), 정의 조화(definition harmonization)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개념 조화, 개념 체계 조화, 정의 조화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조화의 프로세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일련의 개념 조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용어 조화의 과정이 뒤따른다.

8) 이현주 · 신중진(2017: 265-266)에서도 『ISO 860』에서 제시한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문용어가 지칭하는 개념과 그 명칭인 전문용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불확정성’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남북 전문용어의 대응 과정에서 ‘조화’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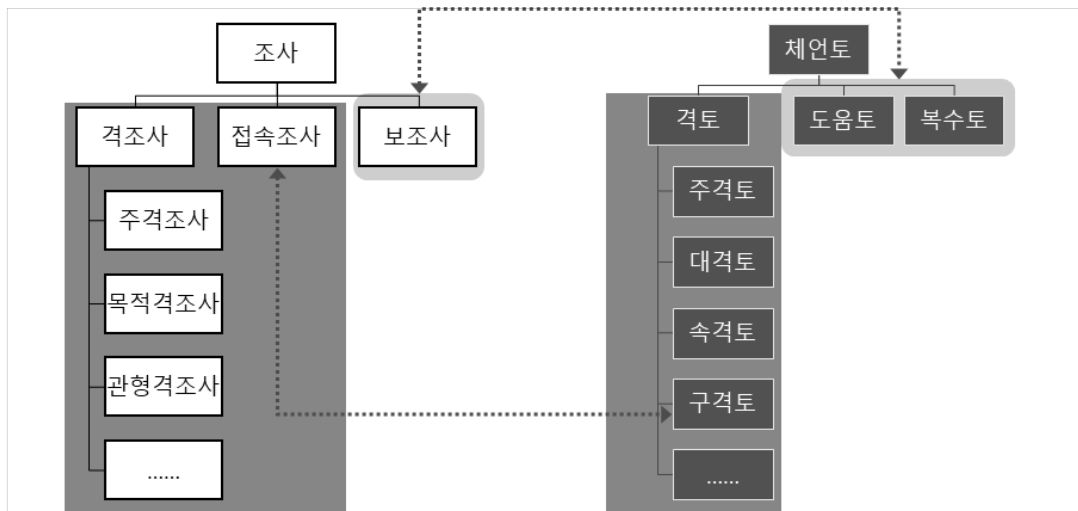
9) 기술의 편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표대』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고대』로, 『조선말대사전』을 『조대』로 줄여 부른다.

할 몸가짐과 예절 따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계녀가〉, 〈춘유가〉 따위가 있다.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다.”

- (4) 『조선말대사전』부녀가사(婦女歌辭): “봉건시기 부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고 이중삼중의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가는 녀인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가사. 17세기이후시기에 주로 량반부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중에서 ‘규방가사(남)’와 ‘부녀가사(북)’는 유사한 개념을 공유한다.¹⁰⁾ 그러나 그 개념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먼저 ‘규방가사’와 ‘부녀가사’는 ‘부녀자’가 ‘(17세기 이후의) 조선시대에’ 창작한 ‘가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남과 북의 용어가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용어는 ‘시집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예절 따위’가 내용이고, 북한의 용어는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아가는 녀인의 감정’을 담고 있다. 즉 이 두 용어는 개념적 측면에서 완전 동의어가 아니다. 『ISO 860』에서는 이러한 개념 차이를 보이는 용어를 조정하는 조화 활동을 주장한다.

다음의 그림은 ‘문법’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중에서 ‘조사’와 ‘체언토’의 ‘개념 체계 차이’를 보인 것이다.¹¹⁾



[그림 1] 문법 용어 ‘조사’와 ‘체언토’의 개념 체계 비교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는 그 자체로 이 분야의 지식을 드러내는 지식의 단위이면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다.¹²⁾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그 구조로써 체계성을 드

10) 이 글에서 사용된 전문용어의 예들은 신중진 외(2015, 2016, 2017, 2018)에서 정리한 남북 전문용어의 대응 용어쌍을 활용하였다.

11) ‘문법’분야의 용어는 남과 북의 중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과목에서 추출하였다. 따라서 남측의 용어는 학교문법을 따르고 있으며, 북측의 용어 역시 표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2)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가 나타내는 지식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엄태경(2019: 147-150)을 참조할 수 있다.

러내며 개념 조화 과정에서는 구조의 깊이 파악이 시작점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남측 용어 ‘조사’는 하의어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를 갖는다. 반면 북측 용어 ‘체언토’는 하의어로 ‘격토, 도움토, 복수토’를 갖는데 남북의 용어 체계가 차이를 보인다. 부연하면 남측의 ‘접속조사’는 북측 ‘격토’의 하의어인 ‘구격토’에 해당하여, 그 층위와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북측의 ‘도움토’와 ‘복수토’를 더한 외연은 남측의 ‘보조사’와 그 외연이 같다. 이와 같이 개념 체계의 차이를 보이는 전문용어는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통합 외에 지식 개념 체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정의 차이’를 보이는 예문들인데,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이다.

- (5) 『표대』경관02(京觀): “고구려 때에, 전사자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장사 지내고, 전공(戰功)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합동 무덤.”
- (6) 『고대』경관05(京觀): “고구려 때, 전공(戰功)을 기념하기 위하여 상대편 전사자(戰死者)의 유해(遺骸)를 한곳에 모으고 흙을 덮어 만든 큰 무덤.”
- (7) 『조대』경관03(京觀): “봉건사회에서: 큰 구경거리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발휘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상대편 전사자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그우에 흙을 높이 덮은 큰 무덤을 이르는 말.”

우선 ‘경관’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자. 시기는 ‘고구려 때, 봉건 사회’이고, 대상은 ‘(상대편) 전사자’이다. 그리고 ‘합동 무덤, 큰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개념은 ‘무덤’이다. 위의 (5), (6), (7)을 고려했을 때, ‘경관’의 핵심 개념은 “고구려 때, 상대편 전사자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5)에 정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고구려 때, 전사자의 무덤”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의 ‘전사자’는 ‘아군 전사자와 적군 전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미묘한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6)과 (7)의 의미를 다시 고려하면 (5)의 ‘전사자’를 ‘상대편 전사자’로 수정하여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의미 차이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의 조화’라고 하며, 해당 전문용어에 대하여 공신력을 가지는 여러 정의들의 비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다음의 예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만 다른 형태를 가진 생물 분야 전문용어들이다. 앞의 전문용어들은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아래의 용어들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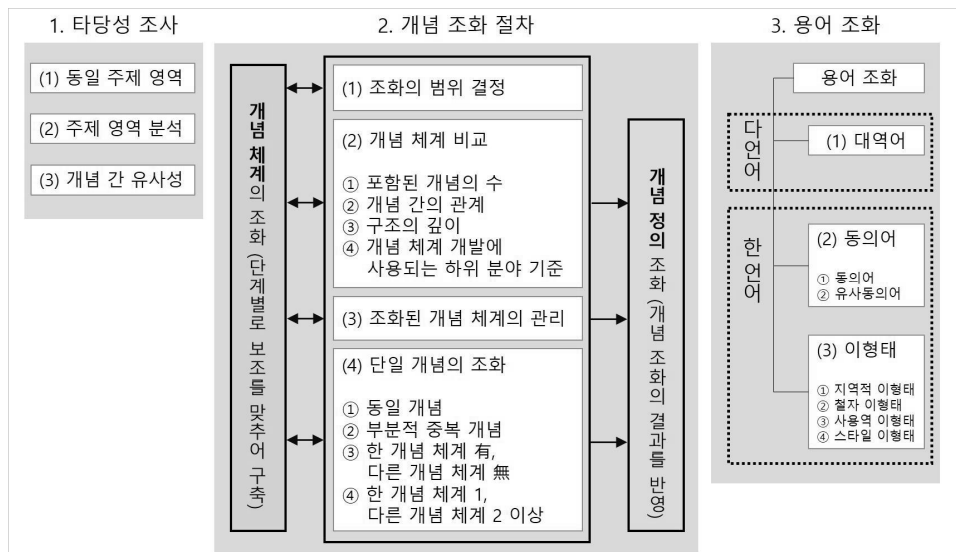
- (8) 『표대』막뿌리: “제뿌리가 아닌 줄기 위나 잎 따위에서 생기는 뿌리. 연, 옥수수 따위의 뿌리가 있다.”
- (9) 『고대』부정근(不定根): “뿌리 이외의 부분, 즉 줄기나 잎 따위에 나는 뿌리. 연, 옥수수 따위의 뿌리가 이에 속한다.”
- (10) 『조대』막난뿌리: “줄기나 잎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뿌리”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막뿌리’와 ‘부정근’ 그리고 ‘막난뿌리’는 “줄기나 잎에 생기는 뿌리”라는 핵심 개념을 공유한다. 즉 개념적으로 동일하고 형식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용어 조화는 이 이형태들을 확인하고 해당 개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지칭만을 허용하는 일대일 대응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형태의 배제를 의미한다. 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형태들을 선택한다면 일대다의 대응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북 전문용어에 있어서 ‘개념’, ‘개념 체계’, ‘정의’, ‘표현’의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이고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개념 조화와 용어 조화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활동이 별개의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ISO 860』에서는 개념 체계의 조화(concept system harmonization)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 조화 작업이 선결된 후에야 용어 조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용어 조화는 기본적인 개념이 동일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3장에서 소개한다.

3. 『ISO 860』에서의 조화 절차

『ISO 860』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화의 방법론을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조화의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이 연구 방법의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 조화 연구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한다. 이 장에서는 『ISO 860』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용어의 조화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한다. 아래의 그림은 『ISO 860』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도표로 만든 것이다.



[그림 2] 『ISO 860』의 전문용어 조화 절차

‘전문용어의 조화’는 ‘개념 조화’, ‘개념 체계 조화’, ‘정의 조화’ 그리고 ‘용어 조화’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개념 조화’활동과 ‘개념 체계 조화’ 활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 후 조화된 개념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큰 틀에서의 개념 조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는 1단계, 2단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조화된 개념 체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용어 조화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 그림에서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제부터 『ISO 86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문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범위’와 ‘참조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범위’는 이 문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참조 규범’은 이 문서에서 다루는 ISO의 다른 규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문서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ISO 1087-1』에서 정한 정의를 사용한다.¹³⁾ 4장부터 6장까지는 각각 ‘개념과 개념 체계의 조화’, ‘개념 정의의 조화’, ‘용어 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밝혔듯이 [그림 2]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예로 보인 것이다. 이 예를 바탕으로 『ISO 860』의 개념 조화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도록 한다.

- (11) 『표대』 『고적』 붉은간토기: 그릇의 ㉠겉에 ㉢붉은 칠을 바르고 ㉡문질러 닦아서 붉고 반들반들하게 만든 ㉣토기(土器).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 (12) 『고대』 『고고』 붉은간토기: ㉠표면에 ㉢붉은 칠을 하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구운 ㉣토기.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함경북도 웅기 송평동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 (13) 『조대』 『고고』 붉은간그릇: ㉤청동기시대에, ㉠겉을 번들번들하게 ㉢갈고 ㉢붉은 색을 칠한 ㉣질그릇.

[그림 2]에서와 같이, 전문용어의 조화는 조화하고자하는 개념이 동일한 주제 영역(subject field)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위의 (11), (12), (13)은 사전의 전문어 영역 구분에 따라 ‘고적’과 ‘고고’로 나뉘지만, 넓은 의미에서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로 볼 수 있다.¹⁴⁾ 따라서 동일한 주제 영역으로 보고 조화를 진행한다. [그림 2]의 ‘1-(2)’에서는 주제 영역을 분석한다. 『ISO 860』에서는 “첫째, 전문용어의

13) 『ISO 1087-1』은 ISO의 규범에서 사용하는 여러 어휘들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일종의 ‘용어집’이다.

14) 역사 분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민속, 예술, 지리’ 등을 포괄하기도 한다. 역사 분야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넓은 범위의 역사 용어를 말한다.

부분 집합이 이미 조화되어 있거나, 둘째, 주제 영역이 잘 확립되어 있어 안정적이거나, 셋째, 이미 표준화의 예”가 있다면 해당 주제 영역의 조화가 좀 더 쉽다고 기술하고 있다. ‘1-(3)’에서는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조사하는데 “① 개념 사이의 공통점, ② 차이점, ③ 핵심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위의 (11), (12), (13)은 ‘㉔, ㉕, ㉖, ㉗’의 특성이 공통적이고, ‘㉘, ㉙’의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11)과 (12)는 제작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11)의 ‘붉은간토기’는 ‘붉은 칠’을 하고 나서 ‘문지르느’ 반면, (13)의 ‘붉은간그릇’은 ‘갈고(문지르고)’, ‘붉은 칠’을 하는 순서상의 차이를 보인다. 핵심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은 ‘붉은 칠’과 ‘문지르다(갈다)’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개념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 전문용어에 대해 조화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인 조화의 절차가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의 절차는 ‘조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화를 진행할 개념과 그 개념 체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붉은간토기(그릇)’의 개념만을 다룰지, 다른 연관 개념까지 다룰지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토기’의 개념 체계이다.



[그림 3] ‘토기’의 개념 체계

‘토기’는 제작 방식에 따른 ‘간토기’가 있고 동물 모양에 따라 ‘짐승토기’가 있다. 그리고 무늬의 유무에 따라 ‘새김무늬그릇(북)’과 ‘민무늬토기’가 있다. ‘새김무늬그릇’과 ‘민무늬토기’는 무늬 종류나 지역에 따라 더 세분화되기도 한다. 우선 여기서는 ‘간토기’의 범위에만 집중한다. ‘간토기’ 안에는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갈색마연토기’ 등

세 개의 개념이 병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하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개념 조화 작업은 ‘개념 조화’와 ‘개념 체계 조화’를 동반하므로 위 [그림 2]에서는 쌍방향의 화살표로 표시된다. 개념 체계를 비교한 후에는 조화된 개념 체계를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한다. 즉 조화된 개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보여줄지, 특수한 목적과 맥락에 따라 분해하여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념’의 비교를 통해 조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명칭(designation)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가지는 특성(characteristic)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그리고 그 특성은 정의(definition)나 개념 체계에 딸려 있는 주석(explanatory note)에서 찾거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념과 관련된 모든 정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개념 비교를 통해 ‘① 동일 개념’인지 ‘② 부분적으로 중복 개념’인지 아니면 ‘③ 한 개념 체계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개념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지, 혹은 ‘④ 한 개념 체계에서의 단일 개념 다른 개념 체계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인지 파악한다. 동일 개념의 경우에는 조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의 경우에는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조화가 가능하기도 하며, 불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개념 체계 내의 적절한 위치에 넣어 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화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④의 경우는 조화가 불가능하며 개념 체계 내에 따로 주석을 달아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¹⁶⁾

-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토기의 표면에 단(丹 : 酸化鐵)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굽거나 적색안료를 바른 토기.
-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 · ‘홍도(紅陶)’라고도 부르며 중국의 홍도와는 다르다.
-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돌널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나 집터에서의 출토 예가 늘어나고 있다. 남해안지방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단(丹)을 바른 토기가 출토된다.

『두산백과』¹⁷⁾

-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丹)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구운 토기.
-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 돌널무덤 · 집터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남해안지방에서는 신

15) 이러한 사실을 통해 ISO가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ISO는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에서 내세우는 개념 우위설을 바탕으로 규범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16) <http://encykorea.aks.ac.kr/>

17) <http://www.doopedia.co.kr/>

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기형은 둥근 바닥의 긴 목단지이며 목이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붉은간토기는 지역차에 의한 특색이 매우 강하며, 한반도에서는 함북과 낙동강유역 유적에 중점적으로 집중한다.

『고고학사전』¹⁸⁾

- 토기의 성형이 완료된 뒤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의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써 문질러 소성한 토기를 말한다. 산화철은 고온에서 붉은색으로 발색되며, 토기의 표면을 갈면 광택을 띠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신석기시대의 산화철만을 도포(塗布)한 것이나 산화철이 녹은 점토를 토기 표면표면에 바른 것과는 다른 계통으로서, 한반도 동북계통의 청동기시대 문화요소로 알려져 왔다.

『다음백과』¹⁹⁾

- 홍도·적색마연토기·단도마연토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작·사용되었던 것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주로 남해안·동북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탕흙 위에 슬립을 씌우고 그 위에 다시 붉은 칠을 했으며 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말 무렵까지 쓰이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붉은간토기'라고 하면 이것을 일컫는다.

〈표 3〉 ‘붉은간토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주석들

〈표 3〉은 신뢰할 만한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한 ‘붉은간토기’에 대한 정의와 설명들이다. 이 정의들과 설명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붉은간토기’의 정확한 외연과 내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1), (12), (13)의 예문과 〈표 3〉을 통해 확인한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4) ‘붉은간토기’의 개념적 특성

- ① 토기/질그릇 (유개념)
- ② 겉/표면 (위치)
- ③ 붉은 칠/붉은색을 칠한/단을 바르고/산화철을 바르고/산화철의 액체를 바르고/적색안료 (재료)
- ④ 문질러/갈고/문질러서 (방법)
- ⑤ 구운/굽거나/소성한 (방법)
- ⑥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신석기 시대/청동기시대/신석기의 이른 시대/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말 (시기)

18)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 <http://100.daum.net/>

위 (14)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붉은간토기’에 대한 특성들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굽다’라는 특성이 들어간 정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의도 있다. 또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포괄하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특성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들을 조정하여 개념을 조화할 수 있다.

조화된 개념의 정의

- 명칭: ‘붉은간토기’
- 정의: 그릇의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지르거나 갈아 소성한 토기
(위치) (재료) (제작 방법) (유개념)
- 비교: 청동기 시대에서의 고인돌, 돌널무덤 등에서 주로 출토되며,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표 4〉 조화된 ‘붉은간토기’의 개념

위와 같이 개념 비교를 통해 조화된 개념은 ‘개념 정의의 조화’로까지 이어진다. 즉, [그림 2]에서 설정된 ‘→(단방향 화살표)’는 조화된 개념이 개념 정의의 조화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절차까지가 ‘개념 조화’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어 조화’의 단계는 ‘대역어(equivalence)’와 ‘동의어(synonymy), 이형태(term variation)’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²⁰⁾ 대역어는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여러 언어들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언어 간 동의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의어와 이형태는 한 언어 안에서의 용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언어라고는 하지만 다루고 있는 예가 ‘영국/미국’, ‘스페인/멕시코’ 언어라서 국가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따로 용어 조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모델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조화의 방법론을 국내의 상황,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과 방법론적

20) ‘용어 선택’에 관련한 내용도 『ISO 860』에 수록되어 있지만 다 언어 간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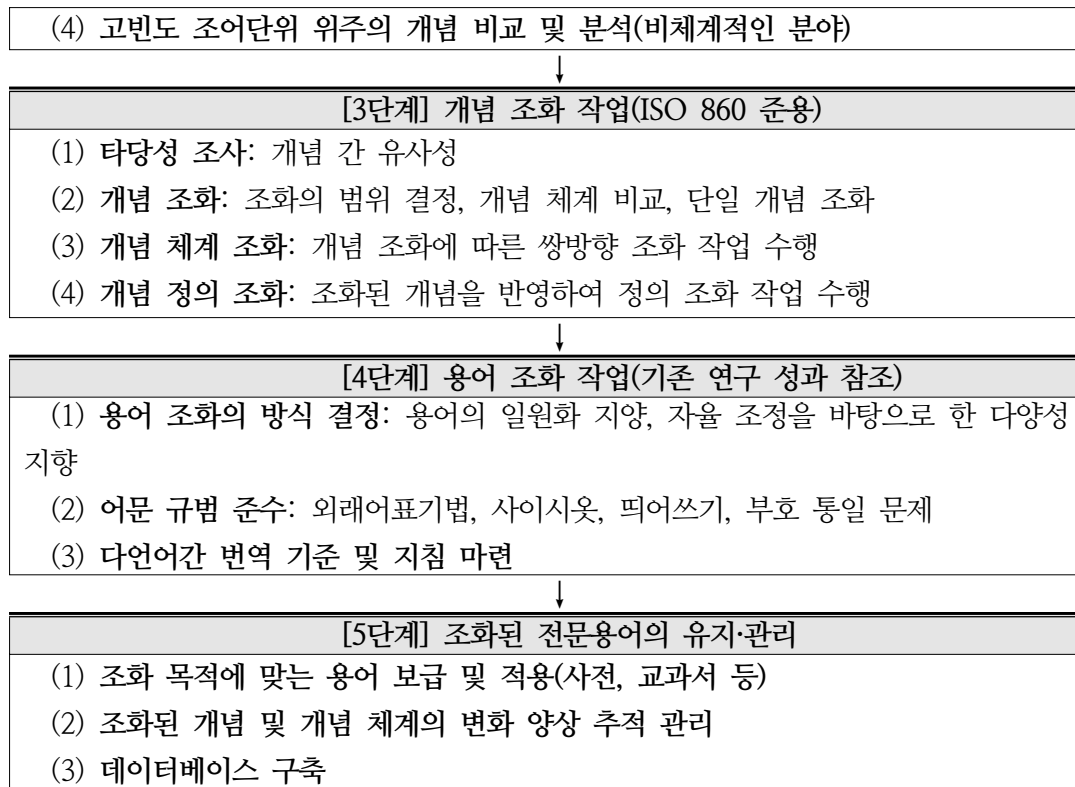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O 860』은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정하여 조화에 이르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그 개념 체계가 엄밀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분야에 따라 개념 체계 수립의 정도성을 달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역사’ 분야의 ‘유물명’은 용어를 만드는 규칙이나 법규가 존재한다.²¹⁾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 구조와 개념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문학’ 분야의 용어들은 일반 어휘와 전문용어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개념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ISO 860』의 개념 조화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우선 전문용어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념 변이(concept variation)’의 예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²²⁾ 그렇지만 개념 변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은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시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념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언어를 공유하지만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의 개념 변이 수집은 더더욱 어렵다. 결국 개념 변이의 수집은 용어의 수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수집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개념 변이를 찾고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작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념 조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실제적인 절차적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1) 분야 선정: 용어 수집의 분야(주제 영역) 선정 및 범위 구분, 하위 분야 한정 (2) 목표 수립: 개념 조화, 개념 체계 조화, 개념 정의 조화, 용어 조화 (3) 자료 수집의 범위 선정: 교과서, 잡지, 사전, 논문 등(용어의 수준과 관련) (4) 용어 목록에 들어갈 항목 구성: 대역어, 정의(뜻풀이), 동의어, 이형태, 출처 등
↓
[2단계] 목록 구축 및 분석
(1) 남북 대응어 목록 구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 추출 (2) 핵심 조어단위 분석: 용어 목록을 분석하여 핵심 조어단위 추출 및 분석 (3) 핵심 조어단위를 바탕으로 한 개념 체계 구축(체계적인 분야)

21) 국내의 [문화재청예규 제163호]는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이며, 그 목적에 대해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2) 『ISO 860』에서는 “professional(직업적), technical(기술적), scientific(과학적), social(사회적), economic(경제적), linguistic(언어적), cultural(문화적), or other environments(여타의 환경)”에 의해 개념 변이가 나타난다고 본다.



〈표 5〉 ‘남북 전문용어 통합’ 모델

위의 표에서 각 단계는 방법론적 절차에 해당한다. 먼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개념 조화를 위한 용어 수집 절차를 1단계와 2단계에 설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 살펴본 『ISO 860』의 개념 조화 방법론을 3단계에 두어 개념 조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 후 4단계에서는 조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용어 조화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조화를 마친 전문용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이다. 언어가 역사성을 가지듯 전문용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즉 개념 및 그 형식이 통시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일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각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로 용어를 수집할 분야(주제 영역)를 선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주제 영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 분야’는 다양한 주제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 영역 구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일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즉 자료를 한정하고 그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어들을 선별한다면 범위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용어 수집에 들어갈 항목들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용어 정의에 대한 항목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 대응어 목록을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선 1단계에서 확정했던 항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후 어휘·형태적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 형성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조어단위를 추출한다. 주지하듯이 해당 분야의 모든 개념 체계에 대한 개념 조화는 단번에 진행되기도 어렵거니와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개념부터 접근해야 할지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핵심 조어단위를 시작으로 개념 체계 구축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엄태경(2015: 29-33)에서는 수학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기존의 용어에 새로운 개념을 담은 조어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수학 분야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른 분야 역시 핵심이 되는 용어(조어단위)에 새로운 조어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가 형성된다.²³⁾ 앞서 살펴본 [그림 3]의 전문용어 ‘토기’의 개념 체계도 ‘토기’라는 핵심 조어단위에 ‘간, 짐승, 무늬’ 등의 조어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또 여기에 다른 조어단위가 결합하는 다단어 용어(multi-word term)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핵심 조어단위를 추출하여 개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개념 조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²⁴⁾

한편, 전문용어의 양상이 비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학’분야의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적 특성 갖는 경우가 많다. ‘갈등, 결구, 고시, 고풍, 대본, 소설’ 등의 전문용어는 『표준』을 기준으로 일반 어휘의 의미와 전문용어 의미를 모두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비체계적인 개념 구조와 지식 구조를 보이는 분야는 코퍼스를 활용한 고빈도 용어를 기준으로 개념 통합을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구축한 개념과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조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앞 장에서 설명한 『ISO 860』의 내용을 준용한다.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사회·문화적인 개념 변이와 개념 체계 변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표준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용어 조화의 단계이다. 지금까지의 용어 조화는 용어의 통일을 지향하는 동시에 용어의 순화·표준화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문용어 정책’,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들도 시도되고 있다. 이현주·신중진(2017)에서는 전문용어 조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현주(2017)에서는 국내 전문용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던져두고 있다. 또

23) 엄태경(2019: 145-146)을 참조할 수 있다.

24)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전문용어가 체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핵심 조어단위에만 한정 짓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개념 및 개념 체계 구축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한 임현경(2013, 2015)에선 해외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소통적, 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문용어학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 조화의 단계에서는 형식을 통한 용어 통합을 다룬 기존 연구 성과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를 조정하여 용어 조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화를 끝낸 전문용어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용어의 조화의 성패는 그 성과의 보급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전문용어 조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핵심 대상이 달라지겠지만, 대상이 국민 전체임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보급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조화의 작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생성과 소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용어의 생성과 소멸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화된 전문용어의 개념 체계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일도 전문용어 통합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5. 맺음말

이 글은 전문용어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법론적 절차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1장과 2장에서는 전문용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획일적이고 형식 중심적인 ‘전문용어 표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형식뿐만 아니라 개념의 통합도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3장에서는 『ISO 860: 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용어 조화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제의 예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이 절차적 방법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와 2단계는 개념 조화를 위한 활동이며 3단계는 용어 조화를 위한 활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념 조화가 선결된 후야야 용어 조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4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그 절차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미처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ISO 860』에서는 부분적 중복 개념에 대해서만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한 유형의 개념 조화를 명세화하고 그에 따른 조화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의 전문용어는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 정책, 이념, 문화 차이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고유어와 한자어와 같은 어종 양상이 언어 정책적 차이로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70년의 분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의 전문용어 생성을 보여주는데 개념의 언어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

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어 형성의 방법과도 연결되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후고를 기약해 본다.

〈참고 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 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 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 한샘(2008),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93-120.
-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신 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 신 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 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 중진 외(2018),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엄 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7-39.
- 엄 태경(2017), 「전문용어 형태 분석의 방법론」, 『2017년도 한국언어문화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학회, 92-103.
- 엄 태경(2019),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엄 태경·신 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181-212.
- 이 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1-370.
- 이 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 이 현주(2017), 「전문용어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5-98.
- 이 현주·신 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61-293.
- 이 현주·조 동성(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45-283.
- 임 현경(2013), 「유럽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과 한국의 향후 연구과제」,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I』, 한국문화사, 93-122.
- 임 현경(2015),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 한국통역번역학회, 27-49.
- 최 기호 외(2007), 『남북 체육 용어 통일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국어단체연합.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dic.daum.net/index.do?dic=kor>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ISO 704(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860(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1087-1(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1 : Theory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10241(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29383(2010) Terminology policies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IEC(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General vocabulary. Guide 2, ISO/IEC.

UNESCO(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Paris.

Wright, S.E. & Budin, S.(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1. Basic Aspect of Terminology Manag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197-208.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3부

한자 폐지-남북 말글 하나 됨을 위한 선행 조건

김 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 부경대학교 교수

kyh@pknu.ac.kr

1. 머리말

남북의 말글 하나 됨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의 말글 차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남녘에서는 오랫동안 한자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과 파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뒤에는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있다. 또 남녘에서는 아메리카말이 엄청난 위세로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물론 남녘 정부의 수립 과정이 외세 의존적이었으며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남북 말글 차이가 점점 크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전쟁까지 치른 격렬한 남북대립으로 남과 북은 서로를 외면하며 수십 년을 살았다. 이제는 냉전 대결 의식까지 기승을 부려 북녘의 한글 사랑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동안 남녘의 국어학에서 큰 대중적 관심거리는 한자 폐지 문제였다. 근대 이후 우리 말글살이에서 가장 큰 논쟁 거리였던 한자 폐지는 북녘에서는 1949년에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남쪽에서 나온 한자 폐지 논쟁은 무척 소모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깊지 못하여 유학적 말글 의식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

고,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1945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제 유산은 ‘과학적’ 국어학이란 허울을 내세워 교묘한 형태로 자주 문화와 민주주의에 걸림돌을 만들면서,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의 전통을 부정하고 대결하였다. 이제 한글 사랑운동이나 남북의 말글 하나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945년 이후의 국어 연구와 한글 운동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앞서야 한다. 남녘에서 오랜 파쟁과 대립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는 유교적 사대-모화 사상과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손잡고 주시경과 조선어학회의 전통에 대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남녘에서는 한자 폐지와 우리말 사랑 운동은 미미한 세력에 머물렀다. 이는 한자말이 너무 많고 쓰기를 지배 계급이 독점하던 상황을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었다.

2. 500여 년을 기다려야 했던 한글만의 누리

2.1. 모화—엄청난 중화주의의 무게

우리의 국어 국문 근대화 작업은 사대에서 벗어나려는 독립 운동의 한 부분이다. 한글 사랑과 우리말 사랑 운동은 이런 사실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없었다. 한문 숭배의 뿌리는 유교의 모화사상이다.¹⁾ 이는 최 만리의 상소문에 동문의 때를 맞아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은 중화를 버리고 오랑캐로 떨어짐이란 주장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 지배계급이 빼어난 한글을 오랫동안 외면해 온 이유를 그대로 설명해 준다. 또 외래 문물 도입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다. 이런 생각은 최 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 선비 대부분이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조선글자를 버림은 물론이고 조선말마저도 버리자는 주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 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이 현희 외(2014), 9-39쪽에 소개)

근대 이후 동문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변동 때문이었다. 1894년 고종의 독립서고문(1895.1)과 국문조칙(1895.5)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

국문의 독립은 한문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였고 이는 천하체제의 문자 또는 언어학적 표현인 동문 체제의 종말이었다.

고종 32년 5월 8일(무인), 공문식을 반포하다.

제1장 : 반포식(頒布式)

제9조

1) 이 점을 김 영환(2009), 「유학적 모화 의식에 따른 동문 방언 의식에 관하여」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기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공문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으로만 쓴다는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거의 동시에 국문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된 것은 과거제의 폐지였다(1894.7). 조선 왕조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장치인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더 나아가 조선의 학문과 교육, 사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한 것은 과거제도였다. 과거제의 폐지는 나라 운영을 유교적 원칙에 따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기를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 신식 학교도 이때 설립되었다.

“지난 갑오년에 과거제도를 폐지한 뒤러 한문의 명성과 위세가 점차 줄어들어 배우는 이가 더물뿐더러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교육법을 행하니... 한문의 쇠잔은 면하기 어렵고 국문은 공사간에 자주 쓰니 점진적으로 더 쓰일 운을 만났다.”(주 시경, 『국어문법』, ‘서’, 1910년)

여기서 과거제도는 형식으로 보면 한문으로 읽고 쓰기이고 내용으로 보면 차이나 문학, 역사,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모두 중화사상을 담고 있다. 한문으로 된 유교 고전 공부는 과거제도를 거쳐 지배층이 되는 길이기도 했는데, 이런 제도는 한문공부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게 만들었다. 몇몇 사람의 빼어난 지식인을 빼면, 대부분의 인민이 글도 못 읽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은 값어치가 없었다. 일본에 비겨도 우리 기록문화 유산은 너무 가난하다. ‘나는 조선 사람이므로 즐겨 조선의 시를 쓰겠노라’고 선언했던 정 약용마저도 우리글로 쓸 줄 몰랐다. 한문 숭상의 수렁은 이다지도 깊었다. 한문 숭상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길을 미리 닦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근대적 관리 등용을 위해 고종 31년 7월 12일에 군국기무처에서 의안을 올려 재가를 받은 선거제도와 전고국(銓考局) 조례가 마련되었다. 시험 과목은 국문·한문·사자(寫字)·산술·내국정(內國政)·외국사(外國事)였다. 비로소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국문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은 그 답안도 국문으로 작성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문은 이후로도 겨레의 독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한글로만 쓸 뿐 아니라 한자 한문 숭상하는 관습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를 보여 주려하였다. 한문 숭상하는 폐습을 비판 공격하기도 했다.

“각국에서는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오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이라...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으로 쓴 건 조선 인민이 도로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하지 아니 하리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어문 민족주의는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²⁾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이전에 중화주의적 질서로부터 독립이 필요하였다. 본디 뜻으로 ‘독립’은 유교적 사대의 부정이었고 한문 버리기였다. 1895년 1월 7일(양력) 독립을 종묘에 서고하였다. 이 서고문은 곧 순국문으로도 반포되었다. 언어에서 ‘독립’은 일단 『독립신문』에서 성취되었고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으로 이어졌다. 『황성신문』(1898.9.5)은 ‘기자가 남긴 문자’ ‘세종이 지은 문자’를 함께 쓰고 말았다. 완고한 말글 의식이 변화에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한글로만 쓰기는 10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한글문화를 짓누르던 사대-모화의 실상을 바로 보는 데서 근대적 국어 연구는 출발해야 하며 이는 곧 독립과 연결된다. 왜 빼어난 한글을 두고도 500년이나 되는 시간을 되돌아보지 못했는가 국어 연구의 큰 물음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식인들은 한문의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한자 폐지 논란에서 중화주의에 억눌린 한글 문화를 바로 보아야 우리말글이 걸어온 오랜 수난의 역사와 우리 말글 의식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엮신여기는 생각의 역사적 연원이 얼마나 깊은가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글 창제에서 상형설, 옛 전자 모방설이 나온 것도 한글이 한자와 같은 상형이란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내세우거나 중국 문화와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한글의 탄생을 정당화하려는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글 낱자는 형식적 부호로서 모든 의미를 빼버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최소한의 소릿값인데 이것이 결코 상형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소쉬르의 보기를 들면 낱자와 그것이 지시하는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즉 자의적이다. 한글 낱자 ㄱ, ㄴ과 그것이 지시하는 소리와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는 곧 상형이나 모방을 배제한다. 그 글자의 가치는 순전히 부정적이고 차이적이며 체계 안에서 서로 대립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훈민정음』에 ‘상형’이나 ‘자방고전(字倣古篆)’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기원이나 제자 원리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제까지 여기에 나타난 주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 원리를 새롭게 이해하려면 알파벳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당시 지식인의 유학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적인 기호의 집합인 알파벳 일반이 갖는 특성으로 미루어 낱글자는 상형대상을 나타내는

2) 최 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책과 함께, 102쪽.

이미지의 의미를 완전히 떠나야 하고 처음 글자꼴에서 극단적으로 추상화하여야 한다. 알파벳의 낱글자에도 이미지의 자취는 있다. 로마자 A는 소의 머리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파생되었다. 그렇지만 그 기호는 이미지나 대상이 아니라 소리 자체만을 가리켜야 한다. 한자 “毛”가 일본 가나 も로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의미가 사라지고 소리는 그대로 남고 글자꼴에서도 많은 연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자꼴의 이런 연속성을 무시해야 낱소리글자가 될 수 있다. 즉 이미지의 자취는 있지만 소리만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다. 이런 추상과정은 정신의 창조적 힘을 보여준다. 한자 만드는 기본원리인 상형은 도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상과 글자꼴, 즉 기의와 기표의 유사성이 본질적이고 의미를 떠나지 않는다. 소리글자가 소리글자인 까닭은 글자꼴과 대상 사이의 이미지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데, 즉 상형이 아닌 데 있다. 이러한 단절에 필요한 것은 ‘상형’이 아니라 추상이다. 한글과 한자를 만든 원리가 똑같이 상형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상형’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바로 한글을 만든 원리도 한자 만든 원리와 같다고 주장하려는 데 있다. 모회사 상에 젖어 있던 유학자들을 달랬던 것이다. ‘글자는 옛 전서를 본뵈었다’는 주장도 비판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도 없거니와 전서의 자취가 남아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중국과의 연관을 내세워 한글로 우리가 오랑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말글의 현실이 중국과 다름을 내세우고, 「어제서문」이나 「정인지 서」에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 거듭 나타나는 데 한글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박한 동기에서 나온 변호이다. ‘나날이 씬에 편하게 할 따름이다’는 세종의 말에서도 한글 창제가 중화질서로부터 이탈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

표어문자인 한자와 알파벳은 출발점은 그림문자로서 같았지만 발전방향이 합성(결합)과 분해(석)로서 서로 반대된다. 한자는 상형과 지사로 만든 기본글자를 회의나 형성으로 합성하여 새 글자를 만들었다. 알파벳은 분해(석)하여 원소를 찾았다. 그리스말 “stoicheion”은 알파벳의 낱자를 가리키면서 자연계의 원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글은 일단 원소를 찾고 이 원소들로부터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성하여 새로 만들어진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제자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송학이론을 응용한 문자론으로 일관했다'고 보게 된다.(강 신항, 『훈민정음 연구』 2008, 18쪽) 『훈민정음』이 ‘상형’과 ‘고전 모방’, 이에 덧붙여진 음양, 오행 등이 새 글자의 태어남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만리와 같은 정통 유학자들이 한글창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 글자를 쓸모없다고 여긴 것도 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유학으로 한글의 태어남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학을 근거

3) 초기에 나타났던 한글 예찬은 19세기에 나타나는 선교사의 한글 예찬과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

로 한글창제에 중화문화에서 벗어나 오랑캐와 같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한 셈이다.

사대주의와 봉건주의의 감감한 어둠 속에서 한글사랑을 깨친 이들이 햇불을 들어 겨레문화의 앞길을 훤히 밝혔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한자에 찌든 생각은 검질기게 살아남아 겨레문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유교 경전의 내용은 크게 보아 중화사상이고 지배 계급의 통치 철학이자 처세론이다. 글자 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는 소수 지배 계급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된다.

2.2. 1945년—분열과 파쟁의 시작

이후 남쪽에서 한자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있다. 1945년 이후 국어학계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풀려난 지사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급한 과제에 응하면서 국어학계도 조선어학회 중심의 민족주의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미 국어학계 안에서 잠재해 있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었다. 46년 7월 서울대학교 교수에 경성제대 조선어 문학과 출신이 교수진으로 들어가자 잠시 협력적 관계였던 조선어학회 출신과 경성제대 출신 ‘과학적’ 국어학자 사이의 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했다. ‘과학적’ 국어학자들은 조선어학회의 민족주의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다.⁴⁾ 그 뒤로 조선어학회 전통은 소수파로 몰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1945년 이후 한자 폐지 논란은 일제 강점기의 언어 민족주의 비판이었다.⁵⁾ ‘과학적’ 국어학을 받드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글이 빼어난 성취라면 배타적 민족주의라면서 이를 과장된 주장으로 보기도 한다.⁶⁾ 우리를 보던 서양인들의 눈이 한없이 부정적이었던 시절에도 조선글 예찬만은 처음부터 뚜렷하였다. 한글 예찬은 1830년대 귀츨라프 선교사의 관찰에서부터 나타났는데 『한성주보』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견해는 제법 대중화된 것처럼 보인다.

“서양 사람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조선에 그 나라 글자(邦文)가 있는데 동양 각국의 글자 가운데 가장 간편하다. 만약 조선의 선비와 일반 백성이 그 나라의 글자를 이용하여 모두 그 편의함을 채득한다면 정치와 학문이 틀림없이 동양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⁷⁾

한자 중심의 말글 의식에 젖지 않은 서양인은 한글의 위대함을 보기가 무척 쉬웠

4) 이 준식(2014), 「언어 민족주의와 ‘과학적’ 국어학의 대립」, 347-348쪽. 최 경봉은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에서 경성제대 출신인 이 회승과 이 승녕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자리잡으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는 어문 민족주의적 국어연구와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401쪽)고 표현했다.

5) 이 준식(2014), 「언어 민족주의와 ‘과학적’ 국어학의 대립」, 330쪽.

6) 최 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28쪽, 67쪽, 328쪽.

7) 「논학정」, 1886년 2월 15일.

다. 이제 국어학자들도 한글 예찬에 동참해야 하리라 본다. 과학적 국어학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이 승녕의 글을 보자.

“나는 국어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글학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믿었다. 철자법을 가지고 ‘ㅌ’ 받침이나 ‘ㄷ’ 받침이나를 따지는 것이 학문일 수 없다고 보았고, 국어학은 언어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산길을 걷노라면』, 휘문출판사, 1971, 36쪽.)

경성제대 관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주시경 학파를 어떻게 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또한 ‘과학적’ 국어학이 민족주의적 국어학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말해주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국어학자와 한글학자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자와 언어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다. 한글은 국어학이나 언어학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왜 이런 편견이 사로잡힌 것일까. 우선 경성제대에 소개된 소쉬르의 단편적인 발언에 근거하여, 언어학은 문자를 다루지 않는다고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가 남긴 실천적 과제를 외면하면서 외래 이론을 절대시한 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 외 소쉬르가 제안한 여러 이분법적 도식도 있다. 소쉬르가 내적-외적 언어학을 구별한 것은 언어학의 대상을 내적인 것에 한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얼마나 외적 요인에 강력하게 좌우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⁸⁾

1996년 소쉬르 고택에서 발견된 「언어의 이중 본질에 관하여」에 따르면 공시태와 통시태, 랑그와 빠롤, 기표와 기의의 구별도 이분법이 아니라 이중성(duality)의 문제였다. 그 이분법은 방법론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학은 사실의 학문이 아니라 관점의 학문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⁹⁾

2.3. 반성 없는 ‘과학적’ 국어학

한글 전용이 이루어진 지금도 ‘과학적’ 국어학은 말글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아직도 주 시경 이래의 말글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경성제대 ‘과학적’ 국어학의 관점은 되풀이되고 있다. 최 경봉 님 지은 『한글 민주주의』(책과 함께 2012),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일조각, 2016), 『우리말의 탄생 2판—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책과 함께, 2019) 등이 바로 그런 책이다. 겉보기에 우리 말글 사랑을 말할 것 같은데도 내용에서는 ‘과학적’ 국어학의 관점이 선명하다. 한글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해쳤다면, 한글 우수성에도 물음표를 던지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8) 가라타니 고진(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184-187쪽.

9) 최 용호(2017), 『소쉬르는 이렇게 말했다』(28쪽, 114-119쪽). ‘과학’으로 되어 있는 번역문을 ‘학문’으로 바꾸었다.

습관적으로 되새기고 있다면서 마치 그 의미가 퇴색한 양 말을 하고 있다(220, 260 쪽). 한글날을 국경일로 되돌려놓았지만 말글 정책에 정부가 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도 한글에 관심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계보』는 근대 국어학사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적’ 국어학이 승리하는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탄생』은 사전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만들면서 식민지 지배자들의 눈치를 봐 가면서 만든 고초는 건너뛰면서 ‘역사의 아이러니, 교조화된 민족주의, 결벽증적 도덕성의 억압, 역사상 가장 과행적인 국어 순화 운동(45쪽, 338쪽, 358쪽, 432쪽)’ 등의 표현이 보인다.

경성제대에 소개되어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국어학계를 석권한 ‘과학적’ 국어학이란 무엇인가.

말글 연구에서 ‘과학적’인 것의 특성은 무엇인가? 주로 민족주의적과 대비되어 가치 판단을 배척하고, 실천적 규범 정립 문제와 무관한 이론적 연구를 가리켜다. 이런 학문은 19세기 말 독일의 라이프찌히 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역사비교 언어학이었다. 그 뒤에 구조주의가 소개되자 이 둘을 합쳐 ‘과학적’ 국어학으로 식민지 조선에 알려졌다.¹⁰⁾ 오구라와 고바야시가 경성제대에 소개하였다. 이 두 언어학은 매우 다르다.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다. ‘과학적’ 국어학이란 이름으로 묶일 수 없다. 역사비교 언어학에서 언어학이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이라고 강조한 사람은 뮐러와 슬라이허다. 경험주의 철학 전통에 속하는데 당시 위세를 떨치던 자연과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구조주의는 이성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79년 라이프찌히 대학(역사비교 언어학의 중심) 학생 소쉬르가 쓴 「인도 유럽어의 원시 모습 체계에 관한 논고」는 50년이나 지나서 선구적 업적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라이프찌히 대학 교수들은 무시해 버렸다. 소쉬르의 연구가 “당시 학문의 실증주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공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¹¹⁾ 구조주의 언어학은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는 있지만 실증주의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변방의 나라에서 외국 학문을 들여올 때 이런 오해는 자주 일어난다. 일본에서는 이런 오해와 착오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때 유행했던 실증주의적 언어학은 소쉬르가 극복한 학문이다. 경성제대에서 이런 언어학을 배운 이 희승은 언어는 자연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언어의 생멸소장은 자연의 이법에 의하여 되는 것이요, 결코 인위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다.”¹²⁾라고 했다. 이 희승에게도 역사 비교 언어학은 소쉬르 언어학은 결합하여 나타난다.

“조선어학 연구는 일반어학의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질없이

10) 최 경봉,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282쪽.

11) 최 용호(2017), 『소쉬르는 이렇게 말했다』, 세창출판사, 85-86쪽.

12) 이 희승(1947), 『조선어학 논고』, 을유문화사, 104쪽.

조선어 자체만 천착한다면 결국 정저소천의 망단에 빠지는 일이 많을 것이다.”¹³⁾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학이 실증 과학이란 견해를 강렬히 부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언어과학이 자연 과학 예컨대 거의 물리학이라고 확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 확신이 심오한 착각이라는 점을 증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논의가 완전 끝났음을 그것도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일반 언어학 노트』, 1891년 11월, 쥘레브 대학 1차 강연. 김 현권 외 옮김, 인간사랑, 2007, 204-205쪽)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이 송녕에게 이런 오해는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늘 ‘과학적 정신(esprit scientifique)’(『현대국어학의 개척자 이 송녕』, 태학사, 2008, 9쪽)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가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이었다. 소쉬르는 언어학의 자연과학적 모델을 뒤엎었는데 소쉬르에서 ‘과학적 정신’이란 표현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성제대파가 생각한 ‘과학적’-민족주의적 이분법적 대립이 성립하지도 않는다. 한글로만 쓰기를 이끈 요인은 민족주의적 열정 못지않게 한글의 대중성 실용성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로만 쓰기는 말글 하나 됨이자 지배 계급의 지식 독점을 깨뜨린 인민의 쾌거다. 한자 폐지는 으뜸가는 맞춤법 통일안이요 규범화다. 사전 엮기만큼 중요하다. 민주주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말글에서 성취한 것이고 분단된 상황에서는 남북의 말글 차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한글의 인민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면 한자 폐지 운동이 민족주의리라는 비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는 민중의 시대이요, 한글은 민중의 글자이다. 대중의 노동과 생산을 희생으로 하여, 소수의 독점 계급만이 배울 수 있는 봉건적 글자인 한자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고… 민주주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으며 배달겨레의 생명을 영구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⁴⁾

만약 분단과 남북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한글이 쉬운 민중의 글자요 인민의 글자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 문제를 가볍게 뛰어넘었을 것이다. ‘계급’이나 ‘인민’이 금기시되던 시대가 너무 오래 갔다. 식민지에서 ‘과학적’ 국어학은 싹이 텄고 분단 냉전체제는 싹이 자라기에 좋은 온상이었다. 또 ‘과학적’ 국어학은 경성제대 신화를 선전할 수밖에 없다. 경성제대는 “근대학문의 수용과 체계화에 결정적으로 기

13) 이 회승(1939), 「조선어학의 방법론서설」, 『한글』 71, 한글학회. (『탄생』, 1939, 325쪽에 다시 수록)

14) 최 현배(1946), 『글자의 혁명』, 7쪽.

여했고 이는 조선어학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¹⁵⁾고 하였다. 경제사학계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상시키는 주장이다. 식민지의 찌꺼기를 1945년 이후에도 그대로 물려받고 확산시켜 온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때에 경성제대를 예찬하고 있다. 주체적 관점에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면 우물 안 개구리를 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 전통을 부정하였다. 외국 이론을 우상화하며 모범과 표준을 외국에 두고 우리를 거기에 꿰맞추는 사대주의로 흘렀다. 우리 국어학은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의 우리 사상사와 문화사에 대한 주체적 자각에서 출발하여 학문적이고 엄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서구나 일본의 이론이 좋은 자극제 구실을 하였다. 그렇지만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가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었다. ‘보편성, 과학, 제국 대학’의 위엄 앞에 주 시경 학파는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경성제대 조선어학도 독일과 프랑스의 언어학의 아류였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서구 언어학이 들어왔고 그것을 한결같이 떠받든 것도 아니었다. ‘보편적’인 언어학 이론에 그 나름의 특수한 맥락이 언제나 있는 법이다. 무턱대고 추종은 금물이다. 조선어의 특수성에서 보편적 이론을 세우기도 가능하다. 일찍이 이 회승은 다음과 같이 경성제대에 소개된 언어학을 소개한 바 있다.

“자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외래어를 구축한다는 것은 철학자, 문호, 사상가, 정치가들의 할 운동이요 결코 언어를 연구 정리하는 과학자의 할 영분은 아니다”¹⁶⁾

그러나 최 현배는 이런 생각에 비판적이었다. 과학자도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시인이나 사상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새로운 학설에 대한 창안에서 과학자는 시인과 다르지 않다.

“이 회승 님이 이렇게 (말은 자연발생의 것이다. ... 한자말은 써도 좋지마는, 새말을 지어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말함을 수십 년 전 일제 시대에 듣고서 나는 그렇지 않음을 역설한 일이 있었더니, 어쩐 셈일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경성제대에 소개된 서구 언어학을 학교 바깥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비평까지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말다듬기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언어의 자연성 이론은 독일제다. 이것이 조선에서는 한자 폐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말다

15) 최 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328쪽.

16) 「신어납조 문제」, 『조선어학 논고』(1947)108쪽. 103-104쪽에서 이런 것은 ‘언어학적 지식’에 어두웠기 때문이라 보았다. 한 시대에 유행하던 외래 학문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7) 최 현배(1963), 『앞으나 서나 겨레 생각』, 189-190쪽. (본디 발표는 『신사조』, 1963년 7월.)

듣기가 언어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라는 주장을 낳았다. 말다듣기를 일반 언어학은 금지하고 있는가.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의 어떤 주장이 일반 언어학의 원리와 법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가.¹⁸⁾ 소쉬르가 다루지 않은 주제가 아닐까.

‘과학적’ 국어학의 추종자들은 이 회승을 미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94년에 이 회승이 시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면서 이 회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문 세영 사전에 대한 이 회승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사전 조작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오히려 미화하였다(『우리말의 탄생』, 240-246쪽, 310쪽). 이 회승을 민족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조선어학의 과학화라는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인’(『탄생』, 327쪽) 것으로 왜곡하였다. 그는 ‘과학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조선어학회에 부분적으로 동감하였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없었다. 형태주의 맞춤법이 ‘법칙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주 시경과 조선어학회 선언은 민족주의적이면서 과거의 인습에 대해 비판적 태도로써 오랜 중화주의적 억압과 식민지 폭압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다. ‘과학’을 내세워 식민지 질서에 순응하거나 봉건 이데올로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회승은 경성제대에서 일본 스승에게 배운 것만 교조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본을 본떠 국립국어원을 만들자고 했고 한글만 쓰기는 ‘민족 감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며 ‘일본을 보라’고 했다. 한자 쓰기와 교육은 민족의식과 관계없다며 ‘일제시대 교육’을 들었다. 끝까지 조선어학회 전통과 대결과 분열을 일삼았다. 남북 대결 의식에서 북녘의 말다듣기가 ‘언어 이질화’의 원인이라고 하였다.¹⁹⁾ 그러나 실은 남북 ‘언어 이질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회승 스스로가 한자 쓰기를 고집한 사실 그 자체에 있었다.

경성제대에 ‘과학적 국어학’이라 알려진 것을 일본에 소개된 근대적 언어학과 근본 정신에서 어긋난다.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도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겨났다. 유럽에서는 모두 알파벳을 쓰기에 글자가 언어학의 중심 주제가 될 이유가 없었다. 일본에 소개된 유럽 중심의 근대 언어학은 언어를 민족정신의 드러남으로 보고 표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선어학회와 공통점이 적지 않았다. 오구라 진페이는 근대 일본 언어학의 중심 우에다의 제자다. 우에다는 한자 폐지를 추진하였고 국어 표준화에 앞장섰다. 민족어는 거래의 정신적 혈액이라 보았다. 그 학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경성제대 출신들은 ‘조선어 애호를 제일로 삼아야’ 했다.²⁰⁾

18) 최 경봉의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407, 411쪽). 토씨 설정이 ‘비과학적’이며 ‘일반 언어학’에 어긋난다는 관점이 소개되어 있다. 씨가름은 실천적 목적(맞춤법 교육)에 비추어 그 적절성을 따질 수는 있어도 어느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일반 언어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19) 김 민수 외, 『북한의 어학 혁명』은 이러 관점을 전제하였다. 특히 4쪽, 34-35 382, 392쪽을 볼 것.

20) 가라타니 고진(2009), 『네이션과 미학』 196쪽. 경성제대 교수였던 도키에다의 발언.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금이 딱 부러지게 있지도 않다. 제국대학에서 가르친 건 과학이고 조선어학회 전통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종교·신앙, 최 경봉 『탄생』, 330-336쪽)라는 생각 자체가 무지와 편견의 산물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은 본고장의 언어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래 학문에 무턱대고 굴종하는 태도, 우리 말글에 대한 해묵은 멸시와 편견. 대립과 파쟁, 지성적 탐구가 갖는 복합적 성격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한 데 엉겨 굳은 신화다.

3. 북한은 한자 폐지를 어떻게 보는가

북녘의 한자 폐지는 처음부터 확고한 원칙이었다.

“한자 사용의 폐지—한자 사용의 폐지는 우리 민족어 발전과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 놓았다.”²¹⁾

“한자는 그 기원에서 다른 나라 글자이며 우리말을 적기에는 불합리한 글자이다. 우리 말을 표기하는 데 훌륭한 민족글자를 만들어 쓸 대신 한자를 빌어다 쓴 그 자체도 잘못이다. 그러나 15세기 훌륭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봉건 통치배들이 한문을 숭상하면서 한자를 쓴 것은 더욱더 잘못이다. 그러므로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글자 생활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문화어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다.”(159-160쪽)

한자 쓰기 폐지는 “인민들을 이중적인 글자생활에서 해방하고 글자생활을 대중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160쪽)

한자 폐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현실적 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한자를 대신하여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자모글자가 있고 그 글자로 글자생활을 하여온 경험이 있는 이상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글자만으로도 인민들의 글자 생활을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었다.”(162쪽)

한자 사용의 폐지는 인민들의 글자사용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며 문화어를 건설하는데 유리한 계기를 마련하여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보며²²⁾ “민족고유의 문자를 천시

이다. 민주주의처럼 민족주의도 여러 얼굴을 하고 있으니, 늘 어떤 맥락에서 누가 말하는 민족주의인가를 따져야 한다.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마저 민족주의라며 비난할 것인가. 학문이 얼마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 나와 다른 연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독선적인 이데올로기다. 중립적이라는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과학적’ 국어학은 중화주의, 봉건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탈역사적인 이데올로기다. 그들이 추구한 순수 학문 학문을 위한 학문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21) 최 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9쪽.

22) 최 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164쪽.

하고 한자를 숭상하면서 그것을 망탕 사용하는 사대주의는 사회생활에서 한자 사용을 폐지하여야만 서사생활을 비롯한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²³⁾ 고 했다.

북녘에서는 남녘의 영어 범람을 민족어 말살 정책, 민족어 이질화 책동으로 보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어말살정책을 짓부수고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립장에서 민족어의 순결성과 고유성을 지켜내고 민족의 중요한 공통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과 투쟁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⁴⁾(106쪽)

“근로 인민 대중을 이중적인 서사 생활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서사 생활을 대중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²⁵⁾(250쪽)

남녘에서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특히 언어 정화와 한자 폐지 정책이 극단적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국수주의를 경계하는 지식인들의 저항이 가장 두드러졌다.”²⁶⁾

“남한에서는 이후 실증주의 어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실증주의어문학자들이 학계에 뿌리를 내리면서 학교문법 문제와 관련하여 어문민족주의자와 실증주의자의 논쟁은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 국어학계가 남하보다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 원인은 어문민족주의와 길항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것은 식민지 적폐인 제국대학의 실증주의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팽개치고 대립과 파쟁을 일삼아 오던 세력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보인다. 민족주의를 우리가 것처럼 기피하고 버려야 할 이념일까. 천 년을 외세에 시달린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든 민족주의를 버리고 나라와 겨레의 정당한 자기 주장과 존재 근거할 수는 없어 보인다. 오늘날 남녘에서는 반민족주의 담론

23) 최 정후 외(2000) 지음, 『주체의 언어론 연구』, 사회과학원. 250쪽.

24) 남쪽에서 아메리카말 쓰기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압박은 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25) 이중적인 글쓰기 문제를 최 경봉은 ‘독자층을 고려한 선택’(『한글민주주의』 32쪽)이라 하였다. 이것은 한글만 쓰기가 주 시경의 생각이 아님을 말한다.

26) 최 경봉(2012),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326쪽.

27) 최 경봉(2012),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338쪽.

이 쏟아지고 있다. 그 한편은 친일파의 유산으로 남북 대결이 그 생명선이었던 세력이 퍼뜨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서유럽의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 없이 이 땅에서도 되풀이하는 하는 데서 나왔다.

1946년의 『우리말 도로찾기』에 대한 비판도 그렇다. 누천 년 동안 제대로 보살핀 적이 없었던 우리말과 글에 대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운동에 대해 옥의 티를 찾아내어 그러한 운동자체의 정당성을 ‘인위적’이라며 부인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인민의 관점에서는 ‘비행기’보다 ‘날틀’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외국어를 필요 이상으로 들여와 쓰는 것은 더 ‘인위적’이지 않을까. 우리말 도로 찾기가 지나친 보기로 ‘관점, 수속, 입구, 적자, 취소, 하숙’ 등을 들었다.²⁸⁾ 그러나 이런 보기는 일본어에서 대개 뜻으로 읽는 것들이다. 한자 중심의 완고한 어휘 의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민족주의적 국어학이 쉬운 글자로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막고 자주와 독립을 그 주관적 동기로 갖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인가. ‘과학적’ 국어학이야말로 비판과 부정의 차원을 잃어버린 순종과 예속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 오랜 한문 숭상의 폐습에도 침묵하고 식민지에서 언어를 잃어버릴 위기에도 입 닫고 지내다가 사대 모화 봉건지배와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일 때 이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²⁹⁾ 도대체 ‘과학적’ 국어학을 추구하는 실천적 동기는 무엇인가. ‘과학적’ 국어학 그자체가 목표라고 한다. 순수 학문으로서의 국어학, 학문으로서의 국어학이라고 한다.³⁰⁾ 여기에서 ‘순수’의 내용은 언어 정책적인 것, 언어 교육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는 실증주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실증주의도 실증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가치 판단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과학적·비과학적’ 도식은 가치와 의미 판단의 기준이다. 언어의 공식적 체계는 쓰여진 문헌 속에 보존된 이미 죽은 말이나 낡은 외국어를 해석하려는 실제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언어학의 세 분야로 분류되는 말본, 음운론, 의미론도 해석과 가르침이란 실천적 맥락 속에서 성립한다. 국어학에서 ‘학문을 위한 학문’, ‘순수’ 국어학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 함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학적’ 국어학을 추구했던 그들의 실천적 동기는 순수하지 않으며 주 시경 학파와 대결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관점을 ‘과학적이지 못하다면서 자신은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전제하는 소박한 태도를 보인다.

쉬운 글자야말로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었다. 쉬운 쓰기 체계가 없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난 적이 없다. 그리스에서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 생겨나지 사고방식의

28) 최 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103쪽.

29) 식민지 시절의 처절한 대학 유린에 누가 대학을 파수했다는 말인가. ‘대학가의 파수병’이란 우스꽝스런 표현이다.

30) 『이 승녕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186, 187쪽.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혁신을 가져왔다. 반면에 한자와 한문은 우민화의 훌륭한 도구였다.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 즉 한문 못 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줄 알고 이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무단이 병신이 됴이다.”(주 시경 쓴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1896.4.7))

한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도 할 수 없다. 한글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과학적’-민족주의적 이분법을 비켜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과 대결이 지배하던 시절에 ‘민중’이나 ‘계급’이니 하는 표현 삼았기 때문에 한글 사랑 운동은 비과학적 이데올로기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과학적’ 국어학을 따르는 『한글민주주의』는 한글 민족주의를 한글 민주주의와 대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자를 쓰면 안 된다. 한글만 써야 한다. 외래어는 고유어로 바뀌야 한다. 한글 표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정신과 가치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7쪽)

“언어의 속성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문 민족주의 원칙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문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찬란했음에도 오늘날 이를 제고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17쪽)

한글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한글 민족주의와 한글 민주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은 허구다. 말과 글은 언제나 정신의 문제였다. 민족주의적 언어관이나 주체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인습을 그대로 긍정하는 경향도 순응과 복종으로 흐르기 쉬운 실증주의적 태도의 표현일 것이다. 한글 운동이 우리말의 순수성만을 절대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운동에 현실적 제약도 많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제대로 된 한글 전용 정책이 시행된 적도 없다. 이런 현실에 맹목적인 민족주의 경계와 무비판적인 현실 긍정은 더더욱 길이 아니다.

말글 민족주의는 겨레의 정당한 자기주장으로서 갑오개혁 이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구한 말 신문에는 한문망국론이 널리 번져 있었다. 주 시경은 「국문론」에서 (1897.4.24.)에서 나라의 힘이 약해진 원인을 한문 숭상(‘이림으로 백성이 무시하고 가난하여져서 자연히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해지니 어찌 이보다 더 큰 폐와 해가 있으리오’)에서 찾았다. 그 뒤로도 이런 주장은 구한 말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대한매일신보』(1907.5.23.)는 그대표적인 논설이다.

“무슨 연고로 오늘날에 (조선이) 나라 권세를 온전히 잃고 사람의 권리가 전혀 없어져

무궁히 비참한경우에 빠졌느뇨. 그 원인을 의론컨대 자래로 한국인이 편리한 국문은 버리고 편리지 못한 한문을 숭상하는 폐막으로 말미암음이라”

『황성신문』마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승(文勝)의 폐해를 통론」하였다.(1910. 6.28, 6.30, 7.6).

말글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눌러온 억눌려 온 민중주의 한글문화가 물위로 떠오른 것이지 주 시경 학파의 민족주의에만 그 연원이 있지 않다. 주 시경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두 본국말을 먼저 배우는데 조선은 남의 나라 글자만을 배우는 기이한 관습에 대한 자각이 싹텄다. 이 운동을 단순히 민족주의라 본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했다.

4. 맺음말—쉬운 글자, 쉬운 말로 돌아가자

한글은 쉬운 인민의 글자다. 날마다 편리하게 쓰는 도구를 넘어 민주주의, 자주 독립의 상징이자 남북 하나 됨의 상징이다. 남북이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으로 달라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우리의 국어 연구는 우리를 짓누르던 중화주의의 무게와 그를 뒷받침하던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와 글쓰기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제와 조선의 교육 제도 이해시 필요하다, 훌륭한 알파벳을 두고도 500년을 외면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³¹⁾ 한자 폐지를 우리는 우리말과 글자 역사에서 큰 시대적 변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랜 중화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의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큰 사건이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완성이며 우리말의 있는 방식을 바꾸어 말글 하나 되기의 큰 길을 마련하였다. 사대·모화로 얼룩지고 식민지배로 소멸의 위기를 겪은 우리말과 글은 분단 시대를 맞아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됨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는 상하귀천이 하나 되는 쉬운 글자, 쉬운 말을 쓰는 데 있다. 상하귀천을 하나로 묶어주던 쉬운 글자, 쉬운 말은 이제 남북 거래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현실은 바로잡혀야 한다. 그들은 내적-외적 언어학, 통시대-공시대, 과학-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언어-글자, 보편-특수, 이론-실천, 순수-응용 이분법을 전제하고 이를 무기로 주 시경 학파를 공격하였다. 모두 방법론적인 장치 또는 편의상 구별이지 실제적인 구별이 아니다. 외래 학문만 받들고 우리 전통은 일본 데서 나온 생각이다. 또 체제의 우월감과 냉전 의식에서 나오는 북녘의 언어 정책에 대한 온갖 편견은 청산되어

31)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사용의 당위성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다른 문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부추기며 오해와 편견을 낳기’ 쉽다고 하였다. 최 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218쪽.

야 한다. 한자 폐지에도 반대하며 경성제대를 그대로 이어가던 세력이 남북 언어 이질화를 걱정하며 북녘의 어학 혁명이 이질화의 원인인 양 말하기도 했다.(『북한의 어학혁명』, 김 민수 외, 1989. 4, 382, 386쪽을 볼 것.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한자 폐지가 앞서야」, 1989.7, 『한글새소식』 203호, 『한글철학』 49-53쪽에 다시 수록.) 남녘에서도 공공영역에서 한자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아메리카말 줄이기, 말다듬기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학계와 정부가 식민지 ‘유산’인 ‘과학적’ 국어학의 폐기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말글 정책도 실질적 내용이 있는 한글 전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364일을 영어날로 지내다가 한글날에만 경축식만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부에서 달라진 남북의 언어 규범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의 말글 차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한자 폐지를 전제하고 말다듬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말다듬기의 주요 성격은 쉬운 말 쓰기라고 할 수 있다.³²⁾ 이 점에서 북녘의 여러 노력이 돋보인다. 북녘에서의 한글 사랑 운동은 남녘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북녘의 노력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해 보인다. 남녘에서 여러 전문 분야에서 쉬운 말 쓰기 운동을 생각할 수 있다. 쉬운 법을 문장 쓰기에서 큰 여론의 지지를 얻었으며, 독립 선언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서」를 쉬운 말로 풀어쓰기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가 나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한 완상)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1919년 당시의 3·1독립선언서를 국민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서술한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는 초·중·고등 각급 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돼 3·1운동의 의미를 공유·확산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그 어렵던 독립선언서가 아주 쉽게 바뀌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데서 보듯 쉬운 말로 풀어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려운 한자 어휘를 버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풀어쓰기는 독립 선언서의 글월이 독립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정치적 독립보다 말글 독립에 대한 자각은 그 깨어남이 훨씬 더디었다.³³⁾

32) 김 영환(1989), 「쉬운 말이란 무엇인가」, 『한글새소식』 199호. (『한글철학』, 345-349쪽에 다시 실음)

33) 한편 위원회는 3·1독립선언서에 이어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조선혁

이런 작업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자 문화의 폐해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보여 준다. 한자 쓰기를 폐기하고 이런 쉬운 말 만들기에 꾸준히 애써 온 북녘에서는 쉽고 친근한 토박이말이 남쪽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남과 북의 말다듬기는 모두 어려운 한자말·서양 외래말을 쉬운 토박이말로 풀어내었는데, 서로 같거나 아주 비슷한 말이 많다. “첨가하다, 침수하다, 집요하다”들은 “덧붙이다, 물에 잠기다, 끈덕지다”로 바꾼 것과 같다. “날조하다”를 “가짜만들다”(남)나 “꾸며대다”(북)로 바꾸고, “촉박하다”를 “닥치다”(남)나 “몹시 급하다”(북)로 바꾼들 이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쉬운 말로 바꾸기를 넘어 쉬운 말을 적극적으로 지어 쓰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쉬운 말을 많이 만들면 남북의 말글 달라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쉬운 말 쓰기는 쉬운 글자 쓰기 또한 전제한다. 남북의 말글 하나 됨을 말 하면서 한자 폐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다. 한자는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을 갈라놓는 분열과 독점의 문자였으며 분단 시기에는 또한 남북 분단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남북의 말글 하나 됨에는 쉬운 글자, 쉬운 말 쓰기가 전제 조건이다. 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현란한 이론의 장막은 걷혀야 한다. 남북의 말글 하나 됨을 위해선 남녘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글은 단순히 ‘말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말을 담는 기계’임을 주 시경은 말한 바 있다. 남녘에서 이미 아메리카말 숭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남과 북의 말과 글이 달라지는 으뜸가는 원인이 된다. 진보—보수, 늙은이—젊은이, 남—여 구별 없이 아무 문제없는 양 아메리카말 숭배는 점점 한문 숭배를 닮아가고 있다. 한글 사랑이나 우리말 사랑은 옛날 일이 되고 있다. 또 각종 반민족주의 담론이 번져 있는데다가 북쪽에 대한 체제 우월감마저 끼어들어 북녘의 우리말 사랑에 대해서도 인정하기에 인색하다. 정말 우리 말과 글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일까. 우리 말과 글을 알아보는 것으로 자랑으로 아는 이 폐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한글이 본래 타고 난 사명은 끔찍이 거룩하되, 그 타고 난 운명인즉 그라 평탄치 못 한지라, 지난 반천 년 동안에, 혹은 가시밭을 헤치고, 혹은 태령을 넘고, 혹은 절벽을 뛰어 내림이 무릇 몇 번이런가.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다 그 가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는 준비의 과정이니, 그 과정이 저렇듯 오래였고, 그 사명이 저렇듯 단단하였음은 곧 그 사명이 특히 멀고 큰 때문이다.” (최 현배, 『글자의 혁명』, 1946, 6쪽.)

명선언 풀어쓰기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문헌〉

- 가라타니 고진(2009), 『네이션과 미학』(조 영일 옮김), 도서출판b.
- 강 신항(2008),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 민수(1989), 『북한의 어학 혁명』. 백의.
- 김 영환(2009), 「유학적 모화에 다른 동문 방언 의식에 관하여」, 『한글』 284. 한글학회.
- 김 영환(2012), 『한글철학』. 한국학술정보.
- 김 영환(1996), 『조선어학사 연구』(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박이정.
- 이 준식(2014), 「언어 민족주의와 ‘과학적’ 국어학의 대립」, 『한국근현대인문학의 제도화』
(신 주백 엮음). 해안.
- 이 현희 외(2014) 『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 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 이 희승(1947),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 최 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책과 함께.
- 최 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 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2판). 책과함께.
- 최 용호(2017), 『소쉬르는 이렇게 말했다』. 세창출판사.
- 최 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 최 정후, 이 채수(1999), 『주체적 언어이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최 현배(1946), 『글자의 혁명』. 정음사.
- 최 현배(1999), 『앞으나 서나 겨레 생각』. 한글학회.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엮음, 『이 승녕, 현대 국어학의 개척자』. 태학사.

제4부

남북 통합 맞춤법 준비를 위한 전제 조건 / 연 규동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과 과제 / 한 용운

남북의 표기 차이에 관하여—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 고 대영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4부

남북 통합 맞춤법 준비를 위한 전제 조건

연 규동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yurn@yonsei.ac.kr

1. 머리말

이 글은 언제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남북 맞춤법을 위한 것이다. 남과 북의 맞춤법은 현재 각각 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모두 1933년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반한 것이다. 제정 당시 사용된 ‘통일안’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의미와는 다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남북 맞춤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남북의 표기 규범 관련 연구는 그동안 매우 여러 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남북 맞춤법의 차이를 소개하거나 차이점을 일치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제시되는 여러 대안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서 조항에 따라 남북 어느 한쪽의 규정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남북의 표기를 둘 다 인정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남북 맞춤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 외에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잉여적인 조항이 들어있는 까닭은 맞춤법이 제정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933년 제

정 당시에는 맞춤법이 언어 교육, 문법 교육까지 담당해야 했던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맞춤법은 문자 교육에 사용되기도 했고 한국어 표기법의 정형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표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서의 역할도 했어야 했고,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간단한 교재의 구실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의 역할도 일부 맡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논의에서처럼 특정 규정의 본질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보다는 남북 맞춤법의 여러 조항 중에서 명료하지 않거나 자기 충족적이지 않은 것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맞춤법 통합 과정에 또 다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차이점을 일치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맞춤법의 여러 조항이 먼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문자의 속성과 표기법

2.1. 문자의 표음성과 표기법

표음문자는 원칙적으로 문자 기호 하나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의 음소 각각을 어떤 글자로 표기할 것인지만 정해 두면 표음문자의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된다.

한글맞춤법은 표음문자인 한글에 기반한 표기법이므로, 단순한 원리만으로 충분하다. 기본 원리만을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만을 보충하여 주면 된다. 이를테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외래어 표기법”에서 주된 부분은 제2장 표기 일람표인데, 이 일람표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의 대조표’, ‘세스와 나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등과 같이 여러 언어의 낱자가 표상하는 소리가 한글의 어떤 글자와 대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어를 외래어로 표기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또한 한국어 모음 및 자음을 로마자로 대응시킨 제2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맞춤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식의 대조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대조표는 한국어 음소 [k]는 한글 ‘ㄱ’으로 적고 음소 [a]는 한글 ‘ㅏ’로 적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제음성기호	한글	국제음성기호	한글
k	ㄱ	a	ㅏ
k ^h	ㅋ	e	ㅓ
k ^ʷ	ㄲ	i	ㅣ
...		...	

외국인이 한글을 배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맨처음에 이러한 대조표를 습득해야 한다. 다만 실용적으로는 ‘국제음성기호’ 대신에 외국인의 모국어 자모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사용된 모국어의 자모는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 음소와 표상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음소와 한글이 대응한다.

국제음성기호 대신에 한글을 음성기호로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조표가 되어, 한국어 음소 [ㄱ]은 한글 ‘ㄱ’으로 적고 음소 [ㅏ]는 한글 ‘ㅏ’로 적는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발음	한글	발음	한글
[ㄱ]	ㄱ	[ㅏ]	ㅏ
[ㅋ]	ㅋ	[ㅓ]	ㅓ
[ㄴ]	ㄴ	[ㅣ]	ㅣ
...		...	

이러한 대조표는 언어와 문자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 한글맞춤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한다.

(1) ㄱ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¹⁾

즉, 제1항의 ‘소리대로’에 담긴 정확한 뜻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이 결정되면 ‘한글 자모의 음가대로’ 표기하라는 것이다(연규동 1998:20~21; 2015: 52~53 참고).²⁾

2.1.1. 원소리 표기

그러므로 이러한 대조표만 주어진다면 또는 이러한 대조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전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은 불필요하다.

- 1) 이 글에서 사용한 남과 북의 맞춤법은 각각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와 『조선말규범집』(2010년)이며, 이를 ㄱ, ㄴ으로 약칭한다. ㄴ의 경우 표기법이나 띄어쓰기 등 모두 원문 그대로 제시한다. 아울러 남과 북 어느 한 쪽의 조항만을 보이는 경우는 각각 대응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ㄴ은 1933년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가리킨다.
- 2) 반면, 이에 대응되는 ㄴ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ㄴ 총칙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서 ‘소리나는대로’는 ㄱ과는 다르게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각 음소와 각 음절을 충실히 표기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문(1978: 119~120)에서는 이를 각각 ‘음소적 원리, 음절적 원리’라고 표현한다.

(2) ㄴㅅ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ㄹㅅ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ㄴㅅ 제5항의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와 유사하게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거센소리’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언어의 소리도 ‘뚜렷한 까닭 없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제5항은 예전에 ‘어깨, 오빠, 기쁘다’ 등에서처럼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나는 단어를 ‘엇개, 읍바, 깃쁘다’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평음으로 분리해서 적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1933년 이전의 전통적인 된소리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미 그런 옛 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ㄴㅅ 제5항과 ㄹㅅ 제6항은 결과적으로 된소리 [kʰ](또는 [ɸ])는 된소리 글자 ‘ㄱ’으로 적겠다는 선언 이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한편 ㄹㅅ 제6항에는 받침 ‘ㄱ, ㄷ, ㅂ’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지 않겠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으며, 이는 ㄴㅅ 제5항의 [다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3) ㄴㅅ 제5항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표음문자에 기반한 표기법의 기능을 고려하면, ㄹㅅ 제6항이 함의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ㄴㅅ 제5항 [다만]이 더 합리적이다. ‘국수, 몹시’ 등과 같이 발음은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 글자로 적지 않겠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서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이 되어야 한다.

2.1.2. 모음 [ㅔ], [ㅚ] 표기

사회 방언이나 개인 방언에서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다른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표준 발음에 따라 적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ㄴㅅ 제8항과 제9항은 [ㅔ]와 [ㅚ]를 각각 ‘ㅔ’와 ‘ㅚ’로 적겠다는 매우 자명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4) ㄴㅅ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ㅔ’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ㅔ’로 적

는다.

- ㉡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이 조항들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ㄱ]는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와 같은 조항을 가정해 보면 명료해 진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해설서 등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즉, 한자어는 음절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겠다는 대원칙을 앞세우고(㉢ 제25항), ‘ㄱ’, ‘니’의 경우는 정해진 음절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5) ㉢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ㄱ>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 ㉢ 제27항 한자말에서 모음 <니>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회>, <의>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이를테면 ‘네, 데, 베/ 괴, 닐, 더’ 등의 한자음이 원래부터 없다면 굳이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한자음이 있지만 그렇게 적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어떻게 적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

2.1.3. 모음 [ㄱ] 표기

㉡ 제8항의 [다만]이나 ㉢ 제26항 [그러나]도 실질적으로는 모음 [ㄱ]는 ‘ㄱ’로 적겠다는 것뿐이므로 불필요하다. ‘본음대로’ 또는 ‘본래소리’라는 표현에 이미 조항이 의도하는 본질이 드러나 있다. ‘ㄱ’로 잘못 적히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 이는 해설서 등에서 처리할 문제일 뿐이다.

- (6) ㉡ 제8항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제26항 그러나 그 본래소리가 <계>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2.1.4. 조사 ‘요’ 표기

주로 종결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요]로 발음하는 한, ㉡ 제17항은 ‘소리대로’ 적으라는 규정으로 충분하다.

(7) ㉞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만약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리오’를 [으리오]로 발음하지만 ‘-으리요’가 아니라 ‘-으리오’로 적어야 한다면 이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거나 본말이 도치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1.5. 접미사 ‘-이’ 표기

㉞ 제51항, ㉞ 제24항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로 발음나는 것을 ‘-이’로 적고, [히]로 발음나는 것을 ‘-히’로 적겠는 것이므로 잉여적일 뿐이다. ㉞에서 이 조항이 ‘표준어’ 관련 부록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이 조항의 내용은 문자의 영역이 아니라 언어의 영역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㉞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 ‘-히’로 적는다.

㉞ 제24항 부사에서 뒤붙이 ≪이≫나 ≪히≫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나는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오히려 문제는 부사의 끝음절이 어떤 경우에 [이]로 소리 나고, 어떤 경우에 [히]로 나는지를 결정하는 일일 뿐이며, 이는 발음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㉞ 제51항의 내용은 ‘솔직히, 가만히, 쓸쓸히, 상당히’ 등과 같이 [이]로도 발음나고 [히]로도 발음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 단어들이 [히]로 발음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로도 발음된다면 이것을 발음과 달리 ‘히’로 적어야 되기 때문이다.

2.2. 발음법과 표기법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발음을 따르는 것이다. 발음이 정해지면 해당 발음에 정해진 자소에 따라 표기하면 될 일이다. 표준발음법이 따로 없었던 때에는 한글맞춤법이 발음하는 법을 다룰 수 있었겠지만, 이제 표준발음법이 정해진 현재로서는 굳이 표기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규정이 있다.

2.2.1. 모음 조화 표기

㉞ 제16항, ㉞ 제11항은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ㅏ/ㅑ’ 계 어미를 구분

하여 적겠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간 ‘막-, 잡-’은 어미 ‘-아’로, 어간 ‘떡-, 접-’은 어미 ‘-어’로 적는다.

(9) ㉞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㉟ 제11항 말줄기가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문제는 ‘막아, 잡아’의 발음이다. 이 단어들을 각각 [마게], [자베]가 아니라, [마가, 자바]라고 발음하는 것이 표준어로서 먼저 확정되면 제16항의 기술은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사실로서 잉여적이 된다. ㉟에서 이 조항이 ‘표준어’ 관련 부록에 수록되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3. 형태음소 원칙과 표기법

3.1.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

㉞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㉟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이란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기본형에 따라 적는다는 의미이다. 한국 어처럼 형태소가 결합할 때 다양하게 교체하는 경우에는 음소와 음절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형태음소를 밝혀 적게 된다.

(10) ㉞ 제1항 한글 맞춤법은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㉟ 총칙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

3.1.1. 조사 및 어미 표기

그러므로 이 같은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잉여적이다.

(11) ㉞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㉞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㉟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떠글], [머그니]에서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게 적게 되면 각각 ‘떡을’, ‘먹으니’와 같이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여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 제14항, 제15항은 체언과 용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정신은 동일한 규정이므로 ㉡ 제8항과 같이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 조항들 모두 ㉡ 제1항, ㉡ 총칙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세밀한 구분은 맞춤법 해설서나 문법 설명이 맡으면 된다.

다만 ㉡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은 제14항, 제15항을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토 업따를 ‘오토 업따’로 적는다고 해서 ‘오+또 업+따’와 같이 조사와 어미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제14항, 제15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웃도 없다’와 같이 적기 위해서는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의 규정이 더 필요하게 된다.³⁾

㉡ 제15항의 [붙임] 규정들 역시 의미에서는 잉여적이라는 사실이 조항 자체에 들어 있는 ‘원형을 밝히어’라는 표현에서 자족적으로 드러난다.

(12) ㉡ 제15항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제15항 [붙임1](1)에 제시한 예들인 ‘넘어지다, 일어나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등은 이미 제15항으로 표기할 수 있는 조항이며, “이것은 책이오”의 종결어미 ‘-오’가 [요]로 발음나더라도 ‘오’로 적겠다는 것은 해설에서 다룰 문제이다. “밥을 먹는다”의 ‘떡’이 [명]으로 발음나더라도 ‘떡’으로 적겠다는 내용과 전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먹이다”에서 연결어미 ‘이요’ 역시 이 연결어미의 원형을 밝히어 적겠다는 원리 외에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특히 [붙임 2]와 [붙임 3]의 내용은 ㉡에서 ‘표준어’ 관련 부록에 수록되었다.

3.1.2. 접사 및 합성어 표기

접미사, 접두사 및 합성어에 관련한 규정은 우선 ㉡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 조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3) ‘어법에 맞도록’이란 규정이 가진 중요성에 비하면 이 표현은 상당히 불명확하다. 조금 더 정밀하게 수정할 필요는 있다.

- (13)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⁴⁾
-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⁵⁾

이 조항들은 ㉡과는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내용	㉡	㉡
용언 어간 + 명사화 접미사 ‘-이, -음’, 부사화 접미사 ‘-이’	제19항	제23항 모음으로 된 뒤불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명사 + 접미사 ‘-이’	제20항	
용언 어간 + 모음 접미사	제22항	
‘-하다, -거리다’ 어근 + 명사화 접미사 ‘-이’	제23항	
‘-거리다’ 의태어 어근 + 동사화 접미사 ‘-이다’	제24항	
‘-하다’ 어근 + 부사화 접미사 ‘-이’	제25항	
접미사 ‘-없다’	제26항	제19항 자음으로 시작한 뒤불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사화 접미사 ‘-히’	제19항	
자음 접미사	제21항	
용언 어간 + 자음 접미사	제22항	

- 4) 제21항의 [다만] 규정의 일부는 독자적인 조항으로 성립해야 한다.

㉡ 제2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 제21항 《리, 려, 려, 려》 등의 둘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에 뒤불이가 어울릴 때에 그 둘받침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것은 안 나는대로 적는다.

- 5) 제27항의 [붙임 3] 규정은 독자적인 조항으로 성립해야 한다.

㉡ 제27항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하다’ 어근 + 부사화 접미사 ‘-히’	제25항	
접미사 ‘-하다’	제26항	
합성어 및 접미사가 붙은 말	제27항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는 명사나 용언 어간의 종류 및 접미사의 종류에 따라 규정을 세분하였지만, ㉢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반면, ㉡에서는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을 구분하지 않지만, ㉢에서는 이들을 각각 별개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역시 내용은 같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을 정리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항만으로 충분하다.

(14)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의 경우(㉢ 제23항)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의 경우(㉢ 제19항)

합성어 및 접두사의 경우(㉡ 제27항)

더 나아가 이러한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을 거스르지 않는 것들이다. ㉡ 제19항~제27항에 포함되어 있는 ‘원형을 밝히어’, ‘어간을 밝히어’, ‘어근을 밝히어’ 등 표현이 그 조항의 기본 의도가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 제14, 18, 19, 23항에 포함된 ‘본래형태를 밝혀’, ‘그 형태를 밝혀’ 등의 표현도 ㉢ 총칙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다르게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 제19항~제27항, ㉢ 제14, 18, 19, 23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잉여적이다.

하지만, 접사 및 합성어 관련 조항에 개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붙임] 규정은 형태음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된 특정 접미사가 아닌 경우는 원형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형태음소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 제1항 ‘어법에 맞도록’에 벗어나는 것이며 독립된 조항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15) ㉡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2항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25항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되어서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6) ㉠ 제19항 2)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 (1) 말뿌리에 <이>, <음> 이외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3.2. 어원 의식과 표기법

어떤 단어의 본뜻이나 어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가는 언중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며칠’을 관형사 ‘몇’과 관계를 맺게 하거나 ‘골병, 골탕’을 동사 ‘끓-’과 관련지을지 여부는 사람마다 수의적이다.

3.2.1. 어원에서 떨어진 용언 합성어 표기

이런 관점에서 ㉠ 제15항과 ㉠ 제9항은 표기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 (17) ㉠ 제15항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9항 오늘날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 적지 않는다. ...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뜻이 딴 단어로 바뀐 것은 그 말줄기와 토를 밝히지 않는다.

즉,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나타나다’ 등의 단어를 각각 ‘들어나다, 살아지다, 쓸어지다, 날아나다’와 관련 짓지 않는 언중에게는 이 조항들은 ㉠ 제1항, ㉠ 총칙만으로도 모두 표기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어원에서 설명할 것이지 표기법이 담당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항들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3.2.2. 어원에서 떨어진 접사 및 합성어 표기

또한 접사 및 합성어 관련 조항에 개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다만] 및 [붙임] 규정은 형태음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술로서, 어간이나 명사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겠다는 것이다.

(18) ㉡ 제19항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제22항 다만, ‘-아-, -하-,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27항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 제15항 합친말에서 오늘날 말뼉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제22항 말뼉리와 뒤불이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말뼉리와 뒤불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

㉡ 제15항, 제22항은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을 나눈 것이므로 앞서 ㉡ 제14항, 제18항이 ㉡ 제27항에 대응되는 것에 비견된다. 따라서 어원 의식과 관련된 ㉡ 제19항, 제21항, 제22항, 제27항의 [다만] 또는 [붙임] 조항과 ㉡ 제15항, 제22항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로 합칠 수 있다.

(20)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라도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2.3. 어원에서 떨어진 접미사 표기

㉡ 제54항은 ‘-꾼, -갈, -때기, -꿈치, -빼기, -찍다’와 같은 접미사들이 각각 ‘-군, -갈’ 등으로 잘못 표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생겨난 조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다.

(21) ㉡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4. 그 외

한자에 관련된 표기는 1933년에서 규정된 이후, 대폭 수정되어 왔다(연 규동 2014 ㄴ). 따라서 ㉡ 제52항에서 어떤 한자가 본음인지 속음인지를 아는 것 역시 표기법의 영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2) ㉡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다음과 같은 예 외에도 구별하여 적을 것들은 더 있다는 점에서 맞춤법 조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해설이나 설명서 등에서 다룰 문제이다.

- (23) ㉡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제56항 ‘-더라, -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5. 결론

지금까지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인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규정 중에는 잉여적이라 할지라도 규정 기술의 체재상 필요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룬 모든 조항이 반드시 정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좀 더 정밀하고 엄격한 논리성에 맞추어 한글맞춤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고에서와 다룬 논의들이 참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고 창운. 2000. 「남북한 통일 어문규정 시안 마련을 위한 모색」,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1~48쪽.
- 김 양진. 2003.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형태 규범(표기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어문규범과 그 통일 방안』. 국학자료원. 83~119쪽.
- 김 하수·연 규동. 2014. 『남과 북의 맞춤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 동근. 2006.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89~115쪽.
- 연 규동. 1998.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 연 규동. 2014ㄱ. 「한국어는 어떻게 문자로 표기되어 왔나」, 『동서양 문자의 성립과 규범화』. 한국문화사. 3~41쪽.
- 연 규동. 2014ㄴ. 「표기 규범과 문자—한자어의 표기 원리」, 한글 304. 한글학회. 5~40쪽.
- 연 규동. 2015. 「남과 북 공통 표기법의 조건」,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45~66쪽.
- 윤 금화. 2019. 한국 어문 규정과 조선말 규범의 비교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 기문. 1978.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전 수태. 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47~60쪽.

- 최 형용. 2001.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과 표기의 원리」, 한중인문학연구 26. 한중인문학회.
167~183쪽.
- 최 호철. 2012.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51~286쪽.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4부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과 과제

한 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hyw6710@hanmail.net

1. 머리말

남북의 우리 겨레는 사회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70여 년을 거의 교류 없이 지냈다. 그 결과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남북 어휘의 차이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어휘는 그 어휘가 사용되는 사회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흔히 ‘남북 언어 차이’, ‘남북 언어 이질화’ 등의 표현이 널리 쓰이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언어 면에서의 남북 차이는 ‘어휘’나 ‘표현 방식’의 차이에 국한된 것일 뿐, 남북의 언어 체계나 문법의 차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¹⁾

1) 이에 대한 북측 사전편찬가 정 순기(2006)의 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의 규범문법에서의 차이는 조선어의 문법구조자체에서의 차이인것이 아니라 문법적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서의 차이이며 따라서 그것은 북과 남의 언어이질화의 근거나 내용으로 될 수 없으며 동질적인 현상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분석과 해석이 가져다준 견해상의 차이이다. ...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여 문법 연구를 깊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규범문법 서술에서의 차이는 능히 극복될 것이다.”

남북 어휘 면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남과 북이 각기 제정한 어문규범이 개별 낱말에 적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광복 후 남측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표준어’를 규범어로 정했고, 북측에서는 평양 및 그 북부 지역의 말을 바탕으로 한 ‘문화어’를 규범어로 정했다. 이처럼 남북 각기 수도를 중심으로 표기법과 발음 규정을 제정하면서 남북 어휘에 차이가 생긴 것인데, ‘거머리(남)/거마리(북)’, ‘거위(남)/게사니(북)’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리고 남북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낱말의 뜻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녘에서 ‘동무’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 데 비해, 북녘에서는 이러한 뜻 외에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의 뜻으로도 널리 쓰인다. 이처럼 북녘에서는 언어를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여 낱말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기도 하였고, 체제·이념과 관련된 많은 새말(예: 군중가요, 혁명전우…)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북측에서 ‘노안→늙은눈’, ‘투피스→나넨옷’처럼 한자어나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하면서 남북 어휘에 차이가 발생한 예도 적지 않다.

한편, 남북 언어는 표현 방식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의 남녘에서는 상대방을 섬세하게 배려하여 ‘감사 표현’이나 ‘사과 표현’을 자주 하는 데 비해, 북녘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소극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남녘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표현을 접했을 때 ‘가식적이고 아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예로 ‘친구’라는 낱말의 경우, 남녘에서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만난 지 하루만에도 ‘친구’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지만, 북녘에서는 ‘오랫동안 친하게 사귄 벗’에 한해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남녘의 경우 가능한 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표현이 많고, 북녘의 경우 지나치게 배려하는 표현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남북 겨레가 만나 대화할 경우 남녘 사람은 북녘 사람을 ‘무례하다’고 오해할 수 있고, 북녘 사람은 남녘 사람을 ‘가식적이고 아첨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언어 차이는 크게 보아 ‘어휘’와 ‘표현 방식’ 면에서의 차이로 국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남북 어휘 차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남북 어휘 차이 극복을 위해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남북 어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남북에서 각기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 이하 『표대』)과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 이하 『조대』)의 올림말(표제어)을 비교하였다.²⁾

2) 이 두 사전은 남과 북의 정부 주도로 편찬한 사전이고, 올림말 또한 최대한 수록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2. 남북의 어휘

2.1. 얼마나 달라졌는가?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체계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분단 이후 여러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을 벌였고³⁾, 아울러 일제 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휘정화사업’⁴⁾도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어휘정리사업’은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전반에 걸쳐 인위적으로 변화를 꾀한 사업이었다.⁵⁾ 어휘정리사업의 결과물은 당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인민들에게 공표되었고, 『현대조선말사전』(1968)과 『조선문화어사전』(1973)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⁶⁾ 이러한 일련의 언어 정책들이 시행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와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휘를 변화시켜 남북의 어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남북의 어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대』와 『조대』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사전의 올림말 비교⁷⁾

- 3) 한자말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 2005: 79~85』에 따르면, ‘한자말과 외래어라고 하여 무턱대고 다 정리하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원칙을 철저히 세웠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예로, ‘지하투쟁’을 ‘땅속투쟁’으로, ‘중앙공업’을 ‘가운데공업’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분단 이후 새로 생긴 북측 낱말(『조대』에만 등재된 올림말)을 검토해 보면 전체(138,472개) 대비 39%가 한자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어려운 한자어를 정리한 것이지 모든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조선문화어건설이론 2005: 70~76』에 따르면, 어휘정화 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5)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에서는 ‘어휘정리사업’의 배경에 대해 ‘단어체계를 …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문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휘 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6) 『현대조선말사전』(1968)은 5만여 개의 올림말을 수록한 규범사전으로, 1960년대에 새로 선정한 문화어 3,300개가 수록되었다. 또한 『조선문화어사전』(1973)은 『현대조선말사전』(1968)을 보완한 사전으로, 67,480개의 올림말을 수록한 규범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1970년대 초까지 진행된 ‘어휘정리사업’의 결과가 대폭 반영되었다.
- 7)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를 냈다. 이 운영(2002)에 따르면 『표대』의 총 올림말 수는 509,076개로, 위 표의 수치와

출판 연도	『표대』(1999)	『조대 증보판』(2006)
① 올림말	506,276(북한어 66,460개 포함)	352,943
② 한 쪽 사전에만 있는 말	228,474개	138,472개

『표대』의 총 올림말 수는 506,276개인데, 이 중 ‘북한어’ 66,460개를 제외한, 439,816개의 올림말이 남측에서 쓰이는 단어이다. 439,816개의 올림말 가운데 남측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228,474개로, 전체 올림말 수(43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남북 사전의 올림말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북측에서는 52% 정도의 남측 단어를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대』의 총 올림말 수는 352,943개이다.⁸⁾ 이 가운데 북측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138,472개로, 전체 대비 39.2%에 이른다. 남북 사전의 올림말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남측 사람들은 39% 정도의 북측 단어를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대』와 『조대』에만 각기 등재된 올림말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표대』와 『조대』 어느 한쪽 사전에만 등재된 올림말의 유형별 분류

분류 \ 사전	『표대』에만		『조대』에만	
일반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	75,635		101,247	
	고유어	15,801	고유어	34,997
	한자어	35,309	한자어	35,284
	외래어	2,022	외래어	533
	혼종어 ⁹⁾	17,870	혼종어	28,506
	비규범어	4,633	비규범어	1,927
전문어 (전문분야에서 쓰이는 단어)	126,232		25,726	
	고유어	7,663	고유어	3,052
	한자어	75,810	한자어	12,783
	외래어	18,267	외래어	753
	혼종어	22,672	혼종어	9,138
	비규범어	1,820	비규범어	0
지역어	17,131		4,405	
글체			43(한자어 37)	
말체			625(한자어 83)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대상 자료의 통계 방식(다의어, 품사통용어의 통계 방식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 전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통계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표대』에는 ‘북한어’를 올림말로 등재하고 있는데, ‘북한어’는 ‘남측 단어’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남북 올림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8) 북측에서는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에 포함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남측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 수에서 제외하였다.

낱은말 ¹⁰⁾		5,813(한자어 5,783)
임시올림말 ¹¹⁾		170(한자어 60)
은어	454	
옛말(고어)	9,022	443
계	228,474	138,472

『표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17,035개이다.¹²⁾ 이 중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75,635개이다. 그리고 『조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71,860개이다. 이 중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는 101,247개이다.¹³⁾ 『표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1%가 『조대』의 일반어와 동일하고, 『조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7%가 『표대』의 일반어와 동일하다.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가운데 고유어는 34,997개로, 전체 일반어 총수 대비 34.6%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대』에 비해 고유어 비중이 14% 이상 높다. 이는 1946년 이후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및 ‘어휘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남측에 비해 ‘정책적으로 순화한 고유어’가 많아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에서보다 전문어에서의 차이가 더 심각하다. 분단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남북 전문가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언어 정책 면에서 남측은 외래 전문어에 대해 적극적인 순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반면 북측은 적극적으로 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대』와 『조대』의 전문어 영역과, 전문 영역별로 등재된 전문어 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표대』를 기준으로 한, 『표대』와 『조대』의 전문어 비교

	영역	『표대』	『조대』의 동일 올림말	백분율 (%) ¹⁴⁾	『표대』 에만
1	가톨릭	1403	297(일반어:294/그 외:3) ¹⁵⁾	21.168	1106
2	건설	4579	1,836(일반어:1,214/건설:536/그 외:86)	40.096	2743
3	경제	7880	1,309(일반어:729/경제:552/그 외:28)	16.611	6571

9) 이 글에서 혼종어(混種語, hybrid word)는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 등 ‘둘 이상의 언어권 단어(또는 형태소)가 결합한 복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북의 신어에서 혼종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이 글에서는 ‘혼종어’를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0) ‘낱은말’은 『조대』에만 있는 분류인데, ‘현대성을 잃고 이미 낡아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 부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11) 『조대』에서는 ‘비애프의 공식’, ‘서울에서 뽕맛고 안성고개 가서 주먹질한다’와 같은 ‘구(句)’나 ‘속담’을 수록하기 위해 고유명사 ‘비애프’, ‘안성고개’ 등을 올림말로 등재하였다. 이러한 올림말에는 뜻풀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임시올림말’로 명명하였다.

12) 『표대』에 수록된 ‘전문어’, ‘지역어’, ‘은어’, ‘고어’를 제외한 수치이다.

13) 『조대』에만 수록된 일반어가 더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표대』에서 전문어로 분류하고 있는 ‘정치 용어’, ‘동식물 용어’ 등을 『조대』에서는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고유명사	490	35(일반어:34/그 외:1)	7.1428	455
5	고적	2120	394(일반어:282/고고:99/그 외:13)	18.584	1726
6	공업	2275	698(일반어:386/금속:131/그 외:181)	30.681	1577
7	광업	2276	955(일반어:616/광업:119/그 외:220)	41.959	1321
8	교육	1263	395(일반어:385/그 외:10)	31.274	868
9	교통	965	201(일반어:138/운수:58/그 외:5)	20.829	764
10	군사	3940	1,570(일반어:1,545/그 외:25)	39.847	2370
11	기계	1371	410(일반어:183/기계:187/그 외:40)	29.905	961
12	기독교	1115	371(일반어:370/그 외:1)	33.273	744
13	논리	667	241(일반어:113/논리:91/그 외:37)	36.131	426
14	농업	2610	1,264(일반어:1,027/농학:116/그 외:121)	48.429	1346
15	동물	8781	2,997(일반어:2,771/생물:160/그 외:66)	34.130	5784
16	문학	3563	755(일반어:553/문학:138/그 외:64)	21.190	2808
17	물리	6480	2,579(일반어:1,006/물리:1,110/그 외: 463)	39.799	3901
18	미술	1186	500(일반어:313/미술:171/그 외:16)	42.158	686
19	민속	4634	2,219(일반어:2,203/그 외:16)	47.885	2415
20	법률	8956	2,345(일반어:1,815/법률:447/그 외:83)	26.183	6611
21	불교	9708	2,956(일반어:2,922/그 외:34)	30.449	6752
22	사회	2003	467(일반어:416/그 외:51)	23.315	1536
23	생물	3247	1,044(일반어:491/생물:360/그 외:193)	32.152	2203
24	수공	1526	583(일반어:454/방직:81/그 외:48)	38.204	943
25	수산	396	138(일반어:74/수산:59/그 외:5)	34.848	258
26	수학	3444	1,392(일반어:585/수학:770/그 외:37)	40.418	2052
27	식물	10028	5,030(일반어:4,634/생물:357/그 외:39)	50.159	4998
28	심리	1469	287(일반어:195/심리:45/그 외:47)	19.537	1182
29	약학	1163	437(일반어:192/약학:201/그 외:44)	37.575	726
30	언론	509	103(일반어:90/그 외:13)	20.235	406
31	언어	3223	1,111(일반어:583/언어:495/그 외:33)	34.470	2112
32	역사	19887	11,530(일반어:11,151/역사:351/그 외:28)	57.977	8357
33	연영	1369	494(일반어:273/영화:134/그 외:87)	36.084	875
34	예술	1006	299(일반어:223/무용:53/그 외:23)	29.721	707
35	운동오락	4017	1,112(일반어:845/체육:256/그 외:11)	27.682	2905
36	음악	6017	1,451(일반어:718/음악:718/그 외:15)	24.115	4566
37	의학	8523	3,234(일반어:1,626/의학:1,107/그 외:501)	37.944	5289
38	인명	10320	51(일반어:47/그 외:4)	0.4941	10269
39	전기	1930	714(일반어:199/전기:302/그 외:213)	36.994	1216
40	정치	1788	479(일반어:440/법률:34/그 외:5)	26.789	1309
41	종교	915	293(일반어:282/그 외:11)	32.021	622
42	지리	4716	1,656(일반어:790/지리:333/지질:263/기상:180/그 외:90)	35.114	3060
43	지명	6842	295(일반어:289/그 외:6)	4.3116	6547
44	책명	2025	325(일반어:321/그 외:4)	16.049	1700
45	천문	1818	653(일반어:356/천문:281/그 외:16)	35.918	1165
46	철학	1790	572(일반어:355/철학:198/그 외:19)	31.955	1218

47	출판	1121	416(일반어:264/출판:142/그 외:10)	37.109	705
48	컴퓨터	1131	252(일반어:69/정보:118/전자:45/그 외:20)	22.281	879
49	통신	721	189(일반어:103/통신:67/그 외:19)	26.213	532
50	한의학	4485	3,873(일반어:3,762/의학:86/그 외:25)	86.354	612
51	항공	719	170(일반어:153/그 외:17)	23.643	549
52	해양	677	205(일반어:122/해양:66/그 외:17)	30.280	472
53	화학	7121	2,794(일반어:836/화학:1,650/그 외:308)	39.236	4327
	계	192,208	65,976	34.325	126,232

『표대』에서는 전문어 영역을 53개로, 『조대』에서는 전문어 영역은 47개로 분류하고 있다.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그리고 ‘고유명사’, ‘인명’, ‘지명’, ‘책명’,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정치’ 등의 전문 영역이 『조대』에는 없다. 『조대』에서는 이들 영역에 속한 어휘 가운데 일부를 일반어로 등재하고 있다.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126,232개이고, 『조대』에만 등재된 전문어는 25,726개이다. 『조대』에 비해 『표대』에만 등재된 전문어가 약 5배 정도 더 많다. 그리고 남측 전문어 총수(192,208) 대비 65.6%가 남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어이다. 그리고 『표대』에서 전문어로 제시한 올림말 중 49,837개는 『조대』에서 일반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16,139개는 전문 영역이 다른 올림말로 등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남북의 전문어 올림말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치하는 올림말이 34.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남측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어를 말했을 때, 북측 전문가는 3~4개 정도의 용어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 전문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 앞으로 더 지속된다면 남북 전문가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할 수 없을 정도로 어휘 차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표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17,131개가 있고, 『조대』에만 등재된 지역어는 4,405개가 있다. 그리고 ‘글체’, ‘말체’, ‘낱은말’, ‘임시올림말’은 『조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분류이다. 『조대』에만 등재된 올림말 중에는 5,813개의 낱은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 5,783개가 한자어이다. 『조대』에 등재된 낱은말의 총수는 25,409개이며, 이 가운데 한자어는 23,144개로, 낱은말 총수 대비 91%에 이른다. 이처럼 낱은말에 한자어가 많이 포함된 것은 북측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한자말정리사업’과 ‘어휘정화사업’ 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은어’는 『표대』에만 있는 분류이다. ‘고어/옛말’은 남북의 두 사전 모두 올림말로 등재하고 있다.

14) 여기서 백분율은 ‘『표대』의 영역별 전문어 총수’ 대비 ‘『조대』 동일 올림말’을 계산한 것이다.

15) ‘그 외’에는 ‘일반어를 제외한, 다른 여러 전문 분야 수치를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2. 남북의 어휘 차이 어떻게 극복할까?

남북의 어휘 차이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고, 또한 그 차이가 체제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단변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어휘 차이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 규범어(표준어와 문화어)의 경우 ‘규범어 비교 - 규범어 통합 - 규범어 통일’의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황에서 남북의 규범어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규범어 통합의 단계 없이 규범어가 통일될 경우, 서로의 규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남북의 언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 이후 남측에서는 북한어 연구나 남북 규범어 비교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충분히 축적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남북 어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어휘 통합’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남북의 어휘를 총망라한 대사전을 편찬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남녘에서는 북녘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녘에서는 남녘 사전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남과 북의 우리 겨레는 상대측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분단된 현 상황에서는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사전을 편찬하여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겨레가 함께 사전을 이용하다 보면 상대측 어휘를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 어휘 이질화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사전은 무엇보다도 남북 사전편찬가가 함께 편찬한 사전이어야 한다. 남북 어느 한 쪽에서 편찬된 사전은 현실적으로 상대측에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공동사전 편찬의 당위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남북공동사전 편찬의 당위성

가. 남북 사전편찬가들이 함께 남북 어휘 전반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을 하여 개별 어휘에 대한 차이를 서로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남북의 어휘를 집대성할 수 있다.

다. 남북의 합의로 편찬될 것이므로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라. 분단된 현 상황에서 남북의 어휘 차이를 해소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

- 마. 남북의 규범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바.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어문규범은 강요된 규범으로서 곧장 기능하지 않으면서, 남북 거래의 반향과 적응 정도를 살필 수 있다.
 사.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어문규범은 통일 이후의 통일어문규범을 작성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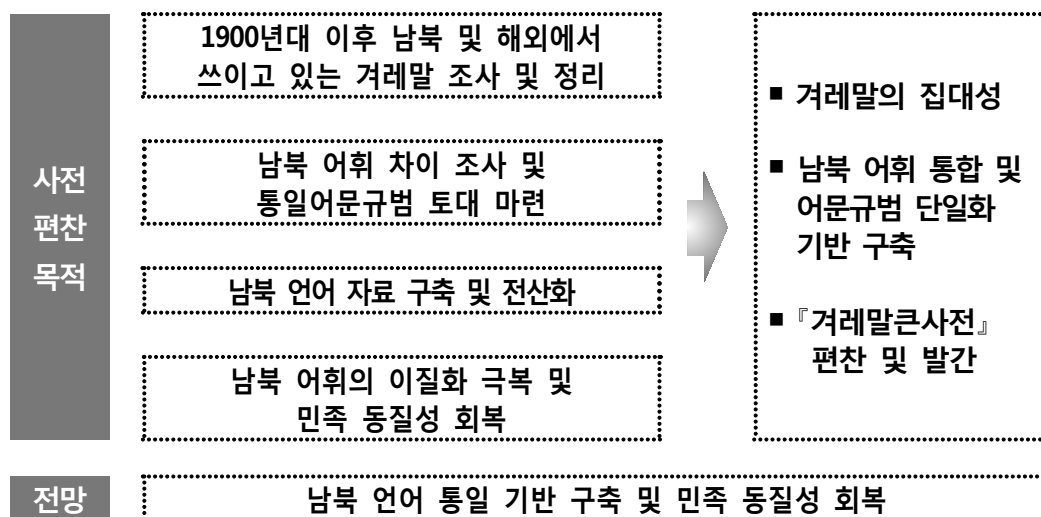
남북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할 경우,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남북 어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자연스럽게 모색하게 될 것이다. 즉 체제와 이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부담은 받지 않으면서, 남북 어휘 및 어문규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전편찬을 위한 남북 협의체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규범 자체를 통일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겨레말 통합을 위한 사전, 『겨레말큰사전』

3.1. 『겨레말큰사전』 편찬 목적

『겨레말큰사전』 편찬 목적과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겨레말큰사전』 편찬 목적과 전망



이러한 목적으로 출범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¹⁶⁾에서는 2005년도에

1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남측 11명, 북측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남측 위원회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공동편찬요강’을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 ‘사전의 성격’과 ‘사전의 편찬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가. 사전의 성격

- ①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총집대성한 사전이다.
- ② 『겨레말큰사전』은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인 사전이다.
- ③ 『겨레말큰사전』은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있는 힘껏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다.
- ④ 『겨레말큰사전』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사전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 정보를 주는 현대사전이다.

나. 사전의 편찬 원칙

- 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민족 공조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 ②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는 조건에서 단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전을 완성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부문별 작업 요강 3~5개를 만들어 사전 편찬 작업의 공통된 지침서로 삼는다. 작업 요강은 ‘원고 집필 요강’, ‘언어 규범 단일화 요강’, ‘어휘 조사 요강’, ‘남북 국어사전 비교 요강’, ‘사전 자료 정보화 요강’ 등이다.

—2005년 7월 10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평양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는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4회씩 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선정된 올림말을 남북이 분담하여 집필 작업을 시작하였다. 각기 집필한

사전편찬전문가 및 문인으로, 북측은 주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다시 2차례 정도 상호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검토한 원고 가운데 논의가 더 필요한 원고는 공동집필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하여 ‘남북 합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남북 합의 원고’가 완성되면 교열·교정 작업을 거쳐 사전을 발간하게 된다.

3.2.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추진 경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고(故) 문 익환 목사가 1989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일성 주석에게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제안하면서 태동되었다. 그 이후 여러 사정으로 진척이 없다가 2005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편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의 편찬 경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편찬 사업 추진 경과

- 2004. 4. (사)통일맞이(남)와 민족화해협의회(북) 간의 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
* ‘『겨레말큰사전』’으로 사전 명칭 결정
- 2004. 12. 『겨레말큰사전』 편찬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체결
- 2005. 2.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및 제1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 2005. 7.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합의
- 2006.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 설립
- 2007.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법』 제정
- 2009. 3. 제1차 남북공동집필회의 개최
- 2005. 2. ~ 2009. 12. 남북공동편찬회의 총 20회, 남북공동집필회의 총 4회 (2009년) 개최
- 2013. 7.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법』 개정
* 편찬 사업 기간을 2019년 4월까지로 5년 연장
- 2014. 7. 제21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 4년 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공동회의 재개
- 2015. 12. 제25차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대련)
- 2016. 01. 남북공동회의 중단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대비 78%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을 표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

① 편찬지침 작성	② 올림말 선정	③ 올림말 집필	④ 집필원고 교차 검토 및 합의	⑤ 출판
- 올림말 선정 지침 - 집필 지침 - 새어휘 조사 지침 - 어문규범 작성 지침 - 프로그램 개발 지침	⇒ - 올림말 선정 - 새어휘 조사 - 새어휘 선정	⇒ - 올림말 집필 - 새어휘 집필 - 단일어문규범 작성 - 말뭉치 구축 - 편찬프로그램 개발 - 삽화 구축	⇒ - 남북이 각기 집필한 원고 교차 검토 - 공동집필회의에서 교차 검토한 원고 합의	⇒ - 교열교정 - 출판

‘①’ 단계에서는 남북이 함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조직(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을 결성하고, 사전 편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지침을 작성하였다. ‘②’ 단계에서는 남북의 두 사전(『표대』와 『조대』)에 수록된 올림말을 대상으로 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올림말 23만여 개를 남북이 함께 선별하였다. 또한 기존의 남북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를 최대한 조사하여 사전에 수록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남북 새어휘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③’ 단계에서는 남북이 함께 선정한 올림말 30만여 개(기존사전 올림말 23만여 개 + 새로 조사한 어휘 7만여 개)를 남북이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그리고 집필 작업에 필요한 언어 자료(말뭉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남북 공동으로 사전편찬 프로그램(원고입력기, 용례검색기 등)도 개발하였다. 2019년 현재는, ‘④’ 단계에 속하는데, 남북에서 각기 집필한 원고를 상호 교차 검토한 후에 이를 다시 남북공동집필회의에서 합의하는 단계이다. 집필원고를 합의하려면 남북의 편찬원들이 만나야 하는데, 현재 남북공동회의가 중단되어 작업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④’ 단계의 작업이 끝나면 ‘⑤’ 단계의 교열교정 작업을 거쳐 사전을 출판하게 된다.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속구조(미시구조)와, 집필된 원고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겨레말큰사전』의 속구조

올림말 [발음] [활용형] ([원어명]원어) [품사] 『전문영역』 『문법정보』 뜻풀이 (지역명)
 || 예구 |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원] [순화] [불임] [갈래말]
 [삽화] 관용구/속담

(10)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나비’의 뜻풀이 예시

나비¹ ① ② 낮고 넓적한 두 쌍의 날개가 있으며, 대롱처럼 생긴 입으로 꽃의 꿀을 빨아 먹는 곤충 가운데 주로 낮에 활동하는 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통과 날개는 작은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다. Ⅱ **나비를** 채집하다. / 수국에서 날아오른 **나비**가 여자의 어깨 위를 맴돈다. 《성석제: 협죽도 그늘 아래》 / 아이들은 **나비를** 잡기 위해서 풀숲을 뛰어다녔다. 《최인호: 지구인》 / 탐스럽게 입 벌린 꽃송이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김성동: 만다라》

② ③ <나비¹①>과 <나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Ⅰ 불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라더니 참 슬픈 일로군. 《리화: 진리의 탐구》 [〈나비/나뵤/나뵤(두시-초)〇나비(능엄#릉엄)〕

❓ 북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비>라고 부르지만, 남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다. 나비는 몸이 가늘고 주로 낮에 활동하는 데에 비해, 나방은 몸이 통통하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앞을 때 나비는 날개를 곧추세우지만, 나방은 날개를 편다.



나비가 수탉을 잡는다 ④ (나비가 수탉을 슬슬 열어서 잡는다는 뜻으로) 꾀가 있고 머리를 잘 쓰면 자기보다 크고 힘센 상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 ...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개발한, ‘용례검색기’와 ‘집필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겨레말큰사전』 편찬 도구

가. <용례검색기>

용례 검색				
앞 문맥	검색어	뒤 문맥	관련 검색	일차 검색
용례 필터 모두 남북 남 북 연				
SentenceBefore	Sentence...	SentenceAfter	Source	Co...
첫째로 편조는 득도한 사람이라 욕심이 적었고, 둘째는 편조는 천마한 사람이라	겨레화	봉당(朋堂)이 없었다.	1973(1973)_남_박종화_다정...	A
그때 민족적 弊習이 最高潮에 이르러	겨레의	痛恨(痛恨)에 사무쳤던 참이라, 학문적으로나마 내가 雙手 空拳...	1976(1976)_남_양주동_국보...	A
이 나라 수많은 아픔들의 크나큰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이 모...	겨레를	한통에 그려안아 미래로 이끌어 주는 조국의 품은 얼마나 넓고 ...	1976(1976)_북_백현우_별들...	A
이 뼈저림 신음하고있는 온	겨레에게	무슨 죄가 있단말입니까?	1981(1981)_연_음원삼_여들...	A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며 머서 오라 (73페이지 계속) (67페이지에서 ...	1983(1983)_북_고병삼_미안...	A
...”이	겨레	살릴 우리의 조국은 어디?	1983(1983)_북_고병삼_미안...	A
혁명이란 적의 반항을 때려 없게 해서 얼마나 큰 힘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	겨레를	읽는 그 아픔을 얼마나 완강하게 견디고 내는가 하는 검열이기도 ...	1983(1983)_북_권정용_심장...	A
임어는 큰물에서 놀고 미꾸라지는 개천에서 노는 법인데 겨레에 나라와	겨레를	위해 큰 재물이 될려고 하면 더 고요한 소수를 찾아 학문을 깊이 ...	1984(1984)_연_김용식_설랑...	A
“그자들의 음모가 너무도 한심하니가 할말만큼이라도 나라와	겨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한우리가 되자고 하겠습니까.	1984(1984)_연_김용식_설랑...	A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위하여 자기의 성의와 지혜를 다 바친 명석없는 부녀자이...	1984(1984)_연_김용식_설랑...	A
남고 죽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동일한 것에서 하나의 죽음이라, 타인의 죽음이라, ...	겨레의	정신, 신앙의 모태(母胎)를 이루게 된 까닭인가.	1986(1986)_남_한무숙_만남...	A
사랑하는	겨레여.	우리는 영웅(英雄)이 아닌 것이다.	1987(1987)_남_최인호_회색...	A
(이런 실로 온	겨레의	지랑디(지)	1987(1987)_연_리광수_새로...	A
예해라 애호요 애호요 애해라	겨레들이	건너다니며 압록강에서 출고 압록강에서 웃고 백의동포 키워온 ...	1990(1990)_연_김운룡_압록...	A
주몽왕이 고구려를 세운 그날부터 오직 이 압록수만이 우리	겨레의	비극을 알고있다... 나는 고개 한마리 낚지 않고 터벅터벅 집으로 ...	1990(1990)_연_김운룡_압록...	A
예해라 애호요 애호요 애해라	겨레들이	건너 다니며 압록강에서 출고 압록강에서 웃고 백의동포 키워온 ...	1990(1990)_연_김운룡_압록...	A
통일의 광장에 우리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옥청정 만세를 부르는 7천만	겨레의	감격에 넘친 모습이 말이네!	1992(1992)_북_남대현_상봉...	A
나상신 나라 걱정들 하고	겨레를	위하는 길이 마치 정처에 뜻을 두고 국회의원 되는데에만 있다더나.	1994(1985)_남_이용찬_칠면...	A
나화만 이변에는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하다..... 나상신 그만	1994(1985)_남_이용찬_칠면...	A
반세기가 되도록 민족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통일,	겨레가	뼈를 깎고 피를 뿌리며 일구웠습니 그 하나를 위하여 싸워온 통일, ...	1995(1995)_북_한인호_한란...	A
지자놓렸던 남북의 동맥에 활활	겨레의	뜨거운 피가 흘렀다.	1995(1995)_북_한인호_한란...	A
“오빠는 저더러 잘 생각했다며 방직회사도 이젠	겨레를	위한 회사라고 하죠.	1995(1995)_북_한인호_한란...	A
*50년 여름의 잊지 못할 밤들에 백두산 감장군의 위대한 영성 은막 우에 높이 모...	겨레에게	감개와 격정의 광망 안겨 주던 미지의 여사침, 한때 지리산서 빨...	2000(2000)_북_조인영_청춘...	A
준비				

나. <집필프로그램>

GyoremaWorks - 1.0.0.30						
용례 검색						
용례 필터 모두 남북 남 북 연						
SentenceBefore	SentenceCe...	SentenceAfter	Source	Co...		
미승이가 사업하고있는 출판사에서 주위를 하여	"겨레문학과	세계문학이라는 제마일에 동화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국내의	2000(2000)_연_최정호_도시의 건축, 폭력의 대안, 폭력정조전민족출판사_217			
	"겨레문학과	회습니다.	1988(1988)_연_박정호_고성의 겨울, 평년성황 (1988년 07월호), 연변인민출판사_...			
	"겨레의	원수를 알고 위하여 용서를 받으라	1990(1990)_연_허태룡_고성계, 서변계, 연변인민출판사_045			
그러나니 조국과	겨레	앞에, 미래 앞에 다진 혁명전사의 막을쳐갈 길 놓고 고귀한 연약...	1987(1987)_북_김동식_악속, 조선문학 (1987년 6월호), 문예출판사_041			
이 책을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 장임의 노래고려의 어느덧 크디 큰 관중들의 노래...	1995(1995)_북_김동식_악속, 조선문학 (1995년 12월호), 문학예술종합출...			
목사는 김원봉이 생각보다 솔직하고 결코 누구보다 한층 높은 곳에서 단원들을 ...	겨레	속에 묻혀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노래...	1991(1985)_남_김명수_이육사, 이육사, 창작과 비평사_185			
제 일이 아니요, 제 나라 일이 아니요, 제	겨레	일이 아니었다.	1955(1955)_남_박종화_장전열, 임진왜란 (5), 휴무문화사_187			
(이 나라 반만 년 역사속에 이다지도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어느 해 어느...	겨레	속에 이 나라를 건줄 출중한 위인이 었단 말인가...) 절절한 마음...	1971(1971)_북_김동화_사학사의 불빛, 조선문학 (1971년 3월호), 문예출판사_058			
논 큰 존치, 허리 긴 갈치, 손은 가늘치, 두르치 예가, 남작한 가재미, 복리 긴 ...	겨레	많은 곤경이, 그뿐만 여겨 풀을 뒤대 다 알아나는데, 열없이 생긴 ...	1975(1975)_남_이희술_악속의 달빛, 연변인민출판사_307			
새로운 봄이 왔어졌다-지방 문화 육성을 위하여- 동화책	겨레	모두가 삼가 주심의 연유이다.	1986(1986)_남_김명수_삼강수, 삼강수 간담 (5), 시문학사_38			
그 연구자와 그 예술가, 글자머로 無私無黨의 연구자는 이국의 바람 속에 ...	겨레	마음의 모든 발전이며 한층 높으리라 기대를 하였다.	1986(1986)_남_김명수_삼강수, 삼강수 간담 (5), 시문학사_302			
"그	겨레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으로 더욱 불꽃을 휘둘렀다.	1995(1967)_남_김명수_삼강수, 삼강수 간담 (28), 동아출판사_158			
	겨레	를 속에 정화구나.	1986(1986)_남_김명수_삼강수, 삼강수 간담 (5), 시문학사_291			
	겨레	역사 평가 하는 모임을 요즘도 잘 돼요?	1993(1993)_남_윤석희_물풍다리의 노래, 물풍다리의 노래, 역사비평사_104			
준비						

3.3. 남은 과제

올해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14년째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이 함께 ‘사전편찬일정’을 합의하였고, ‘공동편찬요강’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수록할 올림말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선별한 올림말의 집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규범을 합의해야 한다. 현재 자모 순서와 그 명칭, 형태 표기 차이 등은 합의하였으나, 두음법칙 표기, 사잇소리 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각 측의 협상안은 제출된 상황인데, 두음법칙 표기 문제가 가장 난제이다.
- ② 2010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올림말 집필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남측 사업회에서는 남측 분량의 집필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북측의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 향후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각 측에서 집필한 원고를 재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1차합의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올림말 집필이 완료되면 남북 공동으로 교정·교열 작업을 해야 한다. 남측에서 편찬된 대사전의 경우 평균 10차례 정도 교정·교열 작업¹⁷⁾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도 최소 10차례 정도의 교정·교열 작업이 필요하다.

편찬일정에 차질이 없었다면, 지금은 사전 증보 작업을 하면서 전자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시점이다. 그렇지만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남북 교류 중단으로 전체 기간(14년) 중 9년을 남북 사전편찬가들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남북 어휘 통합을 목적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 어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남북에서 각기 편찬한 『표대』와 『조대』의 올림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측의 『표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이 전체 대비 51.9%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17)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레이아웃(layout) 작업이 끝난, 출판 원고 형식만으로도 11 차례의 교정·교열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면, 북녘에서는 남녘말의 52%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 전문어의 경우 66%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남북 어휘 차이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조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남과 북의 우리 겨레는 상대측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전이 있다면, 상대측 어휘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 어휘 이질화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할 사전은 남북 사전편찬가가 함께 편찬한 사전이어야 한다. 남북의 어느 한 쪽에서 편찬된 사전은 현실적으로 상대측에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2005년에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 어휘 이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는 데 남북 언어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겨레의 동질성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소통의 근간이 되는 언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남북 양측 정부가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할 경우,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남북 어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전편찬을 위한 남북 협의체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규범 자체를 통일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남북의 언어 차이를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 선각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의심치 않으면서 문맹 퇴치와 우리말을 제대로 적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표기법(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우리 단어가 살아갈 집(『조선어사전』(1938), 『큰 사전』(1929~1957) 등)’을 묵묵히 마련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광복 직후 큰 혼란 없이 교과서를 편찬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에 3년의 시간(1930~1933)이 필요했고, 『큰 사전』 편찬에 28년의 시간(1929~1957)이 필요했던 것처럼 언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통일을 의심치 않으면서 언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구 현정(2017), 「남북한 감사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권.

- 국립국어원(2001/2018), 『한국 어문 규정집』.
-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권 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학전서 4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리론』, 조선어학전서 47.
- 양 수경(2017), 「남북한 거절 화행 비교 연구」, 『한말연구』 제43권.
- 이 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정 순기(2006), 「규범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과 남의 차이에 대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집.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 한 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한 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pp.119~143.
- 홍 종선·최 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남북 언어 통합 방안

2019년 5월 10일(금) 10:00 ~ 16:30

한글학회 열말글교육관

□ 제4부

남북의 표기 차이에 관하여 —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고 대영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¹⁾

logoskdy@naver.com

1. 서론

한동안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일상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오르내렸었다. 금방이라도 통일을 향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였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통일 전선에 부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화의 물꼬는 쉽게 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간 분단의 고착을 필연으로 여겨 왔던, 식었던 마음에 통일이 요원한 미래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문제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본고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남북의 표기 차이, 그중에서도 사이시옷 표기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사이시옷에 관한 그간 연구의 개괄을 통해 사이시옷의 성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규정한 어문 규정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남북의 어문 규정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 이하 ‘통일안

1) 사업회의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의 주장임을 밝힙니다.

(연도)’으로 줄임)에 토대를 두고 있다.²⁾ 따라서 통일안(1933)에서 시작하여 사이시옷 표기와³⁾ 관련된 남북의 규정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통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2. 사이시옷의 성격

사이시옷은 그 기원에서 시작하여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다. 본고는 사이시옷 자체에 대한 연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국어, 특히 남북의 언어적 통합을 전제하여 이질화된 사이시옷의 표기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합의 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이시옷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보다는 그간의 연구 성과의 검토를 통해 사이시옷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연구사적 개괄보다는 사이시옷의 표기라는 관점에서 그간의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이시옷에 관한 연구는 표기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음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
- 둘째, 형태·통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
- 셋째, 어휘적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식⁴⁾

첫 번째는 사이시옷을 음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사이시옷을 ‘경음화, 유성음화 방지, 무성의 휴지, 개방 연접’ 등 음운론적 현상을 드러내는 표기로 보았다. 이 희승(1964:176)에서는 “대체로 아랫말의 발음이 된소리인 것을 표시하는 일”, 이 승녕(1961:88)에서는 “‘ㅅ’은 [s]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다음 말의 두음에 [t]을 가해서 경음을 만드는 구실”을 하는 것, 즉 경음화와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최 현배(1975:935)에서는 “그 위의 소리가 흐린 소리이기 때문에 그 아랫말의 첫소리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라며 음성화와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허 웅(1965:393)에서는 “앞의 소리 나는 자리를 폐쇄하여 그 다음 소리와의 사이에 무성의 휴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무성의 휴지’를 더 발전시켜 이 현규(1982:207)에서는 “문을

2) 통일안(1933) 이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과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1921), 『언문철자법』(1930)이 있었다. 이들에 관해서는 홍 종선(2003:35) 등 참고.

3) 본고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은 ‘사이시옷 소리’로,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기호는 ‘사이시옷’으로 표현을 통일하였다.

4) 사이시옷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별로 논의를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이시옷의 특성상 그 논의가 대체로 음운, 형태(통사),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이시옷을 어떤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루는 낱말(형태소)의 연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으로 앞말의 끝소리가 유성 음일 경우에 내파화 개방연접의 관계로 결합되는 발화 현상의 기술이며 이것은 앞 뒤의 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성음운론에 기반한 김 진우(1970) 등도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주로 명사 사이의 격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나 선후행 요소의 어휘적 특징 또는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 보았다. 람스테드(Ramstedt 1939:48-49)는 ‘ㅅ’을 ‘short genitive’라고 하여 속격의 ‘의’와 함께 다루었으며⁵⁾ 심 재기(1979:119)에서는 사이시옷을 관형격 형태소로 보았다. 왕 문용(1989)에서는 ㅅ의 이형태로 ∅를 설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시옷을 관형 구성을 이루는 요소로 보았으며 그 형태소의 자격을 논리화하였다.⁶⁾ 이 현규(1982:207-208)에서는 속격 외에도 주격, 목적격, 서술격, 부사격 표지 등 격 표지 외에도 관계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엄 태수(2006, 2007)에서는 사이시옷을 ‘통사적 사이시옷, 형태적 사이시옷, 어휘적 사이시옷’으로 세분하고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사이시옷을 동일하게 강제나 초점의 의미’(2006:173)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분명한 형태소’(2007:282)라고 하였다. 하 세경·문 양수(2005:280)에서는 합성어에서만 나타나는 ‘단어 표지 형태소’로 보았다. 형태소 설정 여부는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하 정수(2010:162)에서는 사이시옷의 의미와 기능을 “선행명사 또는 선행 서술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나타내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사이시옷을 선후행 요소 사이에 속격을 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삽요어(infix)’로 본 이 희승(1955:60)이 있다.

세 번째는 사이시옷을 어휘의 한 속성으로 접근한 것이다. 임 홍빈(1981:2-3)에서는 사이시옷이 음운론적인 현상만은 아닌, 고유한 기능을 가진 ‘형태소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형태소적인 존재’라는 표현으로는 사이시옷을 형태소의 일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ㅅ전치명사, ㅅ후치명사’ 등의 논의에 와서는 사이시옷을 어휘의 속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창섭(1996) 등에서 ‘ㅅ전치성, ㅅ후지성’ 등의 표현으로 이어지며 관련 명사를 목록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사이시옷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입장에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 문제로 환원된다. 음소 문자인 한글 표기는 대부분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며 의당 그러하리라 기대된다. 그런데 사이시옷 소리와 관련해서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만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 표기와 발음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철자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

5) 사이시옷을 속격으로 본 논의로는 前間恭作(1909), 小倉進平(1929), 이 기문(1985) 등이 더 있다.

6) 사이시옷을 관형격으로 본 논의로는 최 광옥(1909), 이 남덕(1968), 허 웅(1975), 고 영근(1985) 등이 더 있다.

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하여 주요한 입장은 두 번째 관점이다. 사이시옷을 순수히 음운 현상과 관련이 있는 표기가 아니라 그 자체의 형태·통사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현대국어에 있어서도 그 기능과 형태가 분명한 형태소로 설정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행 규정에서 제약된 사이시옷 표기를 확대하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⁷⁾

세 번째는 사이시옷의 표기보다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어휘 목록을 명세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환경을 규칙화할 수 있다면 사이시옷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로 표기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⁸⁾

남의 현행 어문 규정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글맞춤법 제30항은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시옷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이시옷을 음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한편 표준발음법 제28항에서는 사이시옷이 표기에 드러나지 않으나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경우를 한정하기 위해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와 같이 사이시옷을 통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사이시옷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남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유지하는 논리적 근거일 것이다.

3. 사이시옷 관련 규정의 변화

우리의 표기법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다. 총독부 주도로 조선어 교육을 위해 철자법 규정이 시작되었으나 일단의 완성은 조선어학회의 통일안(1933)이었으며 해방 이전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7) 엄 태수(2007:283)에서는 “사이시옷은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음 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방안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동일한 모음 뒤에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방안일 것이다.”와 같은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통일안’ 가운데 사이시옷 표기를 확대했던 통일안(1940)보다도 강력하며, 북의 신철자법(1946)과 철자법(1954)의 사이시옷 규정과 같다.

8) 남에서는 필수적인 음운 변동의 경우에는 소리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에 필수적이지 않은 음운 변동의 경우에는 그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수의적으로 간주되는 사이시옷 소리를 비록 어휘적 단위에서일지라도 규칙화할 수 있다면 이를 표기에 굳이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규범 발음법에서 해당 어휘 목록을 밝히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표기법에서 해당 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사이시옷의 표기를 규칙화할 수 있을 것이다.

9) 물론 합성어, 고유어 등의 조건은 형태론적 정보이기기는 하나 이들 정보는 사이시옷 소리의 발생 환경이라기보다는 사이시옷 표기를 제약하려는 조건에 가깝다.

해방 이후 남북에서는 각각 어문 규정을 공표하며 표기법에서 이질화가 시작되었다. 남에서는 통일안(1946)에서 시작하여 문교부 고시를 통한 한글맞춤법(1988)으로 큰 틀을 완성하였다. 그 사이 민간이 주도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80년대에 이르러 문교부 고시를 통해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남에서는 ‘개정안’ 형식으로 어문 규정의 수정·보완이 있었으나 ‘한글맞춤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소소하였다.¹⁰⁾

해방 이후 북에서는 『조선어신철자법』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어문 규범 정책을 시행하였다. 『조선어신철자법』(1948)에서 시작하여 5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조선말규범집』(2010)이 가장 최근의 개정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단 이전부터 시작하여 분단 이후 남북의 어문 규범에서 사이시옷 관련 규정의 변화를 검토해 보겠다. 규정의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규정 변화의 경향성이 드러날 것이다.

3.1. 해방 이전¹¹⁾

통일안(1933) 이후 해방되기 전까지 통일안(1937)과 통일안(1940)으로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두 차례의 개정 가운데 통일안(1940)의 변화가 주목된다.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은 통일안(1933)에서 처음 시작된다. 제30항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第三〇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例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뭇배 담뱃대 잇몸 깃발

현행 규정에 비하면 통일안(1933)의 규정은 상당히 간략하다. 규정에 드러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0) “한글맞춤법”에서의 큰 변화라고 할 것은 부록인 ‘문장부호’ 규정의 변화이다. 2014년 10월 27일 ‘문장부호’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고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11) 엄밀히 말하자면 남북 규범의 이질화는 북의 신철자법(1948)이 공표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규범의 공표의 시점보다는 남북이 갈라지고 이질화의 외적 조건이 갖추어진 해방 이후가 표기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규범을 통일안(1940)까지로 보고 그 이후의 ‘통일안’은 남의 규범으로 분류하였다.

(1) 가. 합성어일 것

나. 사이시옷 소리가 날 것

ㄱ. 후행 요소의 초성인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경우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¹²⁾

다.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날 것

라.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고유어일 것

통일안(1933)에는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조건과 합성어의 구성 요소의 어종에 관하여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시된 몇 개의 예를 통해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조건으로 ① 후행 요소의 평음인 초성이 경음화되는 경우(뒷간, 곳집, 나뭇배, 담뱃대, 깃발)와 ②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잇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1라) 역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으로 추정된다. ‘뒷간(-間), 깃발(旗-), 곳집(庫-)’과 같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한자어가 포함된 합성어도 예로 보인 것이다. 아직까지 예를 통해서도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37)

第三〇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소리는 홀소리 아래에서 날 적에는, 위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무지 적지 아니한다.

例: 홀소리 밑	닿소리 밑
뒷간(厠間)	문간(門間)
귓결(耳便)	물결(波紋)
콧날(鼻線)	칼날(刀刃)
뒷내(後川)	앞내(前川)
담뱃대(煙竹)	견양대(見樣木)
콧등(鼻脊)	손등(手背)
잇몸(齒齦)	알몸(裸體)
냇물(川水)	강물(江水)
깃발(旗旒)	글발(字跡)
나뭇배(載木船)	소금배(載鹽船)
잇새(齒間)	발새(趾間)
빗소리(雨聲)	총소리(銃聲)
기왓장(瓦片)	구들장(塊石)
곳집(倉庫)	움집(土幕)

12) 초기 규정에서는 ‘ㄴ, ㄹ’ 앞에서 ㄴ이나 ㄹ 소리가 덧나는 사이시옷 소리(잇몸, 콧날)와 ㅣ(y) 앞에서 ㄴ이나 ㄹ이 덧나는 현상(물약)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통일안’(1933)의 예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나 이후 규정의 관련 예들에서 두 현상이 구별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1)과 비교하여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서 변화는 없었다. 통일안(1933)에 비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와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였고 그 예를 풍부하게 보였다는 정도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다만 보충된 예 가운데 ‘칼날, 앞내, 강물, 알몸’과 같이 사이시옷 소리와 무관한 예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사이시옷 현상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40)

第三〇項 複合名詞의 사이에서, 위스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나 ㄴ, ㄹ, ㅁ, ㅇ인 때에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스 말의 첫소리가 “아,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口蓋音化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中間에 “ㅅ”을 놓아 표한다.

例: (一) “사이스” 소리가 나는 것

뒤스간(廁間) 문스간(門間) 코스날(鼻線) 코스등(鼻脊) 손스등(手背) 이스몸(齒齦) 초스불(燭火) 등스불(燈火) 이스새(齒間) 발스새(趾間) 고스집(倉庫) 움스집(土幕)

[附記一] ㄹ 끝소리나 ㄹ 語尾를 가진 語幹과 다른 體言과 어울리어 한 名詞로 익은것도 “사이스” 소리가 나는것은 本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例: (1) 들스것(擔架) 물스것(蚤蝎類) 굴스대(轉軸) 들스돌(力技石)
 들스보(架樑) 물스부리(煙嘴) 들스손(舉柄) 들스숨(吸息)
 들스장지(掛障子) 날스짐승(飛禽)
 (2) 디딜스방아(足舂) 질스부채(摺扇) 질스손(把所) 날스숨(呼息)
 설스주(門柱) 길스짐승(走獸)

[附記二] 위스 말의 끝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들로 되었거나, 아래스 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들로 되어, 中間에 “ㅅ”을 놓지 아니하여도 소리에 다름이 없는것은 “ㅅ”을 놓지 아니한다.

例: (1) 박속(苞內) 만자제(昆胤) 입김(口氣) 갓집(冠入) 낮잠(晝寢)
 꽃술(花蕊) 부엌간(廚間) 날돈(小錢) 앞발(前足)
 (2) 봄꿈(春夢) 벌떼(蜂群) 산뽕(山桑) 솔씨(松種) 콩짜개(豆片)
 귀청(耳膜) 배코칼(薙刀) 머리털(頭髮) 쉬파리(大蠅)

(二) “사이스” 소리와 다시 口蓋音化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채스열(鞭穗) 아래스이(下齒) 대스잎(竹葉) 베개스잇(枕衣) 갓스양(冠緣)
 물스약(水藥) 잣스옛(柏飴) 콩스옛(豆飴) 담스요(氈褥) 낫스요강(鎗溺器)
 편스웃(便糲) 밤스웃(小糲) 속스잎(裏葉) 논스일(沓事) 들스일(野事)

통일안(1940)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음운론적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이시옷 소리와 ㄴ 또는 ㄹ 소리가 덧나는 경우(채스열, 대스잎, 베개스잇 등)가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환경으로 추가되었다. 그렇지만 ‘물약, 콩옛’ 등과 같이 사이시옷 소리와 무관하게 ‘ㄹ(y)’ 앞에서 발생하는 ㄴ첨가 현상에 해당하는 예가

함께 제시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통일안(1940)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시옷의 표기 위치이다. 이전까지는 합성어를 이루는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선행 요소의 받침으로 적었다. 이는 한글의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표기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통일안(1940)에서는 이런 모아쓰기 방식을 깨고 사이시옷을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 즉 형태소 경계에 놓도록 규정하였다.

또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합성어에서 사이시옷 소리가 나더라도 ‘손등, 움집’과 같이 선행 요소가 모음이 아닌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ㄴ, ㅁ’과 같이 현재 겹받침으로 쓰지 않는 받침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이시옷이 음절 경계에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 까닭인지 ‘손등, 움집’과 같이 선행 요소에 종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선행 요소의 종성이 폐쇄음이거나 후행 요소의 초성이 경음, 격음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즉 아래와 같이 사이시옷 표기 조건이 바뀌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범위가 늘어났다.

(2) 가. 합성어일 것

나. 사이시옷 소리가 날 것

ㄱ. 후행 요소 초성의 경음화

ㄴ. ㄴ 소리의 덧남

ㄷ. 사이시옷 소리와 ㄴ이나 ㄹ 소리의 덧남

다.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고유어일 것

라.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종성 ‘ㄴ, ㄹ, ㅁ, ㅇ’으로 끝날 때

사이시옷 소리와 무관한 경음화 현상도 [부기1]로 제30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관형형 어미 뒤에서 발생하는 경음화도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경우로 보아 형태소 경계에 사이시옷을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 통일안(1940)은 해방 이후 남북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2. 북의 규정 변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에서는 ‘조선어신철자법’(1948)(이하 ‘신철자법’으로 줄임)을 시작으로 ‘조선어철자법’(1954)(이하 ‘철자법’으로 줄임), “조선말규범집”(1966), “조선말규범집”(1987), “조선말규범집”(2010)(이하 ‘규범집(연도)’으로 줄임)으로 총 5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다.¹³⁾

(3) 가. 합성어일 것

나. 사이시옷 소리가 날 것

ㄱ. 후행 요소 초성의 경음화

ㄴ. ㄴ 소리의 덧남

ㄷ. 사이시옷 소리와 ㄴ이나 ㄹ 소리의 덧남

다. 고유어 및 한자어 합성어 모두

라.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종성 ‘ㄴ, ㄹ, ㅁ, ㅇ’으로 끝날 때

명시된 사이시옷 표기 조건만 보면 통일안(1940)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⁵⁾. 통일안(1940)과 같이 (2나ㄴ)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용례를 통해 해당 조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안(1940)에서는 [부기2]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신철자법(1948)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후행 요소의 초성이 경음이나 격음인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일안(1940)과 같았으리라 보인다.

통일안(1940)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3다)로 합성어 구성 요소의 어종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통일안(1940)까지는 고유어 합성어이거나 합성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고유어인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음이 용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런데 신철자법(1948)은 [부기]에서 한자어도 고유어에 준하여 경우에는 사이시옷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¹⁶⁾ 한편 사이시옷 소리와 관련은 없지만 제33항에서 파생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발음 변화에도 절음부를 쓰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어철자법(1954)

제3장 합성의 표기 제19항, 제4장 접두사와 어근의 표기 제24항

제19항. 합성어 또는 이에 준할 말한 단어의 사이에서 첫째 번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ㄴ», «ㄹ», «ㅁ», «ㅇ»인 때에 재래의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과 둘째 번 어근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이 나는 것은 그 중간에 «사이 표»(')를 둔다.

1)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

례: 그믐'달 기'발 길'짐승 나루'배 날'짐승

2) 소위 «사이 ㅅ»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이 나는 것.

례: 겹'이불 공'일 낮'일 논'일 늦'요강 담'요

3) 한'자어에서 이에 준할 만한 경우에도 «사이 표»를 둘 수 있다.

15) 용례에 '절손, 담요, 논일'과 같이 사이시옷 현상과 무관한 예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일안(1940)과 같이 사이시옷 현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16) 용례에 보인 '가수(加數)' 등은 남에서는 [가수]가 규범 발음으로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례: 군'적(郡的) 도'적(道的) 대'가(代價)
제24항. 접두사와 어근이 사이에도 제19항에 준하여 ≪사이 표≫를 둔다. 례: 덧'이 새'노랗다 시'누렇다 짓'이기가 헛'일 흘'이불 해'곡식 해'조

철자법(1954)에서는 사이시옷 규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신철자법(1948)의 ‘절음부’를 ‘사이 표’로 개칭하였고 이전 규정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파생어에서의 사이 표 표기(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 하거나 그 各 原形을 밝혀 적는다)를 제24항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정도의 변화만 확인된다.

조선말규범집(1966)

제4장 합성어의 적기 제14, 18항

제14항 합성어는 매개 어근의 본디형태를 각각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1) 건잡다, 낫보다, 눈웃음, 돈보다, 물오리, 밤알, 손아귀, 철없다, 꽃철, 끝나다 2) 값있다, 걸늬다, 몇날, 빛나다, 칼날, 팔알, 흉내 그러나 오늘날 어근이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본디형태를 밝혀적지 않는다. 례: 며칠, 부랴부랴, 부리나케, 오라버니, 이틀, 이태
제18항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

규범집(1966)에서는 이전 규정과 달리 사이시옷 소리에 대한 표기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합성어에서의 소리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합성어 구성 요소의 원래 형태만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사이 표’의 사용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나 합성어나 파생어 등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표기는 폐지되었다.

사이시옷 현상과 관련 규정은 표기법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아래와 같이 표준발음법¹⁷⁾ 제31, 32, 33, 34항으로만 남게 되었다.

#표준발음법 제8장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31, 32, 33, 34항

제31항. 합성어(또는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린 단어)의 앞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니]를 덧내어 발음한다. 례: 발일 물약 부엌일 콩엿 짓이기가 담요

17) 규범집(1966)에서는 내용 위계상 맞춤법의 하위에 있던 발음법이 '표준발음법'으로 독립하였다.

제32항. 합성어(또는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을 덧붙여 발음한다. 례: 바다일-[바단닐] 대잎-[댄닐] 수여우-[순녀우]
제33항.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순환소리나 유양자음으로 시작한 합성어에 서는 그 두 어근사이에서 받침소리 [ㄷ]을 덧붙이는것처럼 발음한다. 례: 배전-[뱀전→뱀쩐] 배머리-[뱀머리→뱀머리] 가위밥-[가윌밥→가윌뺑]
제34항. 합성어의 앞 어근이 유양자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순환소리일 때는 그 순환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그믐달-[그믐딸] 손등-[손뚱]

표준발음법 규정으로 정비하면서 그간 사이시옷 표기의 예로 함께 제시되던 관형형 어미 ㄴ 뒤에서 나는 경음화(제41항)나 한자어에서 발생하는 경음화(제15항)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소리에 대한 고찰이 정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31항에서 사이시옷 현상과는 다른 ‘이 야 여 요 유’ 앞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ㄴ 첨가 현상을 사이시옷 현상으로 묶어 다루고 ‘ㄴ, ㄹ’ 앞에서 ㄴ 첨가가 되는 ‘코널[곤날], 비물[빈물]’과 같은 사이시옷 현상을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반면 경음화 조건이나 ㄴㄴ 첨가 조건의 음운론적 환경을 명시하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시옷 현상은 수의적인데 반하여 규정은 해당 환경에서 그렇게 발음해야 할 것으로 다소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ㄴㄴ 첨가에 한하여 ‘수여우’와 같은 파생어도 사이시옷 현상으로 다루었다.

#조선말규범집(1987)

맞춤법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14, 15항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1) 낮보다, 눈웃음, 돋보다, 물오리, 밤알, 손아귀, 철없다, 꽃철, 끝나다 2) 값있다, 겹늬다, 몇날, 빗나다, 칼날, 팔알, 흙내 그러나 오늘날 말뿌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며칠, 부랴부랴, 오라버니, 이틀, 이태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환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례: 마파람, 살코기, 수개, 수돼지, 좁쌀, 휘파람, 안팎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례: 셋별 — 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 - 비바람(비와 바람)

규범집(1966)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던 사이시옷 표기가 규범집(1987)에서 조건부로 부활하였다. 고유어 동철이음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적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규범집(1987)에서는 사이시옷의 표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전 규정과 달라졌다. 이전 규정에서는 음운 변동에 대한 표기로써 사이시옷을 접근했다면 규범집(1987)에서는 제14항의 형태주의 표기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어 동철이음이의의 합성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이시옷의 사용이 도입되었다. 즉 사이시옷을 형태·의미론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규범집(1986)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였음에도 예로 보인 것 외에 사용례를 확인하기 어렵다.¹⁸⁾ 한편 사이시옷의 표기 방식도 사이 표가 아닌 전통적 표기인 ㅅ으로 복귀하였다.

문화어발음법

제9장 사이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6, 27, 28항

제26항. 합친말(또는 앞불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 소리가 발음되는것을 허용한다. 례: — 논일 [논닐], 밭일 [밭일→반닐], 꽃잎 [꼴잎→꼴넙], 어금이 [어금니] — 짓이기다 [짚이기다→진니기다], 옛이야기 [옴이야기→옴니야기]
제27항. 합친말(또는 앞불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ㄴㄴ》을 끼워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례: — 나라일 [나라일], 바다일 [바다일], 배개잇 [배개잇] — 수여우 [순녀우], 수양 [순냥]
제28항. 앞말뿌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말뿌리가 순한소리나 올림자음으로 시작된 합친말 또는 단어들의 결합에서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ㄷ》을 끼워서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례: — 개바닥 [개바닥], 노래소리 [노래소리], 사령부자리 [사령부자리] — 가위밥 [가윈밥→가위뺨], 배전 [뽕전→배쩨], 쇠돌 [쇳돌→쇠똥], 이몸 [인몸→인똥]

규범집(1966)의 표준어발음법 규정과 비교하여 규범집(1986)의 문화어발음법 규정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사이시옷 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이전 규정에서 ‘발음한

18)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가운데 제15항 불임에 해당하는 표기로 '개대-갯대, 채날-챗날, 푸나무-풋나무'가 있다. 엄밀히는 동철어의 경우는 아니나 사이시옷이 사용된 올림말로는 '기름챗날, 푸깃잇, 잇짚' 등만이 확인된다.

다'였던 것이 '허용한다'로 바뀌었다. 용례에서도 '나라일[나라일]'과 같이 사이시옷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와 '배개잇[배개넌]'과 같이 ㄴ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를 함께 보였다. 이전 규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인 것처럼 표현된 것을 실현의 수의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규범집(2010)

맞춤법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14항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1: 견잡다 낮보다 눈웃음 돋보다

례2: 값있다 곁늬다 몇날 빛나다

《암, 수》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

례: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기와 암기와

규범집(2010)은 규범집(1986)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이시옷 표기를 위와 같이 규범집(1966)으로 되돌려 왔다. 표기에서 사이시옷을 폐지하고 형태주의 표기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문화어발음법

제9장 사이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5, 27항

제25항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뒤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앞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형태부사이에 [니]을 끼워 발음한다.

례: — 논일[논닐], 밭일[밭일→반닐], 꽃잎[꼴닐], 안팎일[안판닐],
엿일[엔닐], 낮익은[난니긔], 못잊을[몬니줄], 짓이기대[진니기대]

그러나 《있다》의 경우에는 제10항에 준하여 끊어내기로 발음한다.

2)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에 한하여 [니]을 끼워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나라일, 바다일, 배개잇¹⁹⁾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수여위[순너위], 수영[순녕]

— 아래이[아랜니]

제27항 고유어로 만들어지는 일부 합친말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에는 형태부들사이에 《ㄷ》을 끼워 발음한다.

- 예: — 강개강ㄷ가→강개, 길개길ㄷ가→길개
 — 바다개바달가→바다개, 수도개수돌가→수도개
 — 뒤문[뒤문→뉘문], 뒤사람[뒤사람→뉘사람]

문화어발음법에서 사이시옷 소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규정에서와 같이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에서도 사이시옷 소리를 인정하였으며 이전 규정에 비해 정비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규범집(1987)에서 ‘허용한다’로 바꾸었던 것을 규범집(1966)과 같이 ‘발음한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렇지만 제25항 2)에서 사이시옷을 끼우는 경우와 끼우지 않는 경우를 대별해 보이고 있어서 규범집(1987)에서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바뀐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철자법(1948)과 철자법(1954)은 통일안(1933)을 비판하면서 형태주의 표기를 강력하게 견지하였다. 그렇지만 사이시옷 소리에 관해서는 통일안(1940)보다 표기의 영역을 넓히면서까지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은 형태주의 표기 원칙과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의 발음 변화의 표기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고심의 결과로 새로운 기호(절음부→사이 표)가 도입된 것이다.

문자 또는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한다면 표기에 새로운 문자나 기호를 도입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과감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규범집(1966)에서 사이시옷의 표기 및 그 표기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문자까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폐기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한글 자모가 아닌 새로운 기호와 표기법을 도입했다는 점과 한글 자모가 음소 문자임에 반하여 사이 표는 일종의 음성 부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¹⁹⁾ 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합성어의 두 구성 요소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보수적 표기인 《ㅅ》에 비해 새로운 기호(′)가 개입된 표기가 어색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사이 표가 음성 부호라면 경음화 등의 표기를 굳이 합성에 한정할 이

19) 문화어발음법에서는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예로 보인 ‘나라일, 베개잇’의 남측 발음은 각각 [나란 일], [베갸넛]으로 사이시옷 소리가 난다. 한편 ‘바다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규범 발음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필자의 직관상 [바단넛]로 사이시옷 소리가 날 것으로 여겨진다. 사이시옷 소리와 관련된 남북의 규범 발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북의 ‘사이 표’에 대한 관점은 규범집(1966)을 통해 미루어볼 수 있다. 사이시옷 현상의 표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으나 발음교육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이 표를 일종의 발음 부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방증이 될 것이다.

유는 없을 것이다. 즉 ‘할 것이 없다’의 경우 북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할것이 없다’로 붙여 쓸 것이며 이때 관형형 어미 뒤에서 예사소리가 경음화하는 경우 ‘할’ 것이 없다와 같이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음소 단위가 아닌 음성 기호적 성격의 기호가 철자법에 허용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철이음이의어의 시각적 구별을 위해 음운 요소인 장음 부호의 사용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규범집(1966)에 와서는 사이 표의 사용이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규범집(1987)에서 고유어 합성어에서 동철이음이의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이시옷의 표기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은 규범집(2010)에서 다시 삭제되고 만다. 즉 북에서는 다소의 변화가 시도되었으나 ‘(신)철자법’ 이후 ‘규범집’으로 넘어오면서는 사이시옷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3.3. 남의 사이시옷 관련 규정

분단 이후 남에서는 통일안(1933)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문교부 고시를 통해 국가 공인의 규범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통일안’이란 이름으로 통일안(1946), 통일안(1948), 통일안(1958), 통일안(1980) 총 4번의 개정이 있었다. 이후 현행 규범인 ‘한글맞춤법’(1988)이 확정되었다²¹⁾.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통일안(1948)은 통일안(1946)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꾼 것(複合 名詞→복합 명사)이 주된 변화이며, 통일안(1958)은 이전 ‘통일안’의 한자 개념어를 고유어 개념어로 수정한 것(복합 명사→겹이름씨)이 주된 변화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안’ 가운데서는 통일안(1946), 통일안(1980)만을 다룰 것이다.

통일안(1946)의 사이시옷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46): 제30항

第三〇項. 複合 名詞나 또는 複合 名詞에 準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口蓋音化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表示하지 아니한다.

例:

(一) 윗 말 끝이 홀소리인 것

① 냇가(川邊) 콧날(鼻線) 콧등(鼻脊) 잇몸(齒齦) 촛불(燭火)

② 잇과(理科) 갯법(加法) 홑수(戶數) 섯자(書字)

③ 챗열(鞭穗) 아랫이(下齒) 댓잎(竹葉) 베갯잇(枕衣)

21) ‘한글맞춤법’이 확정되기까지는 기 세관·최 호철(1994) 참고.

(二) 앞 말 끝이 닿소리인 것

- ① 길가(路邊) 손등(手背) 등불(燈火) 발새(趾間) 집(土幕)
 들것(擔架) 굴대(轉軸) 들보(架樑) 짚손(把所) 길짐승(走獸)
 ② 상과(商科) 감법(減法) 권수(卷數) 한자(漢字)
 ③ 집일(家事) 물약(水藥) 쌀엿(米飴) 맹장염(盲腸炎) 관절염(關節炎)

먼저 통일안(1946)에서는 통일안(1940)에서 제안된 사이시옷의 표기 위치를 이전으로 복원했다. 즉 사이시옷 표기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풀어쓰기, 즉 형태소 경계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도록 한 규정을 선행 요소의 받침으로 쓰도록 되돌린 것이다.

표기 면에서는 통일안(1933, 1937)으로 회귀했지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한자어를 포함하여 합성어의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한자어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었다. 제30항에서 명시적으로 합성어의 어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로 ‘잇과(理科), 갓법(加法), 호수(戶數), 섯자(書字)’를 보여 한자어에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음이 확인된다. 신철자법(1948)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며 합성어의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80): 제30항

제27항 겹이름씨나 또는 겹이름씨에 준할 만한 말의 두 말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앞 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ㅅ」 소리를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뒷 말의 첫소리가 「ㄷ, ㄴ(반홀소리), ㄴ, ㄹ」일 적에, 「ㄴ(ㄴㄴ)」이나 「ㄹ」 소리가 덧날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1. 앞 말 끝이 홀소리인 것

- | | | | | |
|------------|--------|--------|--------|-----|
| (1) 냇가 | 마룻바닥 | 콧등 | 춧불 | 전셋집 |
| (2) 갓법(加法) | 잇과(理科) | 섯자(書字) | 호수(號數) | |
| (3) 농삿일 | 댓잎 | 뒷날 | 뒷일 | |
| 베갯잇 | 잇몸 | 챗열 | 콧날 | |

2. 앞 말 끝이 닿소리인 것

- | | | | | |
|------------------|--------------|----------|----|----|
| (1) 굴대 | 길가 | 길짐승 | 들것 | 들보 |
| 등불 | 발살 | 손등 | 움집 | 짚손 |
| (2) 감법(減法) | 권수(卷數) | 관절염(關節炎) | | |
| 맹장염(盲腸炎) | 상과(商科) | 한자(漢字) | | |
| (3) 물약(물약→물냐→물락) | 쌀엿(쌀엿→쌀녇→쌀렛) | 좀약 | 집일 | |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가랑니	금니	덧니	머릿니	버드렁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옥니	젓니

통일안(1980)은 통일안(1946)과 비교하여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했다. ㄴ(ㄴ) 소리의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전 규정에서와 같이 ‘들것, 들보, 철손, 줍약’ 등 사이시옷 소리가 아닌 경우화나 ㄴ 첨가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

‘통일안’은 사이시옷 표기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면 한글맞춤법(1988)은 상대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제한하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맞춤법(1988)의 사이시옷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글맞춤법(1988)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꺾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댕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싯돌 선짓국 섯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찻집 챗바퀴 킷값 핏대 햇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맷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뒤편 잇몸
 껏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꺾얼 뒹웃 두렛일 뒹일 뒹입맛
 베꺾잇 옷잇 껏잎 나뭇잎 댕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꺾병 머릿방 뱃병 붓둑 사꺾밥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좇국
 콧병 땃줄 텃세 핏기 햇수 횃가루 횃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꺾날 제꺾날 훗날 텃마루 양꺾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꺾일 사꺾일 예꺾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뒹간(退間) 횃수(回數)

규정은 전체적으로 통일안(1933)으로 회귀하였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대상에서 한자어 합성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음절 한자어 6개에만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까지 ‘통일안’에 비하여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환경을 자세하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통일안(1980)까지 이어지던 용례의 부정확함도 해소되었다.

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적극적이었다. 통일안(1933)에서 제안된 규정을 다듬어 가면서 통일안(1946)에서는 어종과 관련 없이 일정한 조건, 즉 ① 합성어이거나 이에 준하는 형식일 것 ② 사이시옷 소리가 날 것 ③ 선행 요소의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의 초성이 예사소리일 것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한글맞춤법(1988)까지 이어졌다. 다만 한글맞춤법(1988)에서 사이시옷 표기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자어를 사이시옷 표기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많은 합성어에서 사이시옷 표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정비된 사이시옷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규정을 엄밀히 적용하면서 이전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던 합성어에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게 되었다. 또한 신어 합성어 등에서도 그 표기를 확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4. 통합안

북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남에서도 규정 변화의 경향으로는 사이시옷을 표기에서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성에 따른다면 사이시옷 표기의 통합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글맞춤법(1988) 이후 사이시옷 규정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규정을 엄밀히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던 많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사이시옷 소리가 확인되는 신어 합성어들이 늘어나면서 남에서는 되레 사이시옷 표기가 확대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²²⁾ 현실적으로 남북이 상반된 표기 경향을 보이며 이런 경향성이 주요한 남북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시옷 표기 차이는 사이시옷에 관한 남북의 관점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에서는 사이시옷을 음성 부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사이시옷을 대체하는 기호(절음부 또는 사이 표)를

22) 최근에는 외래어를 포함한 합성어에서도 사이시옷 소리가 확인된다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제기되었다.

고안해 낸 것이다. 또한 그 표기가 표기법에서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발음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한하여 유예했음을 통해서도 이 부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남에서는 음운론적 관점과 형태·통사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이 차이와 함께 철자법의 원칙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사이시옷 표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기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사이시옷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통시적으로 사이시옷은 형태·통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사이시옷²³⁾은 이런 전통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 형용(2009:76)의 “사이시옷은 … 단어 내부의 요소로 변화한 후에는 형태소의 지위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졌다.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포도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란 지적이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 형용(2009)을 수용하여 사이시옷을 기원적으로 형태·통사적 동인에 의해 사용된 형태소이지만 현대에서는 어휘 층위에 한정하여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표기한 것으로 보겠다.

사이시옷 소리가 수의적인 음운 변동이라고 보고 표기법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검토해 보자. 한글맞춤법(1988)에서 소리 변화의 경우 자음동화 등 자동적인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비자동적인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시적으로 사이시옷 소리는 수의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표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²⁴⁾ 그러나 비자동적인 음운 변동의 경우라도 그 발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경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머리말’이 [머리말/머린말²⁵⁾], ‘원조집’이 [원조집/원조쩍] 중 어느 발음이 규범 발음인지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사전의 규범 발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있는 남에서조차 합성어에서의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쉽지 않다.²⁶⁾

합성어에서 사이시옷 소리의 실현을 예측할 수 없음은 남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과 발음 규정이 보이는 순환성에서도 방증된다. 사이시옷 표기는 발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발음은 다시 사이시옷 표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²⁷⁾ 두 규정만으로는 어

23) 본고에서 언급하는 공시적인 사이시옷은 엄 태수(2007)에서 분류한 어휘적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것이다.

24) 엄 태수(2007:244-245)는 “음운규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더라도 그것이 기본형과 너무나 동떨어진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 ... 탈락이나 삽입과 같이 형태소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경우에 표기에 반영한다. 나아가 불규칙적인 음운 현상은 모두 표기에 반영한다.”라며 사이시옷 표기를 주장하였다.

2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규범 발음은 [머리말]이나 채 완(2002:27)에서는 “‘머리말, 인사말(人事말), 예사말(例事말)’에서 ‘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 제시한 규범 발음의 규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 있다.

26) 김 선철(2003), 최 형용·김 혜지(2016) 참고.

27) 채 완(2002:27)에서도 “사이시옷이 있어서 경음이 되고, 경음이니까 사이시옷이 표기된다는 순환적 규정으로 규정 자체가 문제를 내포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편 합성어에서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그렇기에 바르게 표기하기도 쉽지 않다. 신어의 경우에는 신어의 단어성과 더불어 규범 발음이 공인되어야 비로소 규정에 맞는 표기를 할 수 있게 된다.²⁸⁾

북의 규범 발음까지 고려하게 되면 사이시옷 표기를 위해 규범 발음을 확정하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가운데 사이시옷 표기 차이를 보이는 올림말은 1602개이며 이 올림말 가운데 1269개는 발음이 일치하나 333개는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²⁹⁾ 단순 수치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합성어 및 신어의 발음에서는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시옷 소리가 비자동적인 음운 현상이라고 실현 여부 자체가 수의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남에서 불규칙적인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고는 있으나 음운 변동의 실현 자체가 수의적인 사이시옷 소리가 이와 동일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시옷 소리의 수의성이 표기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통해 통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형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이시옷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남의 입장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변화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시옷은 공식적으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휘의 한 속성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이시옷 소리의 실현 여부 자체가 지역, 세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수의적이며 남북의 규범 발음에서조차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은 사이시옷을 정확하게 적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사이시옷 소리가 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거나 남북의 규범 발음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이시옷 표기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게다가 현행 규정이 갖는 규정상의 복잡성까지 고려한다면 언중에게 사이시옷 표기가 유발하는 ‘언어적 불안감’³⁰⁾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사이시옷을 표기에서 폐지하는 경우 가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 우려 때문에 사이시옷 표기를 폐지했던 북에서조차 규범집(1986)에서 제한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사이시옷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써 ‘비바람-빗바람’, ‘고기배-고깃배’ 등의 구별이 가능해져 가독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만약 이 기대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6개의 한자어에서만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한자어 합성어 등을 포함하며 사이시옷 표기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가(高價)[고까], 고가(高架)[고가]나 ‘소수

28) 도로명 표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논란이 바로 도로명의 단어성과 발음의 문제를 공인하는 과정이었다.

29) 송 철의(2006:30-31) 참고.

30) 채 서영(2008:209)은 “현행 사이시옷 표기 규정은 언중의 언어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대다수의 화자들이 반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믿고, 실제로도 그 정도밖에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표기법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小數)[소수], 소수(素數)[소쑤]와 같은 동형이음이의어의 시각적 구별을 위해서 ‘긱가-고가’, ‘쑤수-소수’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가 가독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시옷 표기가 단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조사한 배 성봉·이 광호(2012)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 배 성봉·이 광호(2012:363)에서 “사이시옷 표기 단어(나뭇잎)의 재인이 사이시옷 생략 단어(나무잎)의 재인보다 우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이시옷 표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친숙도 때문임을 보여준다. 사이시옷 표기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생략된 조건(북어국)에서 단어의 의미 이해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는 친숙도의 영향을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사이시옷을 표기한 조건(전셋돈)에서보다 사이시옷을 생략한 조건(전세돈)에서 단어의 의미 파악이 더 빨랐다.”라고 하였다. 즉 표기의 보수성이라는 조건을 배제하게 되면 단어의 의미 파악에서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가 더 효과적임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렇기에 배 성봉·이 광호(2012:364)에서 “기왕의 사이시옷 단어에서 사이시옷을 제거하여도 단어 재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일시적이며 쉽게 만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5. 결론

지금까지 사이시옷에 관한 연구를 개괄하고 사이시옷 표기 규정의 변천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남북의 사이시옷 표기 차이를 해소할 통합안이 도출되었다. 남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격한 제안일 수 있으며 은연중 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의 성격과 이제까지 표기 규정이 보이는 경향성, 그리고 사이시옷 소리와 관련한 남북의 언어 현실과 현행 규정이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한 결과일 뿐이다. 이 통합안이 적용된다면 표기법이 갖는 보수성으로 인해 남측 언중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색함은 배 성봉·이 광호(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에서 조차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사이시옷 폐지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성취할 것인가는 별도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이 관이 주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언어 정책 기관들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합의 자체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고려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차원에서 사전 편찬 작업 등을 통해 통합이 시도되고 남북의 언중들에 의해 선택·수용된 안을 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규정의 합의나 수용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기 세관·최 호철(1994), 남북한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231-250쪽.
- 김 민수(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김 양진(2003),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형태 규범(표기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 방안』, 우리어문연구.
- 김 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배 성봉·이 광오(2012), 사이시옷이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 인지과학23-3, 한국인지과학회. 349-366쪽.
- 송 철의(2006), 『남북 사이시옷 표기의 통일 방안 연구』, 겨레말 연구총서.
- 안 배근(2002), 사이시옷의 표기 변천, 국어문학37, 국어문학회. 84-111쪽.
- 양 순임(2011),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한글293, 한글학회. 117-167쪽.
- 엄 태수(2006), 현대국어 사이시옷 현상의 검토, 국제어문38, 국제어문학회. 165-200쪽.
- 엄 태수(2007), 사이시옷 현상과 한글 맞춤법, 시학과 언어학13, 시학과 언어학회. 239-288쪽.
- 이 동석(2011), 현행 사이시옷 규정과 관련된 몇 문제, 민족문화연구54, 민족문화연구원. 185-226쪽.
- 이 현규(1982), 사이시옷의 형태와 기능, 한글176, 한글학회. 179-209쪽.
- 이 희승·안 병희(1989/2003), 새로 고친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임 석규(2008), 사이시옷 규정의 문제점 고찰,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1-24쪽.
- 임 흥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10, 국어학회. 1-35쪽.
- 전 철웅(1990), 사이시옷,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채 완(2002), 사이시옷 규정과 문자 생활의 현실, 인문과학연구8,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41쪽.
- 채 서영(2008), 한국어 사이시옷 표기 혼란과 표준어 정책의 방향, 언어학52, 한국언어학회. 187-214쪽.
- 최 용기(2007), 남북의 언어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10, 199-228쪽.
- 최 현배(1975), 우리말본(5판), 정음사.
- 최 형강(2018), ‘사이시옷’과 ‘두음 법칙’ 재고(再考), 어문학140, 한국어문학회. 97-121쪽.
- 최 형용(2009), 현대 국어의 사이시옷은 과연 형태소인가, 형태론11-1, 형태론. 61-78쪽.
- 최 형용·김 혜지(2016), 구성족 개념에 따른 사이시옷의 실현과 비실현, 국어학80, 국어학회. 195-227쪽.
- 하 세경(2006),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하 정수(2010), 현대국어 형태소 {ㅅ}의 의미와 기능, 어문연구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1-167쪽.
- 하 치근(2002) 남북 맞춤법의 통일화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95-124쪽.
- 홍 사만(2004), 『북한 문화어 어휘 연구-“조선문화어사전” 분석』, 경북대학교 출판부.
- 홍 종선·최 호철(1998), 남북언어 통일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622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발표 자료집

2019년 5월 7일 박음

2019년 5월 10일 펴냄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권 재일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 이 책은 한글재단의 지원을 받아 펴내었습니다.